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799-01
연구보고	2016-54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연 구 기 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 황 남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자 : 정 경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 영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 경 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 신 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여 성 가 족 부

본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1
제2장 선행연구 검토	25
제1절 여가활동과 노인의 삶의 질	27
제2절 노인의 여가활동과 노인복지관	32
제3절 성별 및 지역별 여가활동 특성과 노인복지관 이용현황	38
제4절 소결	48
제3장 노인복지사업의 법제적 검토	51
제1절 노인복지사업 관련 법체계	53
제2절 노인복지법령상 양성평등	55
제3절 노인복지관 운영상 양성평등	58
제4절 소결	65
제4장 노인복지관 실태조사: 성인지적 접근	67
제1절 조사개요	69
제2절 노인복지관 기관조사 결과	71
제3절 노인복지관 이용자조사 결과	84
제4절 소결	102

제5장 지역유형별 노인복지관 사례연구	105
제1절 대도시형 노인복지관	107
제2절 중소도시형 노인복지관	121
제3절 농어촌형 노인복지관	133
제4절 지역유형별 특성 비교	143
제6장 노인복지관 운영 개선방안	149
제1절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법·제도 부문 개선 제안	151
제2절 노인복지관 운영과정상 개선 제안	154
제3절 개선과제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160
참고문헌	167
부 록	171
1.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71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댐주변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75
3. 기관조사 설문지	176
4. 이용자조사 설문지	183

표 목차

〈표 2-1〉 노년기의 발달과업	28
〈표 2-2〉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30
〈표 2-3〉 연령군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31
〈표 2-4〉 제특성별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실태	31
〈표 2-5〉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이용대상(제36조, 시행규칙 제24조)	33
〈표 2-6〉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33
〈표 2-7〉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서비스	34
〈표 2-8〉 노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과제	36
〈표 2-9〉 시도별 노인복지관 시설수 및 종사자수	37
〈표 2-10〉 제특성별 노인복지관 이용 실태 및 이용 욕구	38
〈표 2-11〉 성별·지역별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율 및 노후(여성)의 참여희망율	39
〈표 2-12〉 노인의 성별·지역별 지난 1년간 주된 여가 활동(1~3순위 중복 응답)	41
〈표 2-13〉 노인의 성별·지역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영역	42
〈표 2-14〉 노인의 성별 및 지역별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 정도	43
〈표 2-15〉 노인의 성별·지역별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	45
〈표 3-1〉 노인복지관 운영기준의 주요 규정내용	56
〈표 3-2〉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주요내용	57
〈표 3-3〉 보건복지부의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주요내용	59
〈표 3-4〉 과천시 노인복지관 사업내용	60
〈표 3-5〉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복지관 평가 관련 조항	62
〈표 3-6〉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62
〈표 4-1〉 조사대상별 설문문항	70
〈표 4-2〉 노인복지관 일반현황	72
〈표 4-3〉 노인복지관 조사응답자의 일반사항	73
〈표 4-4〉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현황	74
〈표 4-5〉 서비스 실시 기관 수 및 이용노인의 성별 구성	75
〈표 4-6〉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별 이용노인의 성별 구성	77
〈표 4-7〉 성별 인기프로그램	78
〈표 4-8〉 성별 인기프로그램 : 1~3순위 중복응답	79
〈표 4-9〉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및 인식	81

〈표 4-10〉 성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 세부내용	82
〈표 4-11〉 성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세부내용	83
〈표 4-12〉 응답노인의 일반 사항	85
〈표 4-13〉 노인복지관 이용 경로	87
〈표 4-14〉 노인복지관 주 이용 시간대	87
〈표 4-15〉 노인복지관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	88
〈표 4-16〉 성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	89
〈표 4-17〉 지역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	90
〈표 4-18〉 성별 및 지역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1-3순위 중복)	91
〈표 4-19〉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수	92
〈표 4-20〉 주로 참여하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대표자(반장) 성별	93
〈표 4-21〉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의견 반영 및 결과 확인 가능 여부	93
〈표 4-22〉 노인복지관 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	94
〈표 4-23〉 성별 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	96
〈표 4-24〉 지역별 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	97
〈표 4-25〉 성별 노인복지관 이용에 대한 만족 정도	98
〈표 4-26〉 지역별 노인복지관 이용에 대한 만족 정도	99
〈표 4-27〉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 남자/여자 회원의 의견 제시 여부	100
〈표 4-28〉 노인복지관의 개별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남자와 여자의 성비에 대한 태도	101
〈표 4-29〉 노인의 성별 특성(남자/여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101
〈표 4-30〉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	102
〈표 5-1〉 A1노인복지관 관할 행정구의 인구현황	108
〈표 5-2〉 A1노인복지관의 층별 시설현황	109
〈표 5-3〉 A1노인복지관의 아미용실 이용안내	110
〈표 5-4〉 A1노인복지관 경로당활성화사업 주요내용	110
〈표 5-5〉 A1노인복지관의 2015년 결산현황	111
〈표 5-6〉 A2노인복지관 관할 행정구의 인구현황	114
〈표 5-7〉 A2노인복지관의 직원현황	116
〈표 5-8〉 A2노인복지관의 시설현황	116
〈표 5-9〉 A2노인복지관의 복리후생사업	117
〈표 5-10〉 A2노인복지관의 경로당활성화사업 주요내용	117

〈표 5-11〉 A2노인복지관의 2015년 결산현황	118
〈표 5-12〉 B1노인복지관 관할 행정구의 인구현황	121
〈표 5-13〉 B1노인복지관의 시설현황	123
〈표 5-14〉 B1노인복지관의 2016년 상반기 결산현황	123
〈표 5-15〉 B1노인복지관의 노인성상담 사업안내	127
〈표 5-16〉 B2노인복지관 관할 행정시의 인구현황	128
〈표 5-17〉 B2노인복지관의 시설현황	129
〈표 5-18〉 B2노인복지관의 노인종합상담실 사업안내	131
〈표 5-19〉 C1노인복지관 관할 행정군의 인구현황	133
〈표 5-20〉 C1노인복지관의 층별 시설현황	134
〈표 5-21〉 C1노인복지관의 주요사업 및 사업별 대상	135
〈표 5-22〉 C1노인복지관의 2015년 결산현황	135
〈표 5-23〉 C2노인복지관 관할 행정시의 인구현황	139
〈표 5-24〉 C2노인복지관의 층별 시설현황	139
〈표 5-25〉 C2노인복지관의 대상별 추진사업	140
〈표 5-26〉 C2노인복지관의 2015년 예산 현황	140
〈표 5-27〉 지역유형별 특성비교	144
〈표 6-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노인복지관 시설기준 수정(안)	152
〈표 6-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의 노인복지관 시설기준 수정(안)	152
〈표 6-3〉 2015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중 이용자 관리체계	153
〈표 6-4〉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중 이용자 관리체계 개선(안)	153
〈표 6-5〉 성인지적 교육 교재 포함내용 예시	156
〈표 6-6〉 시대변화에 따른 성별 특화 프로그램 예시	158
〈표 6-7〉 지역유형별 노인복지관 특성	159
〈표 6-8〉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과제(안)	161

그림 목차

[그림 1-1] 노년기 욕구별 노인복지제도 현황	21
[그림 1-2] 연구체계도	23
[그림 2-1] 노인복지관의 미션-비전-목표-기능의 관계	35
[그림 2-2] 성별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	45
[그림 2-3] 성별 노인복지관 불만족 이유	46
[그림 2-4] 지역별 노인복지관 불만족 이유	47
[그림 3-1] 노인복지사업 관련 법체계	53
[그림 5-1] A1노인복지관의 조직도	109
[그림 5-2] A2노인복지관의 조직도	115
[그림 5-3] B1노인복지관의 조직도	122
[그림 5-4] B2노인복지관 조직도	129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양적규모를 확대시켜 노인복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과거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수준의 향상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노인집단 내에서도 지역 및 성별로 노인복지의 수요는 다양화, 양극화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소득보장과 건강보장, 사회참여(일자리, 여가문화)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그동안 정책적 관심은 소득보장(기초연금제도)과 건강보장(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영역에 치중된 경향이 있음
- 최근 노인인구의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의 향상 등 질적인 변화와 함께 은퇴 후 사회참여에 대한 서비스 욕구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는 일정 수준 구축된 상황이므로, 노인의 여가활동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노인집단 내의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은 여자노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남자노인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제한요인이 있는 것인지 또는 노인인구에서 여자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아서 나타나는 착시현상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노인복지사업 중 노인복지관의 여가서비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함

2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노인복지정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제도는 노년기 욕구 중 빈곤과 질병에 해당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임
 -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현수 등, 2008),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정경희 등, 2013), 2015년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우해봉 등, 2015)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수행됨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의 여가서비스가 선정된 것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후순위였던 노년기의 무위와 소외에 대해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본 연구는 노인의 무위 및 소외의 욕구에 주목하는 노인복지관 사업을 검토함으로써 노인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평가해 볼 것이며, 이를 통해 노인복지사업의 전 범위에 해당하는 성별영향평가가 가능해짐
 - 노인복지관은 법적인 분류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지만 실제로 행하는 기능은 지역사회 기반의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라고도 볼 수 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 노인복지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시함
 - 노인의 여가활동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존문헌을 수집·검토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노인실태조사를 분석함
 - 여가활동과 노인의 삶의 질, 노인의 여가활동에 있어서의 노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등
 -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성별 및 지역별로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특성, 노인복지관 이용실태를 비교·분석
 - 노인복지사업의 법제적 검토를 실시하고, 성인지적 관점에 의거한 노인복지관 실태 파악을 위해 우편 설문조사를 진행함

- 노인복지사업 관련 법체계에 대해 점검해 보고, 노인복지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노인복지관 운영 및 평가과정에서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봄
- 노인실태조사 등 기존 이차자료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성별 특화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현황과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30개소의 관리자 30명(30개소×1명)과 이용자 300명(30개소×10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함
-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접근에서 포착하기 힘든 부분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역 유형별로 노인복지관 사례조사를 실시함
 - 본 연구의 우편 설문조사에 참여한 30개소 기관을 지역유형에 따라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각각 2개소씩, 총 6개소의 노인복지관 종사자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노인복지관 현장실무자, 관계전문가 등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방향 설정과 문제점 도출, 해결방안 모색 등의 의견을 청취함

II. 선행연구 검토

1. 여가활동과 노인의 삶의 질, 노인복지관

-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노년기에는 경제활동 중심의 생활을 하던 청장년기를 지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할과 생활시간의 배분에서 벗어나는 시기임
 - 여가활동을 할 시간이 많은 ‘여가투성이’의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고독, 허탈감,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며 문화적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킴(정옥분, 2004)
 - 결국 노인기의 여가활동은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더 높은 생활만족도로 이어짐

4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우리나라 노인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노인의 약 2/3는 다양한 사회참여활동(평생교육, 각종 단체활동, 자원봉사, 경로당, 노인복지관의 이용 및 참여)에 주 1회 이하 참여함(정경희, 2015)
 - 2014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노년층의 여가활동은 TV시청이 가장 높아 70%를 넘고, 두 번째로 활발한 활동은 산책으로 8%대임. 그 외 다른 활동은 참가율 자체가 매우 낮음(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연구원, 2014)
 - 노년층은 여가활동 자체가 매우 한정적이며, 이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임

- 여가활동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여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 때문임
 - 여가의 사전적인 정의는 노동이나 직무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되어 갖게 되는 자유시간(위키피디아 홈페이지)이며, 여가는 노동과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휴식이나 기분전환, 이완과 같은 소극적인 활동부터 노동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과 교양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
 - 연구자들의 여가 정의에 따라, 여가활동을 분류하는 기준 또한 매우 다양한 상황임
 - 여가활동을 분류하는 기존 연구 중, 본 연구의 초점인 노인복지관과 관련하여 관심있게 보아야 할 부분은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여가활동에 포함되는 관계의 종류임
 - 여가활동을 장소에 따라 구분하는 분류(박재간, 1997)에 의하면 집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과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은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의 하나임

-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속하지만, 실제로 행하는 기능은 지역사회 기반의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구심적 역할을 함

-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음
- 이용대상자가 60세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문예회관이나 사회복지관과는 그 특성이 다름
- 노인복지관 사업은 2006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사업의 중심이 변화함

2. 성별 및 지역별 노인복지관 이용현황

-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노인의 여가활동 및 노인복지관 이용에 관한 성별 및 지역별 비교분석을 실시함
- 노인복지관은 전체 노인의 8.9%가 이용하고 있으며, 성별로 여자노인의 이용률이 9.3%로 남자노인 이용률의 8.4% 보다 높음
 - 여자노인이 0.9% 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노인인구의 성비와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여자 노인의 이용률은 낮은 수치로 볼 수도 있음
 - 2015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에서 여자의 비중이 58.2%로 남자 41.8%에 비해 16.4% 포인트 높음
- 향후 이용희망률은 여자노인 19.6%로 남자노인 19.3%와 유사함
-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노인의 이용율과 향후 이용희망률이 모두 읍면부지역 노인에 비해 높음
 - 현재 이용률은 차이가 작지만(도시 9.3%, 농촌 7.6%), 향후 이용희망률은 도·농 간 차이가 큼(도시 21.7%, 농촌 12.3%)
 - 노인복지관의 미래 수요는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III. 노인복지사업의 법제적 검토

- 노인복지사업 관련 법체계는 헌법, 노인복지법령, 시군구 조례로 구성되며,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있음
- 노인복지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리 연령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별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임
 -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 경로당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시행규칙 제24조)
- 제도적인 부분보다 실생활에서의 성별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설설치 기준에서 화장실을 남녀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이루어지는 노인복지관 평가에 적용된 평가지표가 양성평등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표 개선사항에 대해 살펴봄(동법 제43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이용자 관리체계’와 ‘전체 프로그램 이용실적’ 등의 지표에서 성별분리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IV. 노인복지관 실태조사: 성인지적 접근

- 성인지적 관점에서 노인복지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노인복지관 관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은 전국에 위치한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회원 노인복지관 258개소이며, 이 중 조사대상기관은 한국노인복지관협회로부터 40개소의 기관을 추천받은 후, 최종 30개소의 기관 종사자(30개소×1명)와 300명의 이용자(30개소×1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노인복지관의 지역유형은 주소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대도시형(11개소)과 중소도시형(11개소), 농어촌형(8개소)으로 구분함

- 설문조사기간은 2016년 7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약 2달)이며, 조사표는 전수 회수됨

□ 노인복지관 기관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성별 등록인원은 남자와 여자 40:60의 비율이며, 성별 노인복지관 서비스 이용현황은 여자 노인의 구성비율이 최소 54.1%에서 최대 75.8%로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이용이 높은 편임
-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프로그램별 성별 구성과 성별로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치함
 - 장기·바둑과 서예반은 남자노인의 참여구성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남자노인에게 인기있는 프로그램 공동 1위로 확인됨. 그리고 남자노인이 선호하고 구성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대부분 남자 노인이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음
 - 가요/노래교실과 요가 프로그램은 여자노인에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며 여자 노인의 참여 구성비도 높음
- 조사대상 노인복지관은 모두 직원대상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노인에게도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노인복지관은 전체의 55.2%임
 - 법적 기반으로 조직된 운영위원회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자비율이 70% 이상인 곳이 56.6%임
 - 이용노인으로 구성된 동아리 대표자 회의·운영간담회·자치회를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은 25개소이며, 이중 남자비율 40% 넘는 곳이 18개소(62.1%)임
 -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용노인의 성별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12개소(강의실 배치,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성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17개소(남자특화 15개소, 여자특화 6개소, 남녀공통 2개소)임

○ 기관별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종사자의 이해수준이 다름

- ‘성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성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음

〈표 1〉 성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세부내용

구분	내용	개소수
남자 특화 (15)	· 요리교실	10
	· 남자 독거노인 대상 일상생활 자립 프로그램(요리교실, 신체건강 지원 서비스 등)	2
	· 사별 남자 자립 능력 향상 프로그램	1
	· 가족소통 프로그램	2
	· 색소폰 음악교실	1
	· 시니어 스쿨(매너, 패션 등)	1
	· 남성 선호 프로그램(장기바둑교실, 당구교실, 골프교실 등)	4
여자 특화 (6)	· 여성 선호 프로그램(합창반, 핸드드립 커피교육, 한국무용, 라인댄스, 건강댄스)	4
	· 시니어 스쿨(매너 등)	1
	· 황혼 육아 프로그램	1
	· 1-3세대 교류 프로그램	1
	· 여자 독거노인 대상 원예치료교실	1
	· 여자 독거노인 대상 스마트폰 교육	1
	· 여자 저소득노인 대상 기차여행	1
	· 영양 특강	1
· 고부갈등 정서지원 프로그램	1	
남녀 공동 (2)	· 부부학교 양성평등교육	1
	· 시니어 스쿨(매너, 패션)	2
	·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2

주: 최대 3개까지 중복 응답에 대해 분석함.

□ 노인복지관 이용자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 노인의 노인복지관 이용 경로를 살펴보면, 본인·가족·친구의 안내로 이용하게 되었다(60.1%)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거주지 읍·면·동 내에 시설이 있어서(21.3%), 주민센터직원·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소개(9.5%) 등으로 사적 관계망에 의해 인지하게 되는 경향이 높음

- 전체 노인이 노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종일(43.1%)의 응답율이 가장 높고, 성별로는 남자 오전(32.8%), 여자 종일(44.8%)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수는 3개(32.4%)라는 응답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 4개와 5개 이상(각각 21.1%)이며, 성별로는 남자 3개(37.9%), 여자 5개 이상(27.3%)으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성별로 프로그램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자는 식사서비스(73.9%), 여자는 건강관리 및 운동프로그램(63.9%)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음
 - 이는 성별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와 일치함
- 남녀의 대화 및 사고방식 차이와 개선 방법, 성희롱 예방교육 등 노인의 성별 특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필요하다’(45.7%)는 의견이 절반정도로 여자(31.1%)에 비하여 14.6% 포인트 더 높은 수준임
 -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음(대도시 39.4%, 중소도시 37.6%, 농어촌 32.1%)
 - 이러한 결과는 관리자 조사표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93.1%)과 상이한 결과로, 노인세대(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는 청장년세대(노인복지관 직원)에 비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됨

V. 지역유형별 노인복지관 사례조사

- 노인복지관 우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지역유형별로 2개 기관을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함
 - 성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후 연구진 논의를 통해 선정함
 - 사례연구는 2016년 9월 5일부터 2016년 9월 19일까지 기관 실무담당자와의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짐
- 사례조사 결과,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대도시, 중소도시)과 확연히 다른 지역적 차이가 확인됨

- 농촌지역의 인구규모와 인구구성,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도시지역과 크게 다르기 때문임
 - 농촌지역은 노인인구의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인구규모는 작은 편임. 또한 농촌지역은 은퇴 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늦은 나이까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
- 상당수의 노인복지관은 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 지원을 하고 있음
 -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지리적 범위가 넓고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농어촌지역의 사업 수가 도시 지역에 비해 작고 프로그램도 다채롭지 못해 성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여의치 않음
 - 전국 단위 공통사업유형은 단지 권장사항으로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한기에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노인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임
- 법령상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은 50~60대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령상 이용대상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6a)
- 노인복지관에서 5천 원에서 3만 원까지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용료는 강사료에 턱없이 부족하며 재료비·운영비 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실비 부담이라는 명목이 무색할 처지임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노인의 욕구에 맞추어 보다 전문화 및 다양화하여 이용료를 현실적인 수준까지 부담지울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함

〈표 2〉 지역유형별 특성비교

(단위: 천명, m², %)

지역 유형	해당기관	전체 인구 수	60세 이상 비율	시설 및 직원 특성			이용자 특성			성별특화 프로그램 제공
				시설 면적	직원 수	남자 비율	남자 비율	초졸 이하 비율	75세 이상 비율	
대도시	A1 노인복지관	233	18.5	2,596	31	32.3	39.9	54.2	72.5	남, 여
	A2 노인복지관	221	16.9	3,365	18	44.4	38.1	59.9	83.1	남, 여
중소도시	B1 노인복지관	180	23.0	2,006	14	28.6	30.2	38.3	54.8	남, 여
	B2 노인복지관	393	10.9	3,578	36	11.1	37.1	33.0	37.7	남, 여
농어촌	C1 노인복지관	25	36.5	3,063	8	37.5	35.8	84.1	70.8	남
	C2 노인복지관	104	28.1	844	10	40.0	33.5	72.7	55.8	-

VI. 노인복지관 운영 개선방안

-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존문헌 분석과 법제적 검토, 우편조사 및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파악된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표 3〉과 같이 도출함
- 양성평등이 남녀의 차이를 감안하여 특정 성별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안을 두고 법·제도 부문의 개선방안과 운영과정의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제도기반개선, 성인지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표 3〉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과제(안)

분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제도기반개선	<p>○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1항에 의한 별표7에 시설기준을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의 화장실은 1개로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화장실 이용에는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사례조사 결과,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은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각각 1개소 이상씩 설치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화장실 관련 시설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p>1. 노인복지관 시설기준의 개선</p> <p>① 노인복지관 화장실 설치 기준 현실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의 2.시설기준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1개 → 남녀 각 1개씩 2개 <table border="1" data-bbox="646 625 1207 829"> <thead> <tr> <th>구분</th> <th>사무실</th> <th>식당 및 조리실</th> <th>상담실 또는 면회실</th> <th>집회실 또는 강당</th> <th>프로그램실</th> <th>화장실</th> <th>물리치료실</th> <th>비상재해대비시설</th> </tr> </thead> <tbody> <tr> <td>현행</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p> <table border="1" data-bbox="646 874 1207 987"> <tbody> <tr> <td>개정(안)</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남녀 각 1</td> <td>1</td> <td>1</td> </tr> </tbody> </table> <p>※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서 노인복지관 화장실 설치기준 현실화 반영(분관 포함)</p>	구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	1	1	1	1	1	1	1	1	개정(안)	1	1	1	1	1	남녀 각 1	1	1
	구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	1	1	1	1	1	1	1	1																					
개정(안)	1	1	1	1	1	남녀 각 1	1	1																					
<p>○ 현재 노인복지관은 이용노인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은 초기이용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성별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용자 통계 정보를 제공할 때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 일부 노인복지관에서는 이용노인의 등록 및 프로그램 이용현황 관리과정 등에서 성별 구분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되는 노인복지관 평가에서, 성별분리통계 생산에 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음(P. 59) <p>○ 노인복지관 이용에 대한 성별 수혜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p>	<p>2. 노인복지사업 수혜자 성별통계생산 및 관리</p> <p>① 노인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성별 수혜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별 구분통계를 생산 및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에 성별로 분리하여 이용자 정보를 파악 및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P.59) <p>※ 2015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p> <table border="1" data-bbox="656 1285 1188 1487"> <tbody> <tr> <td>평가지표 'D1-1.이용자 관리체계'에서 평가내용은 다음의 4개의 항목을 점검하며, 이 중 해당되는 항목 개수에 따라 1점씩 최소1점에서 최대 4점까지 점수를 배점하고 있음</td> </tr> <tr> <td>① 초기이용 상담을 통해 이용자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td> </tr> <tr> <td>② ~ ④</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p> <table border="1" data-bbox="656 1544 1188 1746"> <tbody> <tr> <td>평가지표 'D1-1.이용자 관리체계'에서 평가내용은 다음의 4개의 항목을 점검하며, 이 중 해당되는 항목 개수에 따라 1점씩 최소1점에서 최대 4점까지 점수를 배점하고 있음</td> </tr> <tr> <td>① 초기이용 상담을 통해 이용자정보를 성별로 분리하여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td> </tr> <tr> <td>② ~ ④</td> </tr> </tbody> </table>	평가지표 'D1-1.이용자 관리체계'에서 평가내용은 다음의 4개의 항목을 점검하며, 이 중 해당되는 항목 개수에 따라 1점씩 최소1점에서 최대 4점까지 점수를 배점하고 있음	① 초기이용 상담을 통해 이용자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② ~ ④	평가지표 'D1-1.이용자 관리체계'에서 평가내용은 다음의 4개의 항목을 점검하며, 이 중 해당되는 항목 개수에 따라 1점씩 최소1점에서 최대 4점까지 점수를 배점하고 있음	① 초기이용 상담을 통해 이용자정보를 성별로 분리하여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② ~ ④																						
평가지표 'D1-1.이용자 관리체계'에서 평가내용은 다음의 4개의 항목을 점검하며, 이 중 해당되는 항목 개수에 따라 1점씩 최소1점에서 최대 4점까지 점수를 배점하고 있음																													
① 초기이용 상담을 통해 이용자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② ~ ④																													
평가지표 'D1-1.이용자 관리체계'에서 평가내용은 다음의 4개의 항목을 점검하며, 이 중 해당되는 항목 개수에 따라 1점씩 최소1점에서 최대 4점까지 점수를 배점하고 있음																													
① 초기이용 상담을 통해 이용자정보를 성별로 분리하여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② ~ ④																													

분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p>성별구분 통계가 필요함</p> <p>○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중 ‘사업유형’ 예시에서 특정 성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확인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유형 중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016a, p.94)에 관해 설명하면서, “남자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을 예시로 제시 - 사업안내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독거노인 중 신체건강 지원 대상은 남자로 한정하도록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p>3. 노인복지사업 관련 정부자료의 양성평등 검토 (P.153~15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서 노인복지관 사업유형 예시 사항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로 제시한 ‘남자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에서 ‘남자’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으로 수정 검토 - 또는 예시에 ‘여자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 추가 고려 								
<p>성인지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p>	<p>○ 노인복지관 운영의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관조사에서 기관종사자의 양성평등 혹은 성인지, 성별 특성을 인식하는데 큰 차이가 있었음 - 성별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에서 ‘바둑장기’와 같은 프로그램은 남자노인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이를 두고 남자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음 - 무엇이 양성평등인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종사자가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함 <p>○ 노인복지관 운영 및 이용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원활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대상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노인복지관 운영 및 이용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음 - 노인복지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이 필요 	<p>4. 노인복지관 관련자 성인지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인복지관 종사자 대상 성인지적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의 대표와 직원의 성인지적 관점 정립을 위한 교육 실시 ②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대상 성인지적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노인인권교육내용 중에 양성평등교육 포함 ③ 전국 노인복지관에 성인지적 교육 교재 개발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적 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배포 <p>※ 성인지적 교육 교재 포함내용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677 1313 1230 1695"> <thead> <tr> <th data-bbox="677 1313 778 1342">구분</th> <th data-bbox="778 1313 1230 1342">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77 1342 778 1401">기본내용</td> <td data-bbox="778 1342 1230 14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및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 · 운영과정에서 양성평등사항 점검의 필요성 </td> </tr> <tr> <td data-bbox="677 1401 778 1519">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별 요구도</td> <td data-bbox="778 1401 1230 1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등으로 인해 성별로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td> </tr> <tr> <td data-bbox="677 1519 778 1695">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별 형평성</td> <td data-bbox="778 1519 1230 16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와 이용자의 성비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이용자의 비율이 동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예산배분에서 성별 특성 반영여부 점검 (이용자의 성비를 고려하여 예산배분, 성별 특화된 요구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등)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기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및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 · 운영과정에서 양성평등사항 점검의 필요성 	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별 요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등으로 인해 성별로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별 형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와 이용자의 성비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이용자의 비율이 동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예산배분에서 성별 특성 반영여부 점검 (이용자의 성비를 고려하여 예산배분, 성별 특화된 요구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등)
구분	내용									
기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및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 · 운영과정에서 양성평등사항 점검의 필요성 									
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별 요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등으로 인해 성별로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별 형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와 이용자의 성비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이용자의 비율이 동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예산배분에서 성별 특성 반영여부 점검 (이용자의 성비를 고려하여 예산배분, 성별 특화된 요구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등) 									

14 노인복지사업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p>하다고 확인됨(93.1%)</p> <p>○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양성평등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성인지적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고정역할을 강조하는 '시니어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성별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확인됨 - 본 연구의 기관방문 사례조사 결과,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상당수는 성인지적 관점, 양성평등 등의 개념이 생소하다고 언급함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p>○ 신노인의 특성 변화 뿐 아니라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노인복지관의 운영방안과 프로그램 등에도 변화가 요구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붐세대의 조기은퇴로 노인복지관에서 장년층에 대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노인 뿐 아니라 장년층의 고용지원에 대한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p>○ 성별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 여자노인의 경우 남자노인에 비해 정신건강에 취약하고, 남자노인은 여자노인에 비해 배우자 사별 후 일상생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함 - 따라서 일부 노인복지관에서는 여자노인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행, 황혼육아, 원예 등의 특화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음 - 또한 남자노인을 대상으로는 과거 밀반찬 배달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에서 직접 요리 	<p>5. 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다변화</p> <p>① 장년층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이용자인 장년층 대상 일·여가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베이비붐세대 대상 취·창업 및 인생설계 지원 등 야간교육, 자조모임 및 봉사단 조직 등(p.116) <p>② 고령화사회, 황혼돌봄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성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노인의 황혼육아부담 해소와 정신건강 프로그램, 남자노인의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요리 강좌 등 <p>※ 시대변화에 따른 성별 특화 프로그램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647 1289 1201 1756"> <thead> <tr> <th data-bbox="647 1289 706 1328">구분</th> <th data-bbox="706 1289 953 1328">남자</th> <th data-bbox="953 1289 1201 1328">여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47 1407 706 1446">특성</td> <td data-bbox="706 1407 953 15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배우자 사별 후 일상생활 자립 어려움 - 상대적으로 가족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td> <td data-bbox="953 1407 1201 15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정신건강 취약 - 자녀의 가사활동 지원, 손자녀 돌봄 등의 역할 요구 </td> </tr> <tr> <td data-bbox="647 1573 706 1711">예시 프로그램 (기대 효과)</td> <td data-bbox="706 1573 953 17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노인 요리 프로그램 · 사별 노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지원 · 요리반 친구를 통한 독거 노인 사회적 고립 예방 · 가족관계 개선 지원 </td> <td data-bbox="953 1573 1201 17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스스로 기획하는 여행 프로그램, 자녀와 함께하는 원예 프로그램 ·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 확인 및 우울감 해소 · 사회접촉 기회를 통 </td> </tr> </tbody> </table>	구분	남자	여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배우자 사별 후 일상생활 자립 어려움 - 상대적으로 가족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정신건강 취약 - 자녀의 가사활동 지원, 손자녀 돌봄 등의 역할 요구 	예시 프로그램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노인 요리 프로그램 · 사별 노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지원 · 요리반 친구를 통한 독거 노인 사회적 고립 예방 · 가족관계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스스로 기획하는 여행 프로그램, 자녀와 함께하는 원예 프로그램 ·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 확인 및 우울감 해소 · 사회접촉 기회를 통
구분	남자	여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배우자 사별 후 일상생활 자립 어려움 - 상대적으로 가족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정신건강 취약 - 자녀의 가사활동 지원, 손자녀 돌봄 등의 역할 요구 									
예시 프로그램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노인 요리 프로그램 · 사별 노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지원 · 요리반 친구를 통한 독거 노인 사회적 고립 예방 · 가족관계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스스로 기획하는 여행 프로그램, 자녀와 함께하는 원예 프로그램 ·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 확인 및 우울감 해소 · 사회접촉 기회를 통 									

분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p>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특화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음</p> <p>○ 지역별로 산업환경과 노인욕구 등이 다양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노인복지관 중점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주요 이유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음 - 도시지역은 향후 노인복지관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비노인을 포함한 보다 고급화된 내용에 대한 서비스욕구가 확인됨 - 본 연구결과, 도시지역은 프로그램 다변화에 대한 욕구, 농어촌지역은 노인복지관 접근성 향상에 대한 욕구가 확인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5%;">남자</th> <th style="width: 45%;">여자</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부부 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 정신건강 향상</td> </tr>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층 노후준비 프로그램 · 은퇴 후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생활의 균형감을 유지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준비 · 가족관계 개선 지원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혼육아 지원 프로그램 · 손자녀돌봄을 위한 현대적 육아법 습득 · 육아 스트레스 관리 지원 - 스마트폰(SNS)을 이용한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독거노인의 친구만들기(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td> </tr> </tbody> </table> <p>③ 지역유형(도시지역, 농어촌)별 탄력적인 노인복지관 운영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유형별 노인복지관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구분	남자	여자		(부부 포함)	한 정신건강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층 노후준비 프로그램 · 은퇴 후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생활의 균형감을 유지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준비 · 가족관계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혼육아 지원 프로그램 · 손자녀돌봄을 위한 현대적 육아법 습득 · 육아 스트레스 관리 지원 - 스마트폰(SNS)을 이용한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독거노인의 친구만들기(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구분	남자	여자								
		(부부 포함)	한 정신건강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층 노후준비 프로그램 · 은퇴 후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생활의 균형감을 유지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준비 · 가족관계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혼육아 지원 프로그램 · 손자녀돌봄을 위한 현대적 육아법 습득 · 육아 스트레스 관리 지원 - 스마트폰(SNS)을 이용한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독거노인의 친구만들기(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p>6. 성별 특화 프로그램 보급 활성화</p>	<p>① 성별 특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시상 및 자료집 제작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로 선정된 성별 특화 프로그램이 전국 노인복지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p>○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중복과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결과, 노인복지관의 경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보다는 상담과 사례관리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p>7. 노인복지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p> <p>① 노인복지관 상담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의 다른 복지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노인의 상담기능 강화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통계청의 2015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로 10년 전인 2005년 9.1%에 비해 4.0%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2060년 4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2015년 남자는 2,767천명(41.8%)으로 여자 3,857천명(58.2%)에 비해 1,090천명(16.4% 포인트)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노인의 성별 인구격차는 점차 줄어들어, 전체 노인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60년 46.5%(여자 53.5%로 7% 포인트)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양적규모를 확대시켜 노인복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과거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수준의 향상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노인집단 내에서도 지역별 및 성별, 연령별로 노인복지의 수요는 다양화, 양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소득보장과 건강보장, 사회참여(일자리, 여가 문화)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그동안 정책적 관심은 소득보장(기초연금제도)과 건강보장(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영역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노인인구의 교육 수준과 경제수준의 향상 등 질적인 변화와 함께 은퇴 후 사회참여에 대한 서비스 욕구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는 일정 수준 구축된 상황이므로, 노인의 여가활동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노인집단 내의 노인여가복지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자노인이 노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상대적으로 남자노인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제한요인이 있는 것인지 또는 노인인구에서 여자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아서 나타나는 착시현상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복지사업 중 노인의 대표적인 여가복지시설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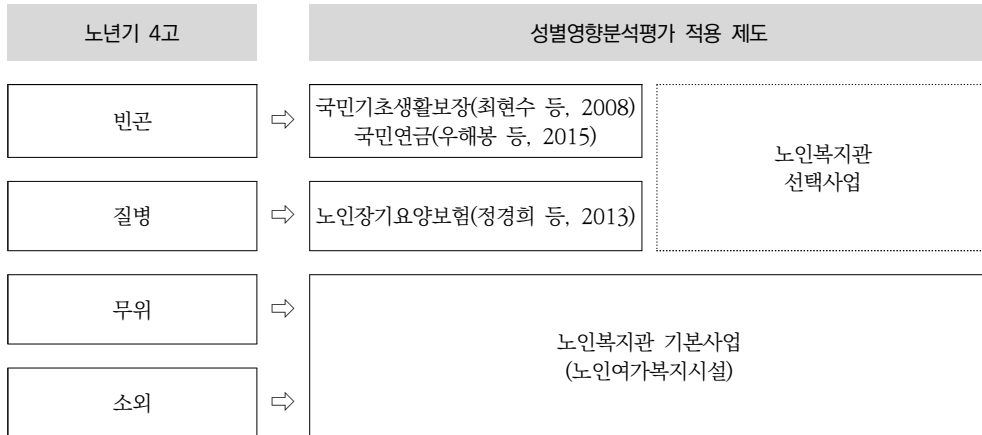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관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시설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종합복지관 등으로 달리 부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명칭 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 정책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성평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정경희 등, 2013). 또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는 아니지만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현수 등, 2008)와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우해봉 등, 2015)를 분석한 바 있다. 즉 노년기에 경험하는 네 가지 고통(빈곤, 질병, 무위, 소외) 중 빈곤 및 질병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을 둔 것이다.

본 연구가 초점을 두는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여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무위 및 소외의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볼 수 있다. 즉 위계적 욕구론에 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충족을 넘어서 상위욕구인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에 대한 관심 표명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가능해 진다. 한편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 시설인 노인복지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연의 기능인 기본사업 외에도 고용지원이나 소득지원 등의 선택사업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복지관의 기본사업은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이며, 선택사업은 기본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지역 또는 노인복지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추진 가능한 사업이다(노인복지법, 법률 제13646호). 따라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노년기 욕구별 노인복지제도 현황



이하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이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에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운영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노인복지관 서비스 제공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의 핵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질문은 ‘노인의 성별이 노인복지관 이용에 따른 차이를 낳는가’이다. 노인의 성별로 선호하는 여가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여가활동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등을 노인복지관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밝혀보고,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은 ‘노인의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가 노인복지관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특정 성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인의 성별 차이를 반영한 운영 현황과 성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노인의 여가활동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존문헌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여가활동과 노인의 삶의 질, 노인의 여가활동에 있어서의 노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등이 이루어졌다.

둘째,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노인실태조사를 분석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및 지역별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특성, 노인복지관 이용실태를 살펴보았다.

셋째, 노인복지사업의 법제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노인복지사업 관련 법체계에 대해 점검해 보고, 노인복지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사업안내, 노인복지관 운영 및 평가(평가지표 분석) 등에서 노인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규정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넷째, 성인지적 관점에서 노인복지관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실태조사 등 기존 이차자료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성별 특화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현황과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30개소의 관리자 30명(30개소×1명)과 이용자 300명(30개소×10명)의 설문을 완료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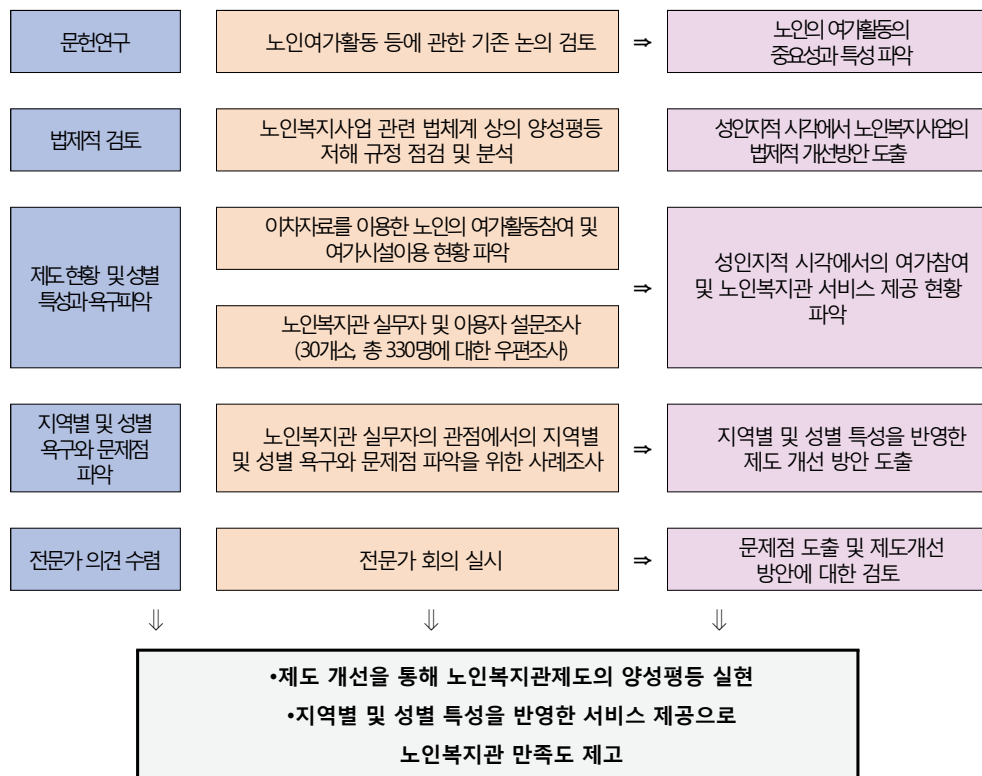
다섯째,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접근에서 포착하기 힘든 부분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역유형별로 노인복지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지역을 선정기준으로 한 것은 지역별로 노인의 여가활동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선행연구와 설문조사 분석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우편 설문조사에 참여한 30개소 중 지역유형을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각각 2개소씩, 총 6개소의 노인복지관 실무자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노인복지관 현장실무자, 관

계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방향 설정과 문제점 도출, 해결방안 모색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상 본 연구의 주요내용과 연구방법을 포함한 연구체계도는 [그림 1-2]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1-2] 연구체계도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제도의 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지역별 및 성별 특성을 반영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여가활동과 노인의 삶의 질

제2절 노인의 여가활동과 노인복지관

제3절 성별 및 지역별 여가활동 특성과 노인복지관 이용현황

제4절 소결

제1절 여가활동과 노인의 삶의 질

1. 이론적 검토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노년기에는 경제활동 중심의 생활을 하던 청·장년기를 지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할과 생활시간의 배분에서 벗어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가활동은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 상실과 증가된 시간으로 인하여 발생한 무료함의 문제를 해소시켜주며,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외에도 노인의 여가활동은 주관적인 생활만족도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jungquist and Sundstrom, 1996; Lennartsson and Silverstein, 2001; Jenkins et al., 2001; 허준수, 2002에서 재인용). 정옥분(2004)은 여가활동을 할 시간이 많은 '여가투성이'의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고독, 허탈감,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며 문화적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결국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더 높은 생활만족도로 이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 노인의 적극적인 여가활동 참여는 활발하지 않다. 노인의 약 2/3는 다양한 사회참여활동(평생교육, 각종 단체활동, 자원봉사, 경로당, 노인복지관의 이용 및 참여)에 주 1회 이하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경희, 2015).¹⁾ 따라서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생애주기를 4단계로 구분한 Sadler에 의하면 노년기는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제3연령기와 제4연령기로 구분된다. 제3연령기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1) 각 사회참여활동(평생교육, 각종 단체활동, 자원봉사,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용)에 참여하는 총참여일수의 평균은 월 7.6일이며, 참여빈도가 7일 이하인 노인은 사회참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단계로 청년 시절 이루어지는 제1연령기, 일과 가정을 이루는데 초점이 두어진 제2연령기와는 달리 새로운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특징이 있다. 즉 결혼과 출산, 취업이라는 과업을 완성 한 후에 상실과 허무감이라는 중년의 위기와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전성기가 인생 후반기에 오게 되는데 이 시기가 제3연령기이다. 대체적으로 40대에서 70대 중후반기의 시기이다. 또한 제4연령기는 노쇠의 징후가 늘기 시작하는 시기로 성공적인 노화를 지향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처럼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층은 Sadler의 제3연령기와 제4연령기를 포괄하게 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영국의 사회철학자 라스렛(Laslett)은 퇴직 후 건강하게 지내는 60~65세에서 75~80세까지를 ‘제3기 인생’이라고 명명하면서, 특히 이 시기의 발달과업은 자기가 계획하고 원하는 자신의 삶을 살고 그 삶에 만족을 느끼는 ‘자기성취’임을 강조하였다(최성재, 2009).

이러한 생애주기를 여가활동에 적용한 여가활동 시기분류에 따르면,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전반적으로 그 이전 시기에 비하여 참여가 감소한다. 또한 새로운 여가활동을 추구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험과 활동 패턴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다른 생애기보다도 더 높은 생활만족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여가활동을 통해 노년기에 경험하는 고독, 허탈감, 소외감을 극복하고 나아가 자신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년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인 자아통합의 경우 노인이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면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이 의미있고 만족스러웠는지 인식하는 과정을 수반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가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노년기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나타난다(윤소영 등, 2009).

<표 2-1> 노년기의 발달과업

학자	발달과업
Erikson(1963)	- 자아통합
	-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한계에 적응
	- 변화된 직업역할에 적응
	- 정체감과 사회적 지위 유지
Havighurst(1972)	- 동지애와 우정 발견
	-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의 학습
	- 가족 내에서 새로운 역할 확립
	- 자신의 삶을 수용함으로써 자아통합 성취

학자	발달과업
김중서 등(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차이와 사회적 변화 이해 - 은퇴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학습 - 적극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려는 태도 유지 - 취미를 계속 살리고 여가를 즐겁게 보냄 - 소외감, 허무감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 찾기 - 배우자 사망 후의 생활에 적응하고 동료 또는 자신의 죽음에 심리적으로 준비 - 동년배 노인들과의 친교 유지 -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른 역할 - 노년기에 알맞은 간단한 운동의 규칙적인 실행

자료: 윤소영 등(2009)의 <표2-11>, p.39에서 재인용

노년기의 여가활동에는 지속과 변화라는 두가지 패턴이 함께 나타난다. 전 생애동안 지속되어온 익숙하고 친숙한 여가활동은 노년기에 지속되는 한편, 이전 생애단계의 여가활동 중 노년기에 그만두게 되거나 새로운 여가활동으로 대체되는 등의 변화도 발생한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습관이나 선호 등에서 계속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애 초기 및 중년기에 활동적이었던 사람은 노년기에서도 활동적이기 쉽다. 이는 곧, 생애 초기 및 중년기에 한정된 여가활동을 해왔던 사람은 노년기에 여가활동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김태주, 2002). 반면 생애단계에 걸쳐 여가활동의 패턴을 변화시킨다고 보는 Iso-Ahola(1980)은 새로운 형태의 활동 뿐만 아니라 친숙한 활동 내에서도 패턴의 변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정서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여가활동의 변화가 발생하지만, 생애 초기 및 중년기부터 습득해온 패턴이 유지되면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2. 경험적 검토

노년기의 삶의 질을 살펴본 정경희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사회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참여 중 사회참여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기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영역의 삶의 질 점수가 낮다는 특징도 있다. 무위 문제를 가진 노인 중 무위 문제만 갖고 있는 노인 보다는 빈곤이나 질병등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활동을 통하여 노년기의 무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영역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율을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면, 60세 이상의 참여율은 8.3%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 60세 이상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율은 전체 인구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60대 이상의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은 독일,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스웨덴의 경우 60대가 50대에 비하여 높다는 점에서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활동적인 노화(active aging)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은 더욱 더 그러하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및 인적 인프라, 콘텐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2-2〉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¹⁾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²⁾
전체 인구	15.0	23.2	19.2	30.9	30.9	24.0
20세 미만	31.8	43.4	30.6	50.0	36.4	41.2
20~29세	16.1	24.7	20.8	39.5	31.5	28.1
30~39세	17.0	24.4	17.7	35.8	30.8	23.2
40~49세	15.4	24.0	15.7	31.8	36.9	23.8
50~59세	16.6	21.2	17.5	27.7	24.6	21.7
60세 이상	8.3	20.1	21.5	24.4	29.8	21.1

주: 1)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스포츠 및 레저, 문화예술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

2) WVS 당해연도 조사에 참여한 52개국 중, OECD 회원국(14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일본, 칠레, 터키, 폴란드, 한국, 호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World Value Survey (2010~2012). World Value Survey Wave 6.

또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여가활동 실태를 파악한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의하면, 노년층의 여가활동은 TV시청이 가장 높아 70%를 넘고 있다. 두 번째로 활발한 활동은 산책으로 8%대이다. 다른 활동은 참가율 자체가 매우 낮다. 즉 노인의 여가활동 자체가 매우 한정적인 것이며, 이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이다. 여가활동 외에도 평생교육참여율이나 자원봉사참여율도 각각 13.7%와 4.5%로 낮다(정경희 등, 2014). 즉, 한국에서의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매우 소극적인 실정이다.

한편 노인의 특성별로 노년기의 여가활동 행태 또한 다양하다는 점도 정책적 대응에 있어 고려해야 한다. 정경희 등(2014)에 의하면 여행경험률, 평생교육참여율 및 자원봉사참가율에 있어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65~69세의 여행경

험률과 평생교육참여율은 85세 이상 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노인복지관의 경우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하는 특징인데, 향후 새로운 노인복지관 이용자로 편입될 현재의 50대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더 두드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표 2-3〉 연령군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단위: %)

구분	TV 시청	인터넷 검색/채팅/UCC 제작/SNS	산책	게임	음악 감상	헬스	잡담/통 화/문자 보내기	낮잠	등산	스포츠 간접 관람
전체	51.4	11.5	4.5	4.0	2.5	2.4	2.4	1.3	1.0	1.0
15-19세	16.7	28.4	0.1	17.1	9.8	1.0	6.3	1.8	0.5	0.4
20대	22.3	30.5	1.7	9.2	4.7	3.6	4.9	1.3	0.1	0.8
30대	51.4	11.6	3.4	3.5	2.0	3.2	2.0	1.1	0.8	1.6
40대	59.3	6.2	4.4	0.9	1.5	2.8	1.2	1.2	1.5	1.4
50대	64.1	2.8	5.9	1.0	0.8	2.3	1.2	0.9	1.8	1.5
60대	72.3	0.4	8.8	0.1	0.3	1.5	1.2	0.9	1.4	0.3
70세 이상	73.3	0.2	8.6	-	0.2	0.5	1.3	2.3	0.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연구원(2014). 2014 국민여가활동 조사

〈표 2-4〉 제특성별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실태

(단위: %)

구분	여행 경험률	평생교육 참가율	자원봉사 참가율	만족률
전체	29.7	13.7	4.5	34.8
지역				
동부	28.6	14.4	4.7	35.1
읍면부	33.6	11.4	3.9	33.8
성				
남자	32.0	8.5	5.2	39.1
여자	28.1	17.3	4.0	31.8
연령				
65~69세	37.2	14.7	7.3	41.5
70~74세	31.7	14.5	4.7	34.9
75~79세	25.9	14.6	2.4	32.4
80~84세	21.2	12.0	2.6	30.5
85세 이상	15.0	6.3	0.5	19.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7.6	6.2	0.4	19.4
무학(글자해독)	22.7	11.8	1.8	23.4
초등학교	27.0	13.6	3.2	32.6
중학교	32.2	16.2	7.8	41.4
고등학교	39.2	15.3	7.6	45.9
전문대학 이상	49.7	19.9	9.6	57.5

자료: 정경희 등(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절 노인의 여가활동과 노인복지관

1. 노인의 여가활동에 있어서의 노인복지관의 역할

여가활동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여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 때문이다. 여가의 사전적인 정의는 노동이나 직무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되어 갖게 되는 자유시간(위키피디아 홈페이지)을 말한다. 또한 여가는 노동과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휴식이나 기분전환, 이완과 같은 소극적인 활동부터 노동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과 교양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여가의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여가활동을 분류하는 기준 또한 매우 다양한 상황이다.

여가활동을 분류하는 다양한 기존 연구 중 본 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는 노인복지관과 관련하여 관심있게 보아야 하는 것은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여가활동에 포함되는 관계의 종류일 것이다. 여가활동을 장소에 따라 구분하는 분류(박재간, 1997)에 의하면 집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과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은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 중 하나이다. 노인이 집 외부에서 하는 여가활동 장소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노인복지관이다.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인복지관, 국민체육센터, 문예회관 등과 같은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리조트, 낚시터 등과 같은 민간기관이 있다.

이 중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공공시설에 속하며 지역사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다. 또한 이용대상자가 60세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문예회관이나 사회복지관과는 그 특징을 달리한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 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은 또 다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은 법적인 분류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지만, 실제로 행하는 기능은 지역사회 기반의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5〉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이용대상(제36조, 시행규칙 제24조)

구분	주요내용	이용대상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0세 이상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5세 이상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0세 이상

주: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이외에도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다. 2015년말 기준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은 347개소, 경로당 6만 4,568개소, 노인교실 1,37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권중돈 등(2010)은 노인복지관은 다른 여가복지시설에 비해 그 수는 적지만 명실 공히 최고이자 최선의 노인여가시설로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로당은 노인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표 2-6〉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노인복지관	237	259	281	300	319	344	347
경로당	59,543	60,737	61,537	62,442	63,251	63,960	64,568
노인교실	1,280	1,464	1,557	1,335	1,413	1,361	1,377

주: 1) 노인전문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휴양소(노인여가복지시설) 삭제(2011.12.8)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재가노인복지시설) 신설(2010.2.24)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각년도

〈표 2-7〉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서비스

대상	사업	세부 프로그램	
노인	1. 평생교육지원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정보화교육, 인문학교육, 예비노인 은퇴준비 프로그램 등	
	2. 취미여가지원	예능활동(음악, 미술, 생활도예, 서예, 댄스), 문화활동(연극, 사진, 영화, 바둑, 장기, 레크리에이션), 취미활동(종이 접기, 손뜨개질, 민속 놀이), 체육활동(탁구, 당구, 게이트볼), 동아리활동 등	
	3. 건강생활지원	기능회복지원	물리치료, 양·한방진료, 작업치료, 운동재활, ADL훈련 등
		건강증진지원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노인 지원사업(기존 재가사업), 이·미용, 노인건강운동 등
		급식지원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밀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요양서비스	치매·뇌졸중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4. 상담사업	노인의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전문상담(경제, 법률, 주택상담, 연금상담, 건강상담, 세무상담), 심리상담, 치매상담, 노인학대 상담 등	
	5. 정서생활지원	우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6. 사회참여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역봉사활동, 교통안전봉사, 동아리·클럽 활동 지원, 교통편의서비스 등	
	7. 주거지원	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등) 등	
8. 고용 및 소득지원	노인일자리사업(또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고령자취업지원사업, 경제교육, 취업교육 등		
9.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취약노인의 신체·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주민센터, 유관기관 등과 연계(취약노인연계망구축사업), 사례관리사업 진행		
가족	10. 가족기능지원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11. 가족통합지원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통합프로그램 등	
지역 사회	12. 지역자원개발	자원봉사자 발굴·관리, 후원자 개발, 외부 재정지원기관 사업 수탁 등	
	13. 지역복지연계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등의 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경로행사, 나들이 등) 등	
	14. 노인권익증진사업	정책건의, 노인인권 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노인소 비자피해 예방교육 등	
노인 복지관 조직	15. 운영관리	인사관리, 재정관리, 시설관리 등	
	16. 사업관리	프로그램개발, 실행, 점검, 평가, 보완 등	
	17. 연구개발	사업기획, 조사연구, 실습지도, 출판, 홍보, 자문(운영)위원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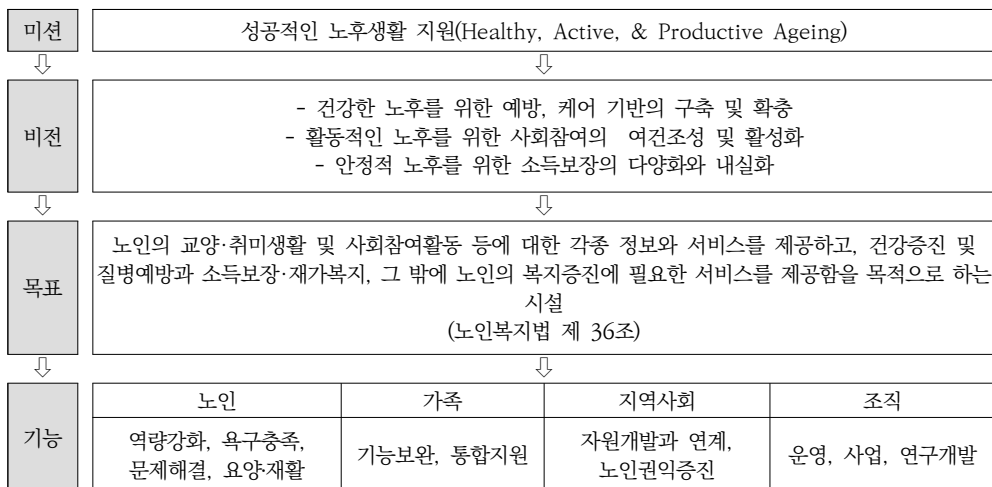
주: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업은 자체 수행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16a),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II, p.96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 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또

한 노인복지관은 또 다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은 법적인 분류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지만, 실제로 행하는 기능은 지역사회 기반의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기능을 공고하게 하고 노인의 특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성결대학교(2007)에서는 노인복지관이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Healthy, Active, & Productive Ageing)이라는 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대상 역량 강화, 욕구충족, 문제해결, 요양·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기능 보완, 통합지원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자원개발과 연계, 노인권익증진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림 2-1] 노인복지관의 미션-비전-목표-기능의 관계



자료: 보건복지부, 성결대학교(2007).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 p.92에서 수정 인용

또한 박영란 등(2012)은 노인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제로 100세 시대 활동적 노후생활 거점 기관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예방기능강화(수요자 맞춤형 노후설계·여가 서비스 제공), 보호기능강화(지역밀착형 노인 권익증진 서비스 제공), 통합기능확대(지역·세대통합 복지 거점 기능 수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공급자 중심

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규모 시설중심에서 소규모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 도입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오영희 등, 2002; 임병우 등, 2007; 권중돈 등, 2010).

〈표 2-8〉 노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관 서비스의 예방 관점 정립 2. 수요자 중심 통합적 여가서비스모델 개발 3. 노인복지관의 노후설계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 확대 4. 수요자 중심 노후생활설계서비스 개발 5. 노인복지관 특성화 서비스 확대 6. 노인보호 특성화 서비스 확대 7. 지역밀착형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거점 역할 수행 8. 노인복지관 역할 기능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9. 노인복지관 운영 혁신을 위한 재원 확충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10. 노인복지관 연구개발 기능 강화
--

자료: 박영란 등(2012), 100세 시대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기능의 역할 재정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 노인복지관의 지역별 차이

노인복지관은 1989년에 처음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여 2015년말 기준으로 34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종사자수는 5,894명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노인복지관 1개 기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1개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노인인구의 규모는 지역별 차이가 커서 울산은 9,382명 중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제주의 경우는 8만 5,893명당 1개소에 달하고 있다. 세종의 경우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노인복지관 1개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경북의 경우는 평균 9명이 근무하는 반면 대전은 33명이 근무하고 있어 인력 확보에 있어서도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성결대학교(2007) 및 박영란 등(2012)를 통하여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득, 고용, 건강, 평생교육, 여가, 사회참여, 정서지원, 가족지원 및 통합, 노인 권익증진 등으로 그 영역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지역과 개별 노인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 질적 수준에 편차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 및 인적 인프라의 차이, 서비스 내용의 차이가 실제 노인의 여가활동, 더 나아가 노인의 삶

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표 2-9〉 시도별 노인복지관 시설수 및 종사자수

(단위: 명, 개소)

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주민등록 인구기준)	시설		종사자	
		시설수	시설당 노인인구수	종사자수	노인복지관당 종사자수
합계	6,775,101	347	19,525	5,894	17
서울	1,262,436	74	17,060	1,284	17
부산	514,630	24	21,443	288	12
대구	316,122	14	22,580	149	11
인천	312,905	18	17,384	263	15
광주	166,389	11	15,126	197	18
대전	165,528	7	23,647	231	33
울산	103,205	11	9,382	132	12
세종	22,399	0	-	0	-
경기	1,318,882	54	24,424	1,540	29
강원	261,671	13	20,129	211	16
충북	234,813	16	14,676	311	19
충남	341,214	15	22,748	248	17
전북	333,524	22	15,160	384	17
전남	391,837	31	12,640	310	10
경북	479,634	17	28,214	147	9
경남	464,019	19	24,422	188	10
제주	85,893	1	85,893	11	11

주: 2015년 12월 31일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2016b). 2016 노인복지시설 현황

한편 노인복지관 사업은 2006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그 사업의 중심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노인복지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운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실제 노인의 약 9%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용률은 지역별 차이가 큰데 이는 노인복지관의 설치가 도시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동부지역 거주 노인의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9.3%로 읍면부지역 거주 노인의 7.6%에 비해 1.7% 포인트 높다. 노인복지관 이용희망률 또한 지역 간의 차이가 있으며, 동부지역이 21.7%로 읍면부지역의 12.3% 보다 9.4% 포인트 높다. 이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절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 분석에서 살펴보겠다.

〈표 2-10〉 제특성별 노인복지관 이용 실태 및 이용 욕구

특성	현재 이용률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전체	8.9	19.5
지역		
동부	9.3	21.7
읍면부	7.6	12.3
성		
남자	8.4	19.3
여자	9.3	19.6
연령		
65~69세	6.2	22.8
70~74세	10.3	21.9
75~79세	11.3	18.0
80~84세	10.6	13.9
85세 이상	6.3	9.7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제3절 성별 및 지역별 여가활동 특성과 노인복지관 이용현황

본 절에서는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노인의 여가활동 및 노인복지관 이용에 관한 성별 및 지역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의하여 생산되는 국가승인통계이며,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²⁾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였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 10,45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이용현황 등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자료이다.

1. 성별 및 지역별 노인의 여가활동 및 향후 희망활동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여가활동은 크게 여가문화활동, 친목단체, 여행경험률,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가문화활동은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

2) 노인실태조사 실시의 법제화 이전에도 1994년과 1998년,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이루어짐.

스포츠 관람과 참여, 관광, 취미오락, 휴식(TV시청, 산책 등), 사회 및 기타활동 등이 포함된다.

지난 1년간 여가활동에 참여하였는지와 그 주된 활동은 무엇인지 1~3순위까지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성별 및 지역별로 상관없이 여가문화활동이 99%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친목단체참여율과 여행경험률이 높는데, 성별 및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친목단체참여율은 남자노인이 51.7%로 여자노인 37.2%에 비해 높고 (14.5% 포인트), 동부지역 노인이 45.6%로 읍면부지역 노인 35.8%에 비해 높다 (9.8% 포인트). 여행경험률은 남자노인(32.0%)이 여자노인(28.1%)에 비해 높지만, 동부지역 노인(28.6%)이 읍면부지역 노인(33.6%)에 비해 낮다. 평생교육참여율은 여자노인이 17.3%로 남자노인 8.5%에 비해 높고, 동부지역 노인이 14.4%로 읍면부지역 노인 11.4%에 비해 높다.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성별 및 지역별로 상관없이 10% 미만으로 낮은 수치이며, 남자노인(5.2%)이 여자노인(4.0%)에 비해, 동부지역 노인 (4.7%)이 읍면부지역 노인(3.9%)에 비해 참여수준이 높다.

〈표 2-11〉 성별·지역별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율 및 노후(여생)의 참여희망율

(단위: %, % 포인트)

구분	성			지역		
	남자 (A)	여자 (B)	차이 (A-B)	동부 (A)	읍면부 (B)	차이 (A-B)
참여율						
여가문화활동	99.1	98.8	0.3	99.0	98.7	0.3
친목단체	51.7	37.2	14.5	45.6	35.8	9.8
여행(경험률)	32.0	28.1	3.9	28.6	33.6	-5.0
평생교육	8.5	17.3	-8.8	14.4	11.4	3.0
자원봉사활동	5.2	4.0	1.2	4.7	3.9	0.8
노후(여생)의 참여희망율						
취미여가활동	65.1	59.1	6.0	62.6	59.1	3.5
종교활동	36.4	52.3	-15.9	47.2	40.5	6.7
친목단체활동	47.8	34.7	13.1	42.3	33.0	9.3
학습활동	10.6	14.8	-4.2	13.7	10.9	2.8
소득활동	39.2	21.9	17.3	26.8	36.7	-9.9

주: 1) 여가문화활동은 지난 1년간 참여한 주된 활동 1~3순위 중복에 대한 응답률

2) 노후(여생)의 참여희망율은 '반드시 하고 싶음'과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에 대한 응답률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성별 및 지역별 차이에 보다 초점을 두고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 동부지역 노인이 읍면부 지역 노인에 비해 여가활동 참여율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다섯 가지의 여가활동 중 한 가지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그리고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에 비해 참여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성별로는 여자노인의 평생교육참여율이 남자노인에 비해 8.8% 포인트 높고,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노인의 여행경험률이 동부지역 노인에 비해 5% 포인트 높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성별 및 지역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심층 분석을 필요로 한다.

노인은 여생에서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지 살펴보았다. 참여대상 활동은 소득활동과 학습활동, 취미·여가활동, 종교활동, 친목단체활동이다.³⁾ 희망정도는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의 5점척도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반드시 하고 싶음'과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으로 응답한 경우 앞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에 가장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은 성별 및 지역별로 상관없이 취미·여가활동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남자노인의 취미·여가활동 희망률이 65.1%로 여자노인 59.1%에 비해, 동부지역 노인이 62.6%로 읍면부 지역 노인 59.1%에 비해 희망 정도가 높다. 지역별 노후 희망활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읍면부지역 노인이 동부지역 노인에 비해 각 활동에 대한 희망참여율이 낮은 편이지만, 소득활동에 대해서는 동부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다. 읍면부지역 노인의 소득활동 참여희망율은 36.7%로 동부지역 노인의 26.8%에 비해 9.9% 포인트 더 높다. 즉 읍면부지역 노인은 지역산업의 특성상(농업), 동부지역 노인에 비해 보다 늦은 나이까지 소득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읍면부지역 노인과 비교하여, 동부지역 노인은 여가활동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성별과 관련 특성으로는 여자노인의 종교활동과 학습활동 참여희망율이 남자노인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여자노인의 종교활동 참여희망율이 52.3%로 남자노인 36.4%에 비해 15.9% 포인트 높고, 여자노인의 학습활동 참여희망율이 14.8%로 남자노인 10.6% 보다 4.2% 포인트 높다.

한편 성별 및 지역별로 주로 하고 있는 여가활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

3) 참고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정치사회단체활동에 대한 노후 희망정도를 조사하였지만, 참여희망율이 각각 8%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힘.

다. 주된 여가활동으로 가장 응답이 높은 여가의 종류는 휴식활동(90.2%), 취미오락활동(42.5%), 사회 및 기타활동(40.1%) 순이다. 이러한 특성은 성별 및 지역별로 관계없이 나타나는 특성이다. 노년층은 다양한 휴식활동 중에서도 TV 시청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표 2-12〉 노인의 성별지역별 지난 1년간 주된 여가 활동(1~3순위 중복 응답)

(단위: %, % 포인트)

구분	전체	성			지역		
		남자 (A)	여자 (B)	차이 (A-B)	동부 (A)	읍면부 (B)	차이 (A-B)
취미오락활동	42.5	45.7	40.2	5.5	43.0	40.8	2.2
화투고스톱 등	9.3	6.0	11.7	-5.7	7.3	15.8	-8.5
등산	5.7	10.6	2.1	8.5	6.3	3.4	2.9
화초텃밭가꾸기	10.1	7.3	12.1	-4.8	10.6	8.3	2.3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11.3	10.5	11.9	-1.4	13.0	5.9	7.1
낚시	1.0	2.2	0.1	2.1	1.0	0.9	0.1
바둑장가웃놀이 등	4.8	9.0	1.7	7.3	4.3	6.2	-1.9
휴식활동	90.2	89.2	91.0	-1.8	89.6	92.4	-2.8
TV시청	82.4	79.5	84.5	-5.0	80.7	88.0	-7.3
산책	17.8	20.1	16.2	3.9	20.0	10.7	9.3
음악감상	4.5	3.8	5.1	-1.3	5.1	2.5	2.6
사회 및 기타활동	40.1	33.1	45.0	-11.9	38.1	46.3	-8.2
종교활동	8.3	4.7	11.0	-6.3	9.1	5.8	3.3
그 외 사회활동	31.8	27.1	35.1	-8.0	29.3	39.9	-10.6

주: 1)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10,172명을 대상으로 함.

2) 그 외 활동에는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동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이 포함됨.

3) 응답값에서 기타활동은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평생교육영역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예술문화 프로그램 참여율이 4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 36.0%, 어학 10.4%, 정보화 6.9%, 인문학 2.9% 순이다. 즉 노인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예술문화 영역과 건강관리 및 운동 영역이 주를 이룬다.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을 성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여자노인의 프로그램별 참여율이 높은 편인데 예술문화(44.1%), 건강관리/운동(38.4%), 어학(10.8%), 정보화(2.6%), 인문학(2.3%), 취업/직업(0.7%) 순으로 참여율이 더 높다. 반면 남자노인은 예술문화(34.3%), 건강관리/운동(29.2%), 정보화(19.1%), 어학(9.2%), 인문학(4.5%), 취업/직업(2.1%) 등의 순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

다. 따라서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해 예술문화와 건강관리/운동 영역의 프로그램에 대한 쏠림현상이 있고, 남자노인은 여자노인에 비해 정보화와 인문학 영역의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13> 노인의 성별지역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영역

(단위: %, % 포인트)

구분	전체	성			지역		
		남자 (A)	여자 (B)	차이 (A-B)	동부 (A)	읍·면부 (B)	차이 (A-B)
건강관리/운동	36.0	29.2	38.4	-9.2	34.4	42.6	-8.2
예술문화	41.5	34.3	44.1	-9.8	41.4	42.0	-0.6
어학	10.4	9.2	10.8	-1.6	10.9	8.3	2.6
인문학	2.9	4.5	2.3	2.2	2.9	3.0	-0.1
정보화	6.9	19.1	2.6	16.5	7.8	3.4	4.4
취업/직업	1.1	2.1	0.7	1.4	1.2	0.4	0.8
기타	1.2	1.6	1.1	0.5	1.4	0.3	1.1
전체	100.0	100.0	100.0	-	100.0	100.0	-

주: 1) 지난 1년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403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지역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차이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에 비해 참여율이 높다. 동부지역 노인은 예술문화(41.4%), 건강관리/운동(34.4%), 어학(10.9%), 정보화(7.8%), 인문학(2.9%) 등의 순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다. 반면 읍면부 지역 노인은 건강관리/운동(42.6%)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예술문화(42.0%), 어학(8.3%), 정보화(3.4%), 인문학(3.0%) 등의 순이다. 즉 동부지역 노인과 비교하여 읍면부 지역 노인은 건강관리/운동 프로그램 참여율이 예술문화 보다 0.6% 포인트 높아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순위가 다르다. 따라서 읍면부 지역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는 동부 지역과 다르며, 읍면부 지역은 동부 지역에 비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쏠림현상이 크다(건강관리/운동, 예술문화)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읍면부 지역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동부지역에 비해 단조롭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컴퓨터와 스마트 폰 등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기를 이용한 정보화능력은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노인의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 수준을 살펴보면, 전혀 사용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사용가능하나 원하

는 정보검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7.1%, 원하는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7%, 매우 능숙하게 사용한다 2.9% 순이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검색이 가능한 수준의 정보화능력을 갖춘 노인은 한 수준은 전체 노인의 9.9%에 불과하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17.4%, 여자노인의 4.6%가 정보화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다(컴퓨터·인터넷 매우 능숙하게 사용과 원하는 정보검색 가능한 경우). 이러한 성별 차이는 남자가 노년기 이전에 여자보다 활발한 사회생활을 수행하면서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지역별 정보화능력을 갖춘 노인의 비율은 동부 지역 11.4%, 읍면부 지역 5.3%이다. 즉 정보화능력 격차는 지역별(6.1% 포인트) 보다 성별(12.8% 포인트) 간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노인은 여자노인보다 4배, 동부 지역은 읍면부 지역보다 2배 이상 정보화능력을 갖춘 노인이 많다.

〈표 2-14〉 노인의 성별 및 지역별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 정도

(단위: %, % 포인트)

구분	전체	성			지역		
		남자 (A)	여자 (B)	차이 (A-B)	동부 (A)	읍면부 (B)	차이 (A-B)
매우 능숙하게 사용	2.9	5.3	1.2	4.1	3.4	1.3	2.1
사용 가능, 원하는 정보검색 가능	7.0	12.1	3.4	8.7	8.0	4.0	4.0
사용 가능, 원하는 정보검색 어려움	7.1	10.8	4.4	6.4	8.2	3.4	4.8
전혀 사용 불가능	83.0	71.8	91.0	-19.2	80.4	91.3	-10.9

주: 본인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이상의 2014년도 실태조사 통계자료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거주지역과 성별에 따라 노후 삶에서 여가의 역할이 다름을 보여준다. 여가활동 참여율 및 향후 참여욕구의 차이는 여가활동의 긍정적 효과가 이후 성별 간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허준수, 2002; 황남희, 2013; 통계청, 2015) 여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여가활동 및 사회단체 활동을 지역별로 검토한 결과 현재 참여행태와 향후 참여욕구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여가활동 참여욕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동부지역 노인의 참여비율이 읍면부 지역 노인보다 높는데 반해, 여행경험률은 읍면부 지역 노인의 비율이 동부 지역 노인보다 높았다. 이와 같이 읍면부 노인의 여행경험률이 높

은 이유는 농촌사회의 여가문화로 지역사회 노인들과의 단체여행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향후 여가활동 및 사회단체 활동 참여욕구의 경우, 종교활동과 친목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는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높았지만, 소득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는 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에 비해 높았다. 이와 같이 읍면부 지역 노인의 소득활동에 대한 참여욕구가 높은 이유는, 읍면부 지역의 일자리 특성 상(농업) 은퇴개념 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성별 및 지역별 노인복지관 이용현황

2014년 노인실태조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의 이용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므로, 성별 및 지역별 노인복지관 이용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표 2-15).

전체 노인의 8.9%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여자 노인의 이용률이 9.3%로 남자 노인의 이용률 8.4% 보다 높다. 향후 노인복지관 이용희망률은 19%대이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여자 노인 19.6%, 남자 노인 19.3%).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현재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0.9%로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노인인구의 성비와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여자 노인의 이용률은 낮은 수치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통계청(2016)의 2015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에서 여자의 비율이 58.2%로 남자 41.8%에 비해 16.4% 포인트 높다.

〈표 2-15〉 노인의 성별·지역별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

(단위: %, % 포인트)

구분	전체	성			지역		
		남자 (A)	여자 (B)	차이 (A-B)	동부 (A)	읍면부 (B)	차이 (A-B)
노인복지관 이용률	8.9	8.4	9.3	-0.9	9.3	7.6	1.7
노인복지관 향후이용 희망률	19.5	19.3	19.6	-0.3	21.7	12.3	9.4
노인복지관 이용이유							0
여가 프로그램 이용	53.2	39.2	62.2	-23	52.6	55.6	-3
친목 도모	14.9	25.0	8.4	16.6	17.7	17.3	0.4
식사 서비스	17.6	19.6	16.3	3.3	15.0	14.4	0.6
일자리 사업참여	4.8	4.9	4.7	0.2	4.7	5.0	-0.3
불만족 이유							0
이용노인과 맞지 않음	59.1	77.0	50.0	27	64.1	0.0	64.1
시설열악	21.3	0.0	32.0	-32	23.0	0.0	23
프로그램 미비	3.2	9.7	0.0	9.7	0.0	41.7	-41.7
교통 불편	13.5	4.6	18.0	-13.4	9.7	58.3	-48.6
경제적 부담	2.9	8.7	0.0	8.7	3.2	0.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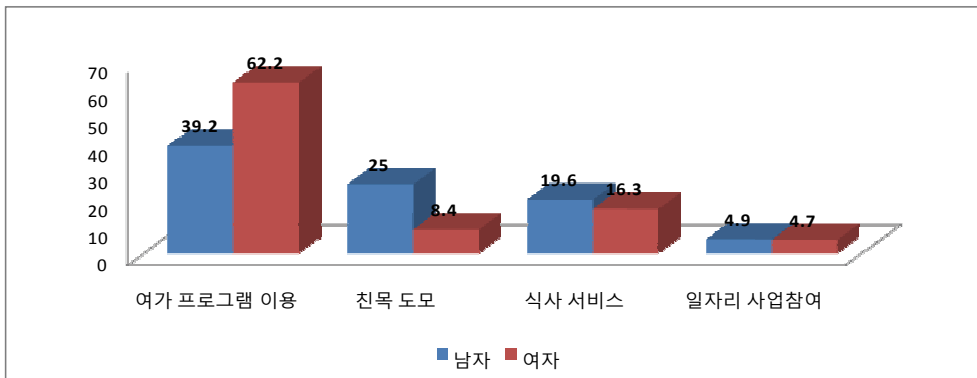
주: 1) 노인복지관 이용이유의 지역별 합계는 100%이나 4순위까지만 제시함

2) 불만족 이유의 경우 관측대상이 21명으로 통계적 해석은 어려움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노인복지관 이용이유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여가프로그램 이용’이 1순위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여자노인의 경우 여가프로그램 이용이 62.2%로 남자노인 39.2%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노인복지관 이용 2순위 이유는 남자노인 ‘친목도모(20.5%), 여자노인 ‘식사서비스 이용(16.3%)이다(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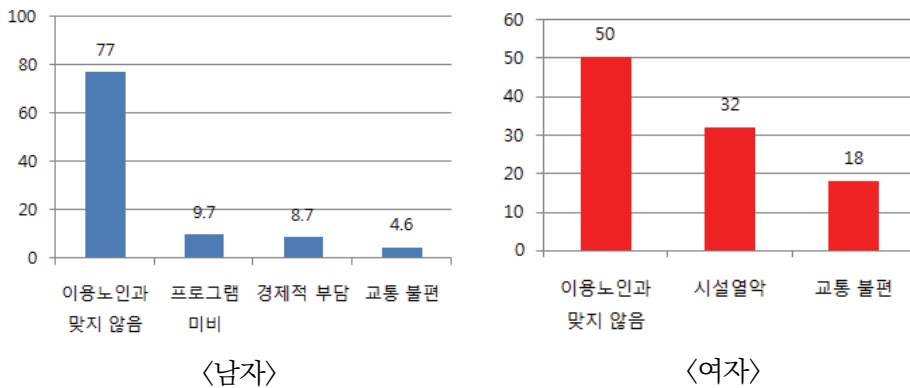
[그림 2-2] 성별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노인복지관의 불만족 이유는 성별로 큰 차이가 있다.⁴⁾ 노인복지관 불만족 이유로 1순위로 남자와 여자 모두 ‘이용노인과 맞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남자 77.0%, 여자 50.0%). 그 외에 노인복지관에 불만족인 이유는 여자 노인의 경우 ‘시설열악(32%)’, ‘교통불편(18%)’과 같이 인프라 측면을 문제시한 반면, 남자 노인의 경우 ‘프로그램 미비(9.7%)’, ‘경제적 부담(8.7%)’과 같이 프로그램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성별 노인복지관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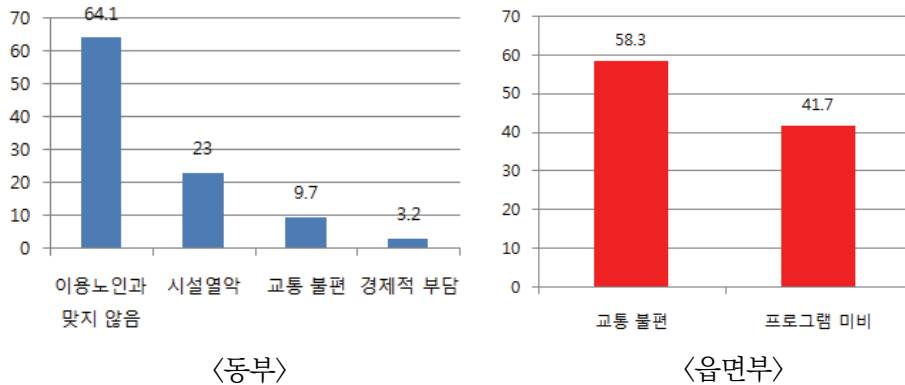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노인복지관의 이용경험을 지역별로 비교분석하면, 현재 이용률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도시 9.3%, 농촌 7.6%), 향후 이용희망률은 도·농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 노인복지관의 미래 수요는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노인의 향후 이용희망률은 21.7%인 반면 농촌 노인의 응답률은 12.3%이다.

동부 지역 노인은 노인복지관 불만족 이유에 대해 ‘이용노인과 맞지 않음(64.1%)’, ‘시설열악(23%)’를 1, 2순위로 응답한 반면, 읍면부 지역 노인은 ‘교통불편(58.3%)’, ‘프로그램 미비(41.7%)’를 1, 2순위로 응답하여 지역별 불만족 특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4)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916명 중 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 2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그림 2-4] 지역별 노인복지관 불만족 이유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이상의 노인복지관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노인의 성별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노인복지관은 성별 이용자규모를 예측하여,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성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자의 기대수명이 남자에 비해 길기 때문에(2014년 기준 여자 85.5세, 남자 79세), 당분간 노인복지관 이용자 중 여자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다 긴 시각에서 이용자 규모를 예측한다면, 기대수명의 성별 격차 감소로 인해 노인복지관의 남자 이용자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 농촌지역은 인프라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지역 노인은 여가복지시설 접근성이 도시 노인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다.⁵⁾ 농촌 인구과소화의 영향으로 향후 농촌지역 여가인프라가 축소된다면(통·폐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노인복지관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은 농촌 노인의 이용률이 54.3%로 도시 노인 17.2%에 비해 약 2.5배 높은 수준임. 따라서 지역별로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여가복지시설이 다르며, 이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욕구가 다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

제4절 소결

여가활동과 노인의 삶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문헌검토 결과,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인생의 어떠한 시기보다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노인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노년기의 무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과 질병 등 다른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국 노인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공공시설에 속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이 집 외부에서 하는 여가활동 장소의 대표적인 곳의 하나이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이외에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기반의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역과 개별 노인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 질적 수준에 편차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 및 인적 인프라의 차이, 서비스 내용의 차이가 실제 노인의 여가활동, 더 나아가 노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한 노인의 여가활동 분석결과,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거주지역과 성별에 따라 노인의 여가 참여 현황과 욕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가활동 참여율 및 향후 참여욕구의 차이는 여가활동의 긍정적 효과가 이후 성별간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지역별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여자 노인의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9.3%로 남자 노인 8.4% 보다 높았다. 그러나 향후 노인복지관 이용희망률은 성별에 상관없이 19%대로 유사한 수준이었다(여자 노인 19.6%, 남자 노인 19.3%). 여기서 현재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0.9%로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노인인구의 성비와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여자 노인의 이용률은 낮은 수치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통계청(2016)의 2015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에서 여자의 비율이 58.2%로 남자 41.8%에 비해 16.4% 포인트 높다.

지역별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에 비해 현재 이용률과 향후 이용희망률이 모두 높았다. 특히 지역별로 현재 노인복지관 이용률의 차이가 1.7% 포인트로 작지만(도시 9.3%, 농촌 7.6%), 향후 이용희망률은 도·농 간의 차이가 더욱 커서 9.4% 포인트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노인복지관의 이용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 및 2014년 노인실태조사 분석결과, 성별 뿐 아니라 지역별로 노인복지관 이용실태에서 큰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모든 분석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성별 특성 뿐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 3 장

노인복지사업의 법제적 검토

제1절 노인복지사업 관련 법체계

제2절 노인복지법령상 양성평등

제3절 노인복지관 운영상 양성평등

제4절 소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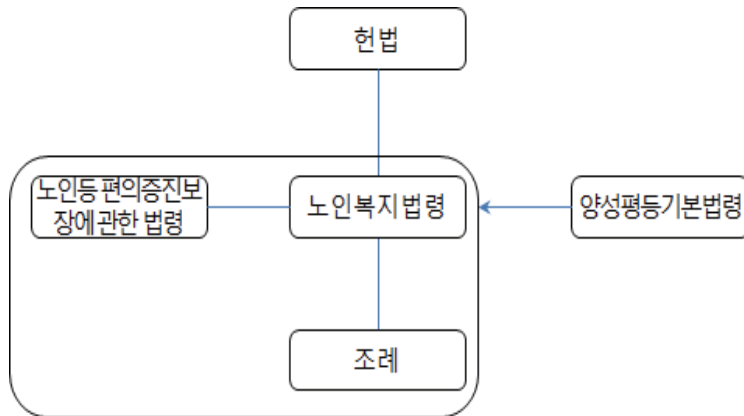
노인복지사업의 법제적 검토 <<

제1절 노인복지사업 관련 법체계

노인복지사업 관련 법체계는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한 법이념 내지 법원리에 의하여 통일된 법질서를 가리키며, 헌법, 노인복지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복지사업 관련 제도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노인복지법령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 관련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이양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고유사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고, 제반법령들이 헌법상 양성평등권을 위배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장치로서 양성평등기본법령이 마련되어 있다.

[그림 3-1] 노인복지사업 관련 법체계



헌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과 국가의 책무로서의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4조는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조치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이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동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 6종이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동법 제36조).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재확인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하며,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1항).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동법 제5조 제2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노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노인복지시설)에서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대변기, 소변기)에 한정하여 의무설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된다. 따라서 필수적인 운영사항은 반드시 반영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한 부가적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한다.

제2절 노인복지법령상 양성평등

1. 노인복지법령의 양성평등 검토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이용자의 성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의 구성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전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법은 총칙(1장), 보건·복지조치(3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4장), 비용(5장), 보칙(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동법 제36조 내지 37조의3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주거, 의료, 재가, 보호, 일자리 지원)은 설치·운영·입소·종사자 등에 관한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일반노인의 자유로운 이용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만을 정하고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설치의 신고사항으로서 민간에서도 설치 가능하다(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구분되며, 여가복지의 대표적인 시설은 노인복지관이라 할 수 있다. 경로당은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이 주목적이다. 노인교실은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노인복지관은 폭넓은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로당, 노인교실과는 차이가 있다.

노인복지관은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해야 한다. 노인복지관의 기본사업은 상담·지도,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교양강좌 등의 실시 등이며, 노인복지관의 권고사업은 재가노인복지

시설 병설운영, 지역특성에 따른 야간이용 가능체제 마련 등이다. 노인복지관 운영기준은 급식위생관리, 운영규정, 회계, 장부 등 비치, 사업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운영규정에는 이용정원, 이용계약(계약기간, 이용료, 비용부담액), 비용변경방법·절차, 서비스 내용과 비용부담, 시설물 사용시 주의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별표 8).

<표 3-1> 노인복지관 운영기준의 주요 규정내용

구분	규정 내용
자체 운영규정 필수 포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정원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업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지도 - 취업상담 및 알선 -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 교양강좌 등의 실시 -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 운영 노력 - 지역특성에 따른 야간이용 가능체제 마련 노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별표 8(2016.10.19)

노인여가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령을 검토한 결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은 성별보다는 연령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 경로당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시행규칙 제24조)으로, 노인은 역연령 기준이 의미가 있을 뿐, 성별 구분이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적인 부분보다 실제 이용과정에서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2.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양성평등 검토

노인복지관 관련 시군구 조례는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할 뿐만 아니

라,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운영실태 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8의 노인복지관 운영기준을 예외 없이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⁶⁾, 다음과 같다. 동 조례는 목적, 명칭 및 위치, 업무, 시설, 인력 및 자격기준,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정지, 지도감독, 이용, 이용제한, 사용허가, 사용료, 운영비 보조, 운영세칙, 시행규칙, 부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내용 검토결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모두 포함하고 있고, 성별에 영향을 미칠만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표 3-2〉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주요내용

구분	규정내용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 기념행사 - 노인학교 설치 운영 -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생활상담 - 고용지원(노인일자리아업) 및 사회참여 사업(자원봉사 및 실버인력뱅크) - 재가노인복지사업 -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세제공 및 노인건강증진사업 - 그 밖에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및 상담실 - 회의실 - 노인휴게실(오락실) 및 노인후생복지시설(취미교육실) - 주간 노인보호실 -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은 무료 이용 - 사업 규모에 따라 이용자수 제한 가능
이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환자 - 소행이 불량한 사람 -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노인이 아닌 사람 -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 그 밖에 복지관 관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사용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16.10.19)

운영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업무 및 시설에 관한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언급한 기본사업과 권고사업을 모두 반영하고 있고, 양성평등에 저촉될

6)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가평군의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가장 앞에 배치되어 있어서 예시로 선택함.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query=%EB%85%B8%EC%9D%B8%EB%B3%B5%EC%A7%80%EA%B4%80>(2016.10.23.)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이용과 관련해서도 관내 노인인 경우 모두 이용 가능하고 사업에 따른 이용자수 제한, 공공보건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는 자에 대한 이용제한 등이 적용될 뿐이며, 이 역시 남녀를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시군구 조례에서 성별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는 없지만, 시설의 민간위탁과정에서 민간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성향에 따라 성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므로 이는 관리감독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필 필요는 있을 것이다.

제3절 노인복지관 운영상 양성평등

1.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의 양성평등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 중 노인복지 관련 일반사업에 대한 안내 자료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16년에 발간된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는 총 2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I은 제1장 노인복지일반현황, 제2장 노인요양, 제3장 치매 및 건강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II는 제4장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제5장 소외된 노인보호, 제6장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보양의식 제고, 제7장 장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 등 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사업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II의 제4장에 제시되어 있다.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은 ① 추진방향, ② 노인복지관 설치에 관한 사항(시설설치, 분관 설치)과 운영 위탁, ③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과 주요 사업내용, 운영비 지원, 시설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시설설치 시 공통사항에서 노인복지관 시설 설치 기준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비상재해대비시설은 1실 이상 설치(보건복지부, 2016a, p.89)”로 되어있다. 그러나 화장실 이용에 따른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각각 1개 이상씩 설치하도록 시설설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와 관련해서는 아래 노인복지관 운영상 양성평등에서도 다시 언급할 것이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유형 중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생활 지원사업’(보건복지부, 2016a, p.94)에 관해 설명하면서, “남자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을 예시로 들고 있다. 이는 사업 안내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독거노인 중 신체건강 지원 대상을 남자로 한정하도록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에 대한 예시에서 ‘남자’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으로 수정·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표 3-3〉 보건복지부의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노인복지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 201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수혜기준 - 2016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노인요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 -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자체 부담
치매 및 건강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 검진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립요양병원 운영 -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 노인실명예방사업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노인 건강진단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 경로당 운영 -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소외된 노인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 학대피해노인 쉼터 -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버이날 행사 -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 경로우대제 운영
장사시설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정책 추진 - 매장· 화장· 개장 및 자연장 -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 - 장사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 집행지침

자료: 보건복지부(2016a),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Ⅱ)를 기반으로 작성

2. 노인복지관 운영과정의 양성평등

과천시 노인복지관의 사례를 예로 들어 구체적인 사업운영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천시 노인복지관은 상담홍보, 사회교육, 재가복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 복리후생, 기능회복, 특화사업, 주간보호센터, 큰소망경로의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역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당해 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사업별로 연령기준 또는 법정 취약계층 보호기준에 따라 이용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 역시 남녀를 구분하거나 차별하여 양성평등에 저촉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표 3-4> 과천시 노인복지관 사업내용

구분	자격	사업내용
상담홍보	60세 이상 회원 및 그 가족	- 일반상담: 이용상담, 생활상담 - 전문상담: 법률상담, 세무상담, 정신건강상담, 건강상담, 생활금융상담
사회교육	회원	- 건강증진프로그램, 취미여가프로그램, 교양교육프로그램, 자율이용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동아리, 특별행사
재가복지사업	65세 이상 저소득/독거	- 저소득식사배달사업, 대상자관리사업, 생활지원사업, 보건 의료사업, 후원사업, 사회문화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	65세 이상 일반	- 공익활동, 취업형
노인자원봉사	60세 이상 일반	- 은빛 스카우트, 서포터즈 봉사대, 열매나눔 봉사대, 나라사랑 봉사대, 또래사랑 봉사대, 보듬이 봉사대, 실버그린 음악대, 화훼컨설턴트, 실버 기자단
복리후생	회원	- 경로식당,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 셔틀버스 운행
기능회복	일반/주간보호/재가	- 물리치료, 원적외선치료, 낙상예방프로그램
특화사업	-	- 어르신화훼컨설턴트, 기획프로그램, 심부름센터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판정자	- 노인장기요양대상자 주간보호
큰소망 경로의원	60세 이상 일반	- 건강상담, 치료, 질병예방서비스

자료: 과천시 노인복지관 사업안내(<http://www.gcsilver.or.kr>, 2010.10.19)

한편 시각을 달리한다면, 노인복지사업 관련 법제에서 노인을 무성의 존재로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인 또한 다른 연령집단과 같이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따라서 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노인복지사업에서 노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규정을 제외한 것은 아닌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제7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 실시한 노인복지관 사례조사에서 노인복지관은 이미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나아가 노인인구의 여성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노인복지관의 남녀 화장실 수를 성별 노인인구의 비율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노인복지관 운영기준에 화장실의 남녀분리를 제안한다.

3.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에서의 양성평등

1998년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현재 노인복지관은 3년마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노인복지관 평가는 2015년에 실시되었으므로, 2015년에 적용된 노인복지관 평가지표가 양성평등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노인복지관 평가지표는 6개 영역 7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3-6). 구체적으로는 A. 시설 및 환경 6개 지표, B. 재정 및 조직운영 10개 지표, C. 인적자원관리 14개 지표,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0개 지표, E. 이용자의 권리 4개 지표, F. 지역사회관계 8개 지표 등이다. C.11-③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 항목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를 근거로 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관 직원, 회원 또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양성평등과 직간접적 연관을 갖고 있어 매우 타당한 평가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지표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추가 반영할 여지가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D1-1. ‘이용자 관리체계’ 지표에서 ② ‘초기이용 상담 시 파악된 욕구를 연 2회 이상 보고하고 사업에 반영’ 항목에서 ‘남녀별로 구분하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용자 욕구는 성별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면, 이용자 관점에서의 사업계획의 합리성 제고와 양성평등 구현을 동시에 도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3-5〉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복지관 평가 관련 조항

구분	조문
목적 (제1조)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평가 (제43조의 2, 시행규칙 제27조의 2)	<p>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 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27조)	<p>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p>(이하 생략)</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6.10.19)

〈표 3-6〉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구분	지표
A. 시설 및 환경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안전관리
	A2-⑨. 자체 비상연락체계 존재 여부와 응급조치반 운영 내용 확인
	A3. 환경관리
	A4. 여가환경
	A5. 복지관 운영·관리
	A6. 시설의 접근성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2014)

〈표 3-6〉 노인복지관 평가지표(계속)

구분	지표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B2. 운영법인의 전입금 이행률
	B3. 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B4. 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후원금 비율
	B5.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계획
	B6.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B7. 회계의 투명성
	B7-⑥.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 실시 여부 확인
	B8. 기관 운영규정
	B9. 운영계획서의 실행정도
C. 인적자원 관리	B10. 예산 집행의 적절성
	C1. 직원의 충분성
	C2.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C3. 직원의 근속률
	C4. 직원 교육활동비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C6. 직원 내부교육 참여시간
	C7. 직원채용의 공정성
	C8. 시설장의 전문성
	C9. 최고 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C10. 직원업무평가
	C11. 직원교육
	C12. 직원 고충처리
	C13. 직원복지
C14.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1. 이용자 관리체계
	D1-2. 전체 프로그램 이용실적
	D1-3.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
	D2-1. 단위사업 계획의 전문성
	D2-2. 욕구조사 또는 만족도조사
	D2-3. 사례관리
	D2-4. 단위사업 운영평가
	D3-1. 이용자 모집 및 관리
	D3-2. 외부강사의 관리
	D4-1. 참여자 선발 및 관리
D4-2. 노인일자리 운영 및 관리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2014)

64 노인복지사업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

〈표 3-6〉 노인복지관 평가지표(계속)

구분	지표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계속)	D5-1. 서비스제공 및 관리
	D5-2. 건강생활지원 사업 환경
	D6-1. 내부 전문상담 사업
	D6-2. 외부전문가에 의한 상담
	D7-1. 노인자원봉사자 선발 및 관리
	D7-2. 노인자원봉사자 관리
	D7-3. 노인자원봉사자 수
	D8-1. 집단급식
	D8-2. 영양관리 상태
	D8-3. 도시락밀반찬 전달
	D8-4. 식품위생
	D9-1. (건강생활지원사업-요양서비스사업)프로그램의 전문성 ¹⁾
	D9-2. (건강생활지원사업-요양서비스사업)외부강사의 관리 ¹⁾
	D10-1. (경로당혁신프로그램사업)경로당 이용노인 관리 ¹⁾
	D10-2. (경로당혁신프로그램사업)외부강사의 관리 ¹⁾
	D11-1. (특화사업1)사업계획서의 전문성
D11-2. (특화사업1)특화사업의 과정 및 성과	
D12-1. (특화사업2)사업계획서의 전문성	
D12-2. (특화사업2)특화사업의 과정 및 성과	
E. 이용자의 권리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E3.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E4. 이용자의 권리
F. 지역사회 관계	F1. 자원봉사자의 활용
	F2. 외부자원개발
	F3. 민간자원 확보 및 성과
	F4. 자원봉사자 관리
	F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6. 홍보
	F7. 지역사회 참여실적
	F8. 연구보고서 작성 및 활용

주: 1) 평가지표 D9와 D10은 요양서비스사업(주야간보호소) 혹은 경로당혁신프로그램사업 중 1개를 선택
에 따라 결정.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2014)

제4절 소결

노인복지사업 관련 법체계는 헌법, 노인복지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성된다. 노인복지법 구성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전반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노인복지관 이용에 성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성별보다 연령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성별 영향적 요소의 개입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제도적인 부분 보다 실제 노인복지관 이용상에서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노인복지관 운영상 양성평등 사항을 검토한 결과, 노인복지관 시설설치 기준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노인복지관 시설설치 기준은 화장실 1개소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성별 차이를 반영하여 남녀로 구분하여 각각 화장실 1개소 이상으로 수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서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예시로 든 '남자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에서 '남자'를 삭제·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에서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영역의 이용자 관리체계는 남녀로 구분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노인복지사업의 법적 검토에서 도출된 노인복지관 운영 개선사항은 제6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제 4 장

노인복지관 실태조사 : 성인지적 접근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노인복지관 기관조사 결과

제3절 노인복지관 이용자조사 결과

제4절 소결

4

노인복지관 실태조사 << : 성인지적 접근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대상

성인지적 관점에서 노인복지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노인복지관 관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에 위치한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회원 노인복지관 258개소 중에서 한국노인복지관협회로부터 40개소의 기관을 추천을 받은 후, 최종 30개소의 기관과 300명의 이용자에 대해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관리자용 조사표의 응답대상은 기관의 운영현황 전반을 알 수 있는 부장이나 사무국장 등 관리자급의 대표 1명(30개소×1명)이다. 이용자는 1개소 당 10명씩 조사하여 총 300명(30개소×10명)이 대상이다.

노인복지관의 지역유형은 주소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대도시형과 중소도시형, 농어촌형으로 구분하였다. 대도시형은 광역시/특별시 지역, 중소도시형은 시 지역, 농어촌형은 군 지역이 해당된다. 17개 시·도의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결과, 지역유형별 노인복지관 수는 대도시형 11개소, 중소도시형 11개소, 농어촌형 8개소이다.

설문조사기간은 2016년 7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약 2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조사표는 전수 회수되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힌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는 본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표 개발단계에서부터 조사대상 선정, 조사표 회수단계에서의 노인복지관 독려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2. 조사내용

기존의 노인복지관 실태조사는 운영과 관련된 일반현황을 조사문항으로 담고 있으

며, 성별 차이를 반영한 기관 운영 현황이나 성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문항에서 일반적인 운영현황은 배제하고자 하였으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노인복지관 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조사문항은 학계전문가와 현장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진이 개발하였다.

〈표 4-1〉 조사대상별 설문문항

분류		내용
관리자	시설 일반현황	대표자 성별, 직원 성별 구성, 운영주체, 차량지원
	이용노인 일반현황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국민기초수급자유무별 이용 인원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현황	사업별 실시여부 및 성별 인원수, 대표자(반장) 성별, 성별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 3순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및 인식	직원 양성평등 교육 실시여부 및 필요성, 이용자 양성평등 교육의 실시여부 및 필요성, 운영위원회 성별 구성, 이용노인 간담회/대표자회의의 성별구성, 성별 차이를 반영한 서비스, 성별 특화 프로그램
	응답자 일반사항 및 성역할 인식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무기간, 성역할인식
이용자	이용실태 및 만족도	이용경로, 이용시간대, 교통수단, 이용이유, 참여 프로그램 수, 대표자(반장) 성별, 본인 및 남녀 의견제시 현황, 비용부담수준, 이용자 성비 인식, 양성평등 교육 필요성, 서비스 만족도, 기관이용 만족도
	응답자 일반사항 및 성역할 인식	성별, 연령, 가구형태(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일/돌봄노동 참여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소득, 성역할인식

조사표는 관리자용과 이용자용의 2종으로 설계하였으며, 주요 설문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4-1). 먼저 관리자용 조사표는 크게 ① 시설 일반현황, ② 이용노인 일반현황, ③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현황, ④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및 인식, ⑤ 응답자 일반사항 및 성역할 인식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노인복지관의 실태를 파악하는 본 연구에서 관리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둔 영역은 ③과 ④이다. 이용자용 조사표는 크게 ① 이용실태 및 만족도, ② 응답자 일반사항 및 성역할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용 조사표는 관리자용 조사표에 비해 설문 문항 수가

작은데, 이는 본 조사가 자기기입식 조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노인의 응답부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용자용 조사표는 관리자용 조사표보다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편집 부분을 염두에 두었으며, 조사표의 분량은 양면 인쇄하여 3쪽을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제2절 노인복지관 기관조사 결과

본 절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노인복지관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조사대상기관의 수가 30개소로 기관 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소 수’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의 목적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비교분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비율(%)로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관한 사항 또한 ‘명’으로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율(%)로 서술한다.

1. 기관 및 응답자 일반사항

〈표 4-2〉에 조사대상 노인복지관의 일반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대표자의 성별이 남자인 기관은 22개소로 여자 8개소에 비해 많다(각각 73.3%와 26.7%). 평균 직원 수는 22.6명이며 이 중 남자 7.4명(32.7%), 여자 15.2명(67.3%)이다. 노인복지관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모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이 22개소(73.3%), 종교법인 5개소(16.7%), 기타 3개소(10.0%)이다. 이용노인의 이동지원을 위해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 기관은 17개소(56.7%)이며, 이 중 하루 1~2회 운행 5개소, 3회 이상 12개소이다.

지역별로 노인복지관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경우 대표자의 여자 비율이 45.5%(남자 6명, 여자 5명)로 대도시 9.1%, 농어촌 25.0% 보다 높다. 또한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농어촌에 비해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기관이 많은 편이다(대도시 4개소, 중소도시 7개소, 농어촌 2개소). 그리고 도시지역의 남자 직원 비율이 약 8%(대도시 8%, 중소도시 7.7%)로 농어촌 6.3%에 비해 높다.

〈표 4-2〉 노인복지관 일반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전체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대표자 성별				
남자	22	10	6	6
여자	8	1	5	2
직원 성별 구성(명) ¹⁾				
전체	22.6	24.5	24.5	17.4
남자	7.4	8.0	7.7	6.3
여자	15.2	16.5	16.8	11.1
위탁운영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22	8	10	4
종교법인	5	2	-	3
기타	3	1	1	1
차량운행				
없음	13	4	7	2
1~2회	5	1	1	3
3회 이상	12	6	3	3
(개소 수)	(30)	(11)	(11)	(8)

주: 1) 평균임

노인복지관 기관조사의 응답자 중 남자는 18명(60.0%)으로 여자 12명(40.0%) 보다 약 20% 포인트 많다. 교육수준은 대학원 이상이 23명(76.7%)으로 초·대졸 7명(23.3%) 보다 16명(53.3% 포인트) 많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43세이며, 현 기관 근무기간은 약 7년 5개월(88.5개월), 사회복지시설 총무근무기간은 약 14년 9개월(176.9개월)이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소재한 노인복지관의 남자 응답자 비율(54.5%)이 대도시(63.6%)와 농어촌(62.5%)에 비해 낮은 편이며, 대도시 지역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편이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 대도시 9명, 중소도시 8명, 농어촌 6명이다. 현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근무기간은 중소도시가 가장 긴 것이 특징이다.

〈표 4-3〉 노인복지관 조사응답자의 일반사항

(단위: 명, 세, 개월)

구분	전체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성별				
남자	18	7	6	5
여자	12	4	5	3
교육수준				
초·대졸	7	2	3	2
대학원 이상	23	9	8	6
연령(세) ¹⁾	43.0	43.6	42.5	42.6
현 기관 근무기간(개월) ¹⁾	88.5	95.4	100.2	62.9
사회복지시설 총근무기간(개월) ¹⁾	176.9	154.0	211.7	160.6
(명)	(30)	(11)	(11)	(8)

주: 1) 평균임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조사대상 30개소의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현황을 살펴 보았다(표 4-4). 노인복지관의 등록인원은 평균 6,726명이며, 이 중 남자 노인은 2,729명으로 약 39.5%로 여자 노인 3,997명, 60.5%에 비해 21.0% 포인트 적다.

이용노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교육수준별로 초졸 이하가 46.3%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고졸 이상 36.8%, 중졸 16.9% 순이다.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이 81.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74세 이하는 18.6%(65~74세 8.7%, 64세 이하 9.9%)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8%이다.

이용노인의 성별 특성을 비교하면, 남자의 교육수준이 더 높고(고졸 이상 기준, 남자 48.0%, 여자 28.0%), 연령도 높은 편이다(75세 이상 기준, 남자 85.5%, 여자 79.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남자 4.1%로 여자 5.2%에 비해 1.1% 포인트 높다.

〈표 4-4〉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등록인원 (명) ¹⁾	100.0 (6,726)	39.5 (2,729)	60.5 (3,997)
교육수준			
초졸 이하	46.3	35.3	54.9
중졸	16.9	16.6	17.1
고졸 이상	36.8	48.0	28.0
연령			
64세 이하	9.9	7.5	11.2
65~74세	8.7	7.0	9.6
75세 이상	81.4	85.5	79.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예	4.8	4.1	5.2
아니오	95.2	95.9	94.8

주: 1) 조사대상 노인복지관 30개소에 대한 2015년 12월말 누적 기준의 평균 수치임.

2)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2. 성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현황

건강생활지원과 상담사업, 정서생활지원, 사회참여지원, 고용 및 소득지원 등의 서비스를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지 파악한 후, 이용노인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았다(표 4-5). 이들 서비스에서 여자 노인의 구성 비율이 최소 54.1%에서 최대 75.8%로 남자 노인 보다 여자노인의 이용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앞에서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등록인원 성별이 남녀 약 40:60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남자노인의 비율이 40% 이상인 서비스는 건강생활지원 중 체력단련실(49.1%), 복리후생(42.0%), 상담사업(41.2%), 사회참여지원 중 동아리클럽 활동 지원(49.4%)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표 4-5〉 서비스 실시 기관 수 및 이용노인의 성별 구성

(단위: 개소, %)

구분	실시 기관수	이용노인 성별 구성 비율	
		남자	여자
건강생활지원			
물리치료(작업치료, 운동재활, ADL훈련 등)	24	29.2	70.8
건강상담(양방진료, 한방치료, 건강교육 등)	27	36.0	64.0
복리후생(아미용, 경로식당, 밀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20	42.0	58.0
체력단련실	26	49.1	50.9
독거노인지원사업	21	32.3	67.7
상담사업	28	41.2	58.8
정서생활지원(우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죽음준비 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등)	25	36.5	65.3
사회참여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30	24.2	75.8
동아리클럽 활동 지원	18	49.4	54.1
고용 및 소득지원(노인일자리사업, 고령자취업지원사업, 취업교육 등)	28	29.3	70.7

주: 1) 조사대상 노인복지관 30개소에 대한 2015년 12월말 누적 기준의 평균 수치임.

2)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표 4-6〉에는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별로 노인복지관에서 실시여부와 성별 구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먼저 남자노인의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중 장기·바둑과 서예반, 탁구·게이트볼·포켓볼 등 체육 영역, 정보화교실(컴퓨터교실, 스마트폰 교실) 영역으로, 이러한 영역의 프로그램은 남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장기·바둑의 남자 비율은 94.4%로 대부분이 남자이며, 서예반은 67.8%, 컴퓨터교실 61.5%, 스마트폰 51.5%이다.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성별에서 남자노인은 약 40%라는 점에서, 비록 프로그램별의 남자노인의 비율이 50% 미만일지라도 40% 이상인 경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의 일반교양(인문학 등)과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에서 남자노인의 비율이 각각 45.0%와 40.2%이다.

여자노인의 비율이 특히 높은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의 한글교육(94.3%), 취미여가프로그램 중 현대무용·고전무용 등의 무용(93.3%)과 체조·에어로빅·요가 등 건강증진(80.4%), 가요·가곡·노래방 등 가요교실(75.0%), 민요·시조·풍물·가야금 등 전통문화(72.1%), 그림·도자기·색종이접기 등 미술활동(61.4%) 이다.⁷⁾

7) 평생교육 중 예비노인은퇴준비 프로그램의 여자 비율이 80%지만, 이를 실시하는 기관이 1개소에 불과하므로 본문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음.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대표자가 있는 경우가 상당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별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영역의 프로그램 수가 많더라도 상대적으로 어느 성별이 더 많은지 파악하였다. 그 결과 남자노인의 구성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대부분 남자 노인이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자의 남자 비율이 70%가 넘는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은 장기바둑(100%), 컴퓨터교실(89.5%), 체육(86.4%), 서예반(84.0%), 일반교양(72.7%)이다. 반면 대표자의 여자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한글교육(100%), 무용(96%), 건강증진(88.9%), 미술활동(75%)이다.

한편 성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용 현황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관리자 조사표 분석에서, 노인복지관의 이용노인에 대한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별 분리 통계는 아직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현황이나 서비스, 프로그램별 이용노인 전체에 대한 정보는 모든 기관에서 응답하고 있지만, 성별로 구분된 통계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기관이 상당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로 구분된 통계가 제시되지 않은 기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표 4-6〉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별 이용노인의 성별 구성

(단위: 명, %, 개소)

구분	전체	이용 노인 성별 구성 비율		대표자 남자 비율
		남자	여자	
평생교육				
일반교양(인문학 등)	20	45.0	55.0	72.7
한글 교육	27	5.9	94.3	0.0
외국어 교육	26	40.2	59.8	59.1
예비노인은퇴준비 프로그램	1	20.0	80.0	-
정보화교실				
컴퓨터 교실	28	61.5	38.5	89.5
스마트폰 교실	22	51.5	48.5	57.1
취미여가프로그램				
건강증진(체조, 에어로빅, 요가 등)	30	19.6	80.4	11.1
가요교실(가요, 가곡, 노래방 등)	30	25.0	75.0	41.7
전통문화(민요, 시조, 풍물, 가야금 등)	28	27.9	72.1	37.5
체육(탁구, 게이트볼, 포켓볼 등)	28	52.1	47.9	86.4
무용(현대무용, 고전무용 등)	27	7.3	93.3	4.0
미술활동(그림, 도자기, 색종이접기 등)	16	38.6	61.4	25.0
서예반(한글, 한문, 서화, 사군자)	29	67.8	32.2	84.0
장기, 바둑	26	94.4	5.6	100.0
다도, 꽃꽂이, 채소가꾸기 등	3	20.8	79.2	0.0

주: 1) 조사대상 노인복지관 30개소에 대한 2015년 12월말 누적 기준의 평균 수치임.

2) 대표자가 없는 경우와 남녀 모두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3)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구체적으로 성별로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최대 3개까지 조사하였다(표 4-7).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남자노인의 경우 장기·바둑과 서예반(사군자 포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6개소로 가장 응답이 많았고, 그 다음 탁구·당구(포켓볼, 파크골프, 검도 포함)와 컴퓨터·인터넷이 각각 4개소이다. 반면 여자노인에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가요/노래교실(13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요가(7개소), 인문학(5개소) 순이었다.

〈표 4-7〉 성별 인기프로그램

(단위: 개소)

구분	남자			여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	3	1	-	2	1
인문학(역사, 역학 등)	1	-	2	5	-	-
문학창작(수필)	-	-	1	-	-	-
건강교육	-	-	-	-	-	1
컴퓨터, 인터넷	4	5	5	-	1	1
스마트폰	2	1	-	1	-	-
가요/노래교실	2	-	4	13	5	4
악기연주	1	-	-	-	-	1
전통문화(민요, 사물놀이 등)	-	1	-	-	2	2
댄스(무용)	1	3	3	2	5	7
체조(기체조, 에어로빅 포함)	-	-	-	-	9	7
요가	1	1	-	7	3	3
탁구, 당구(포켓볼, 파크골프, 검도 포함)	4	-	7	-	-	-
장기바둑	6	6	4	-	1	1
서예(사군자 포함)	6	8	-	-	-	-

주: 1) 조사대상 노인복지관 28개소에 대한 2015년 12월말 누적 기준의 평균 수치임.

2)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중복 응답은 포함하여 분석함.

성별로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1~3순위 중복응답을 분석한 결과가 〈표 4-8〉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상관없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취미여가프로그램에 가장 참여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취미여가프로그램의 개설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별로는 상대적으로 남자노인에게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정보화교실(남자 20.3%, 여자 3.6%)이라는 응답이 높고, 여자노인은 취미여가프로그램(남자 69.0%, 여자 85.8%)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세부 프로그램별로 남자노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장기·바둑(19.0%), 그 다음 서예반(16.7%)와 컴퓨터·인터넷(16.7%), 탁구·당구(13.1%) 순이다. 여자노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가요/노래교실(26.2%), 체조(19.0%), 댄스(16.7%), 요가(15.5%) 순이다.

〈표 4-8〉 성별 인기프로그램 : 1-3순위 중복응답

(단위: 개소, %)

구분		남자	여자
평생 교육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5 (6.0)	3 (3.6)
	인문학(역사, 역학 등)	3 (3.6)	5 (6.0)
	문학창작(수필)	1 (1.2)	0 (0.0)
	건강강좌	0 (0.0)	1 (1.2)
	소계	9 (10.8)	9 (10.8)
정보화 교실	컴퓨터, 인터넷	14 (16.7)	2 (2.4)
	스마트폰	3 (3.6)	1 (1.2)
	소계	17 (20.3)	3 (3.6)
취미 여 가 프 로 그 램	가요/노래교실	6 (7.1)	22 (26.2)
	음악 악기연주	1 (1.2)	1 (1.2)
	전통문화(민요, 사물놀이 등)	1 (1.2)	4 (4.8)
	댄스(무용)	7 (8.3)	14 (16.7)
	운동 체조(기체조, 에어로빅 포함)	0 (0.0)	16 (19.0)
	요가	2 (2.4)	13 (15.5)
	탁구, 당구(포켓볼, 파크골프, 검도 포함)	11 (13.1)	0 (0.0)
	장기바둑	16 (19.0)	2 (2.4)
	서예(사군자 포함)	14 (16.7)	0 (0.0)
	소계	58 (69.0)	72 (85.8)
계	28 (100.0)	28 (100.0)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중복 응답은 포함하여 분석함.

이와 같이 성별로 인기있는 프로그램 순위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별 성별 구성 비율 분석 결과와 대부분 일치한다. 즉 남자노인은 장기바둑과 서예교실, 여자노인은 가요/노래교실과 요가활동, 체조, 댄스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여자노인의 구성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 중 한글교육이 1순위가지만, 한글교육이 곧 여자노인에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글교육에 참여하는 인원 수가 적고 대부분 여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별로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더라도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 수와 수강생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 순위에 일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3.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및 인식 현황

노인복지관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한 결과를 <표 4-9>에 제시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인 모든 노인복지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제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에도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양성평등 인식제고 관련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⁸⁾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 제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16개소로 전체 노인복지관의 55.2% 수준이다. 그러나 과거에 양성평등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현재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20.7%(6개소)였고, 본 연구에서 양성평등 인식 제고 교육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노인복지관의 93.1%(27개소)는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제고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법적 기반으로 조직된 운영위원회⁹⁾는 조사대상 모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규모는 5~9인이 20개소(66.7%)로 가장 많고, 10~14인 9개소(30.0%), 15인 1개소(3.33%)이다. 운영위원회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자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남자 비율 70% 이상이 56.6%(70~80% 미만 9개소, 80% 이상 8개소)이다.

25개소(84.1%¹⁰⁾)의 노인복지관에서 이용노인으로 구성된 동아리 대표자 회의나 운영간담회, 자치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자 비율이 40%가 넘는 곳은 18개소(40~50% 미만 3개소, 50~60% 미만 6개소, 60% 이상 9개소)로 62.1%이다. 즉 이용노인으로 구성된 간담회의 모임에서 남자노인의 참여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8) 제5장에서 실시한 사례조사과정에서 확인됨.

9)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임.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제2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① 시설의 장, ② 시설 거주자 대표, ③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 ⑤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제1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10) 무응답 1개소를 제외함.

〈표 4-9〉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및 인식

(단위: 개소, %)

	구분	실시 기관 수(비율)
직원 대상 양성평등 인식제고 관련 교육	실시	30 (100.0)
	필요성 인식	30 (100.0)
이용노인 대상 양성평등 인식제고 관련 교육	실시여부	
	실시 중	16 (55.2)
	과거 실시, 그러나 현재 미실시	6 (20.7)
	미실시	7 (24.1)
	필요성 인식	27 (93.1)
운영위원회	규모	
	5~9명	20 (66.7)
	10~14명	9 (30.0)
	15명	1 (3.3)
	남자 비율	
	50% 미만	2 (6.7)
	50~60% 미만	6 (20.0)
	60~70% 미만	5 (16.7)
	70~80% 미만	9 (30.0)
	80% 이상	8 (26.6)
이용노인 동아리 대표자회의/운영간담회 등	실시여부	
	1개 실시	18 (62.1)
	2개 실시	7 (24.1)
	미실시	4 (13.8)
	규모	
	30명 미만	11 (36.7)
	30~60명 미만	8 (26.6)
	60명 이상	11 (36.7)
	남자 비율	
	30% 미만	3 (10.4)
	30~40% 미만	8 (27.6)
40~50% 미만	3 (10.3)	
50~60% 미만	6 (20.7)	
60% 이상	9 (31.0)	
성별 차이 반영한 운영	제공시간대(오전, 오후)	1 (3.5)
	프로그램 기획운영	4 (13.8)
	강의실 배치	5 (17.2)
	강사선정	2 (7.4)
	대표자(반장) 선정	- (0.0)
성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실시	17 (56.7)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용노인의 성별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12개소이며, 주로 강의실 배치(5개소)와 프로그램 기획·운영(4개소)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하고 있었다. <표 4-10>에 노인복지관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 세부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성별로 욕구가 확인되는 경우 신규로 기획하거나 특정 성별에서 호응도가 높은 경우 추가 개설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의실 배치는 성별로 이용선호도가 뚜렷하게 나뉘는 당구장과 포켓볼장을 분리·운영하거나, 남자노인의 동선을 고려하여 남자노인에게 인기 프로그램실을 배치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4-10> 성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 세부내용

구분	내용
프로그램 기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노인 대상 요리교실 운영(2개소) · 여자 노인의 필라테스 수업 호응도 높아 실버요가 프로그램 추가 개설 · 여성합창반, 아버지학교 운영 등
강의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사무실 로비와 서예실, 2층 바둑실 배치 · 남녀 쉼터 구분 · 1층 바둑실 배치 · 성별 프로그램 선호를 반영하여 여자는 포켓볼장, 남자는 당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 분리(그러나 성별로 교차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 합창공연 동아리실은 탈의 가능한 곳으로 배치. 그 외에도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실 제공
강사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 노인 많은 고전무용반 남자 강사 채용 · 강사 채용 시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예시 항목 반영

성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조사대상 전체 중 17개소(56.7%)이다. 남자노인 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15개소, 여자노인 특화 프로그램은 6개소, 남녀 공통 특화 프로그램은 2개소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자노인 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특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노인의 경우 요리교실과 일상생활 자립 프로그램이 1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자노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진(가족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 2개소라는 점이 눈에 띈다.

여자노인 특화 프로그램은 남자노인에 비해 다양하며 황혼 육아와 고부갈등 정서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여자노인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원예치료교실과 기차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자 노인의 우울감을 완화하고 심리 상태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표 4-11〉 성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세부내용

구분	내용	개소수
남자 특화 (15)	· 요리교실	10
	· 남자 독거노인 대상 일상생활 자립 프로그램(요리교실, 신체건강 지원 서비스 등)	2
	· 사별 남자 자립 능력 향상 프로그램	1
	· 가족소통 프로그램	2
	· 색소폰 음악교실	1
	· 시니어 스쿨(매너, 패션 등)	1
	· 남성 선호 프로그램(장기·바둑교실, 당구교실, 골프교실 등)	4
여자 특화 (6)	· 여성 선호 프로그램(합창반, 핸드드립 커피교육, 한국무용, 라인댄스, 건강댄스)	4
	· 시니어 스쿨(매너 등)	1
	· 황혼 육아 프로그램	1
	· 1-3세대 교류 프로그램	1
	· 여자 독거노인 대상 원예치료교실	1
	· 여자 독거노인 대상 스마트폰 교육	1
	· 여자 저소득노인 대상 기차여행	1
남녀 공통 (2)	· 영양 특강	1
	· 고부갈등 정서지원 프로그램	1
	· 부부학교 양성평등교육	1
남녀 공통 (2)	· 시니어 스쿨(매너, 패션)	2
	·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2

주: 최대 3개까지 중복 응답에 대해 분석함.

제3절 노인복지관 이용자조사 결과

노인복지관 이용자 조사는 앞 절의 기관조사대상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300명에 대해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각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성 및 연령을 고려하여 10명을 선정하고 조사표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조사표는 밀봉하여 연구원으로 송부되었다.

조사내용은 노인복지관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성 역할에 대한 인식, 응답자 일반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노인복지관 이용 실태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 경로, 주 이용 시간대 및 교통수단,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수 및 대표자(반장) 성별, 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에서는 이용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시설 이용 관련 주요 항목별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성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남녀 회원의 의견 제시 여부, 개별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남자와 여자의 성비에 대한 태도, 성별 특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1. 이용자조사의 응답자 일반사항

이용자 조사의 응답자는 총 300명으로 남자는 116명(38.7%), 여자는 184명(61.3%)이고,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 거주자가 각각 36.7%이고,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26.7%이다. 응답자의 연령은 70~74세가 3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75~79세가 29.8%, 69세 이하는 22.7%, 80세 이상은 13.0% 등으로 70대가 전체의 3분의 2정도이다. 가구형태는 부부가구가 46.3%로 가장 많고, 1인가구(독거가구)는 35.6%, 자녀동거가구 15.8%, 기타가구 2.3%이며, 교육수준은 초등 이하가 35.1%, 고등학교 24.4%, 대학 이상 21.1%, 중학교 19.4%이다. 취업여부의 경우 비취업자가 76.1%였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45.6%로 응답자의 다수가 본인이 건강한 편이라고 답했다. 이상과 같은 응답자 일반특성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에 비하여 학력이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도의 긍정적 인식 비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표 4-12).

〈표 4-12〉 응답노인의 일반 사항

(단위: %, 명)

구분	전체	성별		지역별		
		남자	여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대도시	36.7	42.2	33.2	-	-	-
중소도시	36.7	39.7	34.8	-	-	-
농어촌	26.7	18.1	32.1	-	-	-
성별						
남자	22.7	-	-	44.5	41.8	26.3
여자	34.4	-	-	55.5	58.2	73.8
연령						
69세 이하	22.7	14.7	27.9	21.1	22.7	25.0
70~74세	34.4	33.6	35.0	34.9	33.6	35.0
75~79세	29.8	34.5	26.8	31.2	30.0	27.5
80세 이상	13.0	17.2	10.4	12.8	13.6	12.5
가구형태						
1인가구(독거가구)	35.6	28.1	40.2	33.3	33.6	41.3
부부가구	46.3	57.0	39.7	49.1	43.6	46.3
자녀동거가구	15.8	14.9	16.3	16.7	20.9	7.5
기타가구	2.3	-	3.8	0.9	1.8	5.0
교육수준						
초등 이하	35.1	23.3	42.6	29.4	34.5	43.8
중학교	19.4	9.5	25.7	18.3	14.5	27.5
고등학교	24.4	31.9	19.7	28.4	25.5	17.5
대학 이상	21.1	35.3	12.0	23.9	25.5	11.3
취업 여부						
예(취업)	23.9	23.5	24.2	20.6	22.7	30.0
아니오(가족 돌봄)	10.4	7.0	12.6	9.3	12.7	8.8
아니오	65.7	69.6	63.2	70.1	64.5	61.3
건강상태						
건강한 편이다	45.6	48.3	44.0	41.3	50.0	45.6
보통이다	41.6	41.4	41.8	49.5	43.6	27.8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2.8	10.3	14.3	9.2	6.4	2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0)	(116)	(184)	(110)	(110)	(80)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응답자의 성별로 제특성을 비교하면, 남자 응답자의 경우 여자 응답자에 비하여 대도시 거주(42.2%), 70세 이상(85.3%), 부부가구(57.0%), 고졸 이상학력 (67.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지역별 응답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농어촌지역에서 여자 응답자(73.8%)의 비율이 매우 높고, 연령계층은 비슷한 수준이다.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고 주관적 건강인식이 더 긍정적이며, 자녀동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농어촌지역은 1인가구(독거) 비율과 초등 이하의 교육수준, 취업자, 주관

적 건강상태가 부정적인 비율이 각각 더 높은 편이다.

2.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실태

노인복지관을 어떻게 알고 이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표 4-13>에서 이용 경로를 보면, 본인·가족·친구의 안내로 이용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60.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거주지 읍면·동 내에 시설이 있어서 21.3%, 주민센터직원·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소개 9.5%, TV·인터넷·소식지 등을 통해서 4.7%, 기타 4.4% 등의 순으로 사적 관계망에 의해 인지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 성별로는 남자는 주민센터직원·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소개(13.2%)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여자는 본인·가족·친구의 안내로 이용한다(62.1%)는 응답이 더 높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는 본인·가족·친구의 안내로 이용하게 되었다(64.5%)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고, 농어촌 지역은 거주지 읍면·동 내에 있어서(26.9%)라는 응답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시설 접근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짐작할 수 있다. 또는 농어촌지역은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도시지역에 비해 작아서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주로 언제인지 살펴보면, 종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높고, 오전 30.1%, 오후 23.4%, 기타 3.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는 오전(32.8%)에 주로 이용한다는 비율이, 여자는 종일(44.8%)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종일(48.2%) 이용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표 4-14).

〈표 4-13〉 노인복지관 이용 경로

(단위: %, 명)

구분	본인, 가족, 친구의 안내	주민센터직 원, 동장, 사회복지사 등의 소개	TV, 인터넷, 소식지 등을 통해서	거주지 읍·면·동 내에 있어서	기타	계	(명)
전체	60.1	9.5	4.7	21.3	4.4	100.0	(296)
성별							
남자	57.0	13.2	6.1	21.1	2.6	100.0	(114)
여자	62.1	7.1	3.8	21.4	5.5	100.0	(182)
지역별							
대도시	59.3	10.2	6.5	19.4	4.6	100.0	(108)
중소도시	64.5	10.0	2.7	19.1	3.6	100.0	(110)
농어촌	55.1	7.7	5.1	26.9	5.1	100.0	(78)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표 4-14〉 노인복지관 주 이용 시간대

(단위: %, 명)

구분	오전	오후	종일	기타	계	(명)
전체	30.1	23.4	43.1	3.3	100.0	(299)
성별						
남자	32.8	25.0	40.5	1.7	100.0	(116)
여자	28.4	22.4	44.8	4.4	100.0	(183)
지역별						
대도시	28.2	20.9	48.2	2.7	100.0	(110)
중소도시	31.8	26.4	37.3	4.5	100.0	(110)
농어촌	30.4	22.8	44.3	2.5	100.0	(79)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은 걸어서(36.9%)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대중교통(23.2%), 노인복지관(셔틀)버스(18.8%), 본인·가족·친구의 자동차(13.8%), 자전거(6.4%) 등의 순이다. 성별 차이를 보면, 남자는 자전거(14.7%) 또는 본인·가족·친구의 자동차(21.6%)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여자는 걸어서(41.8%) 또는 노인복지관(셔틀)버스(23.1%)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해 운송수단을 스스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걸어서(43.1%) 또는 자전거(11.0%)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은 대중교통 또는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대도시에 비하여 높은 편인데, 이는 대도시 지역은 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표 4-15).

〈표 4-15〉 노인복지관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자전거로	대중교통	노인복지관 (셔틀)차량	본인·가족, 친구의 자동차로	기타	계	(명)
전체	36.9	6.4	23.2	18.8	13.8	1.0	100.0	(298)
성별								
남자	29.3	14.7	22.4	12.1	21.6	-	100.0	(116)
여자	41.8	1.1	23.6	23.1	8.8	1.6	100.0	(182)
지역별								
대도시	43.1	11.0	17.4	23.9	4.6	-	100.0	(109)
중소도시	40.0	3.6	24.5	10.9	19.1	1.8	100.0	(110)
농어촌	24.1	3.8	29.1	22.8	19.0	1.3	100.0	(79)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3순위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첫 번째 이유에서는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 이용(28.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27.9%),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12.5%), 자원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참여(9.1%), 장기·바둑·탁구·게이트볼 등 오락(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16).

성별로는 여자의 경우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 이용(31.7%)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30.1%)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고, 남자의 경우는 장기·바둑·탁구·게이트볼 등 오락(12.3%) 또는 자원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참여(10.5%) 비율이 여자보다 더 높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17.6%)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중소도시는 장기·바둑·탁구·게이트볼 등 오락(11.8%), 농어촌 지역은 식사서비스 이용(12.7%)이 각각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다(표 4-17).

〈표 4-16〉 성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

구분	(단위: %, 명)		
	전체	남자	여자
첫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27.9	24.6	30.1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12.5	13.2	12.0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 이용	28.3	22.8	31.7
장기, 바둑, 탁구, 게이트볼 등 오락	6.7	12.3	3.3
자원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참여	9.1	10.5	8.2
(경로식당) 식사서비스 이용	5.7	5.3	6.0
일자리사업 참여	5.1	4.4	5.5
주간보호 등 기능회복 관련 서비스 이용	1.0	1.8	0.5
친목도모	3.4	4.4	2.7
기타	0.3	0.9	-
계	100.0	100.0	100.0
(명)	(297)	(114)	(183)
두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10.4	13.0	8.8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21.9	21.3	22.2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 이용	19.4	15.7	21.6
장기, 바둑, 탁구, 게이트볼 등 오락	6.1	7.4	5.3
자원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참여	12.9	8.3	15.8
(경로식당) 식사서비스 이용	11.5	15.7	8.8
일자리사업 참여	6.1	5.6	6.4
주간보호 등 기능회복 관련 서비스 이용	0.7	0.9	0.6
친목도모	9.7	10.2	9.4
기타	1.4	1.9	1.2
계	100.0	100.0	100.0
(명)	(279)	(108)	(171)
세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8.3	9.5	7.5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14.1	7.4	18.5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 이용	10.4	14.7	7.5
장기, 바둑, 탁구, 게이트볼 등 오락	4.6	5.3	4.1
자원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참여	12.4	9.5	14.4
(경로식당) 식사서비스 이용	15.4	17.9	13.7
일자리사업 참여	8.3	6.3	9.6
주간보호 등 기능회복 관련 서비스 이용	0.8	1.1	0.7
친목도모	23.2	24.2	22.6
기타	2.5	4.2	1.4
계	100.0	100.0	100.0
(명)	(241)	(95)	(146)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표 4-17〉 지역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

(단위: %,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첫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28.7	30.0	24.1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17.6	9.1	10.1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 이용	29.6	24.5	31.6
장기, 바둑, 탁구, 게이트볼 등 오락	3.7	11.8	3.8
자원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참여	9.3	10.9	6.3
(경로식당) 식사서비스 이용	1.9	4.5	12.7
일자리사업 참여	5.6	4.5	5.1
주간보호 등 기능회복 관련 서비스 이용	0.9	0.9	1.3
친목도모	2.8	2.7	5.1
기타	-	0.9	-
계	100.0	100.0	100.0
(명)	(108)	(110)	(79)
두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7.9	13.9	9.1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24.8	17.8	23.4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 이용	20.8	19.8	16.9
장기, 바둑, 탁구, 게이트볼 등 오락	4.0	5.9	9.1
자원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참여	18.8	12.9	5.2
(경로식당) 식사서비스 이용	8.9	15.8	9.1
일자리사업 참여	2.0	5.0	13.0
주간보호 등 기능회복 관련 서비스 이용	2.0	-	-
친목도모	7.9	7.9	14.3
기타	3.0	1.0	-
계	100.0	100.0	100.0
(명)	(101)	(101)	(77)
세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8.2	10.5	5.7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10.6	16.3	15.7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 이용	9.4	12.8	8.6
장기, 바둑, 탁구, 게이트볼 등 오락	7.1	1.2	5.7
자원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참여	14.1	14.0	8.6
(경로식당) 식사서비스 이용	18.8	12.8	14.3
일자리사업 참여	9.4	9.3	5.7
주간보호 등 기능회복 관련 서비스 이용	1.2	-	1.4
친목도모	16.5	20.9	34.3
기타	4.7	2.3	-
계	100.0	100.0	100.0
(명)	(85)	(86)	(70)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두 번째 주된 이유에서는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21.9%)이 가장 많고 그 다음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 이용(19.4%)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별 또는 지역별에서도 비슷한 경향이다. 한편 남자는 식사서비스 이용(15.7%), 여자는 자원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참여(15.8%)의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다. 대도시는 자원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참여(18.8%), 중소도시는 식사서비스 이용(15.8%), 농어촌은 친목도모(14.3%)와 일자리사업참여(13%)의 비율이 각각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다.

세 번째 주된 이유에서는 친목도모(23.2%)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남자(24.2%)와 여자(22.6%), 그리고 중소도시(20.9%)와 농어촌지역(34.3%)에서도 동일한 경향이지만, 대도시 지역은 식사서비스 이용(18.8%)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친목도모(16.5%)라고 응답하였다.

〈표 4-18〉에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에 대한 1-3순위 중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중복결과 분석에서도 순위별 결과와 유사하므로 설명을 제외하기로 한다.

〈표 4-18〉 성별 및 지역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1-3순위 중복)

(단위: %, 명)

구분	전체	성별		지역		
		남자	여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16.2	16.1	16.2	15.6	18.9	13.3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16.2	14.2	17.4	18.0	14.1	16.4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 이용	20.0	18.0	21.2	20.7	19.5	19.5
장기, 바둑, 탁구, 게이트볼 등 오락	5.9	8.5	4.2	4.8	6.7	6.2
자원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참여	11.4	9.5	12.6	13.9	12.5	6.6
(경로식당) 식사서비스 이용	10.5	12.6	9.2	9.2	10.8	11.9
일자리사업 참여	6.4	5.4	7.0	5.4	6.1	8.0
주간보호 등 기능회복 관련 서비스 이용	0.9	1.3	0.6	1.4	0.3	0.9
친목도모	11.4	12.3	10.8	8.5	9.8	17.3
기타	1.3	2.2	0.8	2.4	1.3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상자수)	(297)	(114)	(183)	(108)	(110)	(79)

주: 첫 번째 응답자는 297명, 두 번째 응답자는 279명, 세 번째 응답자는 241명이고, 이들 응답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임.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수는 3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32.4%이며, 그 다음 4개와 5개 이상이 각각 21.1%이며, 2개 18.7%, 1개 6.7% 순이다. 성별로는 남자는 3개(37.9%)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나, 여자는 5개 이상(27.3%)이 남자(11.2%)보다 16.1% 포인트 더 높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4개 또는 5개 이상의 비율이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표 4-19).

〈표 4-19〉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수

(단위: %, 명)

구분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	(명)
전체	6.7	18.7	32.4	21.1	21.1	100.0	(299)
성별							
남자	9.5	20.7	37.9	20.7	11.2	100.0	(116)
여자	4.9	17.5	29.0	21.3	27.3	100.0	(183)
지역별							
대도시	4.5	18.2	30.0	23.6	23.6	100.0	(110)
중소도시	8.2	19.1	34.5	20.0	18.2	100.0	(110)
농어촌	7.6	19.0	32.9	19.0	21.5	100.0	(77)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주로 참여하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대표자(반장) 성별을 보면, 남자와 여자 비슷하다(31.4%)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주로 여자가 한다(26.4%), 주로 남자가 한다(24.3%) 등으로 양성평등한 수준으로 이해된다(표 4-20). 성별로 응답결과를 보면 여자노인은 주로 여자가 한다(34.8%)고 응답한 비율과 남자와 여자 비슷하다(33.7%)라고 응답한데 비하여, 남자는 주로 남자가 한다(44.3%)고 상반된 응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절의 관리자 조사표에서 파악된 것처럼, 남자노인이 선호하는 프로그램과 여자노인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남자노인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는 참여자 중 남자비율이 높아 남자가 대표자 또는 반장이 되고, 여자노인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는 참여자 중 여자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로 여자가 대표자(반장)이 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남자와 여자 비슷하다(38.5%), 중소도시는 주로 남자가 한다(30.9%), 농어촌은 주로 여자가 한다(28.6%) 또는 대표자가 없다(10.4%)는 응답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표 4-20〉 주로 참여하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대표자(반장) 성별

(단위: %, 명)

구분	대표자 (반장)가 없다	주로 남자가 한다	주로 여자가 한다	남자/여자 비슷하다	잘 모르겠다/ 기타	계 (명)
전체	6.1	24.3	26.4	31.4	11.8	100.0 (296)
성별						
남자	5.2	44.3	13.0	27.8	9.6	100.0 (115)
여자	6.6	11.6	34.8	33.7	13.3	100.0 (181)
지역별						
대도시	1.8	24.8	27.5	38.5	7.3	100.0 (109)
중소도시	7.3	30.9	23.6	25.5	12.7	100.0 (110)
농어촌	10.4	14.3	28.6	29.9	16.9	100.0 (77)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표 4-21〉에서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 반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렇다’(53.5%)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6.7%)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고, 16.8%는 ‘잘 모르겠다’, 22.9%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자(59.1%)가 더 긍정적이고, 지역별로는 도시지역(58.2%, 56.9%)이 농어촌지역(42.3%)에 비하여 긍정적 응답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이용자 의견 반영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23.1%) 또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25.6%)는 비율이 도시 지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표 4-21〉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의견 반영 및 결과 확인 가능 여부

(단위: %, 명)

구분	의견 제시			의견 제시한 적 없다	계 (명)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53.5	6.7	16.8	22.9	100.0 (297)
성별					
남자	59.1	6.1	12.2	22.6	100.0 (115)
여자	50.0	7.1	19.8	23.1	100.0 (182)
지역별					
대도시	56.9	5.5	16.5	21.1	100.0 (109)
중소도시	58.2	6.4	12.7	22.7	100.0 (110)
농어촌	42.3	9.0	23.1	25.6	100.0 (78)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남녀 경제적 지불 능력에 대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항목으로 〈표 4-22〉에서 노인복지관 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프로그램 이용료 및 교통비, 식대 등)에 대한 부담 정도를 조사하였다. ‘부담이 없다’는 응답이 84.8%이고,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14.1%

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부담이 없다'(88.8%)는 응답이, 여자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 편이다'(14.9%)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일수록 '부담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즉 노인복지관 이용에 필요한 전반적 비용에 대하여 여자, 농어촌 지역에서 부담을 조금 더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2〉 노인복지관 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부담이 없다	조금 부담 되는 편이다	매우 부담스럽다	기타	계 (명)
전체	84.8	12.8	1.3	1.0	100.0 (297)
성별					
남자	88.8	9.5	0.9	0.9	100.0 (116)
여자	82.3	14.9	1.7	1.1	100.0 (181)
지역별					
대도시	87.0	12.0	0.9	-	100.0 (108)
중소도시	86.4	11.8	0.9	0.9	100.0 (110)
농어촌	79.7	15.2	2.5	2.5	100.0 (79)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3.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만족 정도에 응답한 비율을 합하여 조사응답자의 이용 프로그램 양으로 간주하고 그 비율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① (경로식당) 식사서비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②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댄스, 에어로빅, 요가 등),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한글, 영어, 컴퓨터, 스마트폰 등), ④ 취미여가 프로그램(악기, 서예, 그림, 노래 등), ⑤ 자원봉사활동, ⑥ 장기·바둑·탁구·게이트볼 등, ⑦ 일자리사업, ⑧ 동아리활동, ⑨ 정서생활지원(우울 및 자살예방, 죽음준비, 자조모임 등), ⑩ 상담(경제, 법률, 세무, 가족관계 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23).

이용하는 개별 프로그램의 만족률을 비교하면, ① (경로식당) 식사서비스(64.6%)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②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57.2%),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48.6%), ④ 취미여가 프로그램(46.8%), ⑤ 자원봉사활동(37.5%), ⑥ 장기·바둑·탁구·게이트볼 등(27.9%), ⑦ 일자리사업(33.4%), ⑧ 동아리활동(25.6%), ⑨ 정서생활지원(23.8%), ⑩ 상담(17.7%) 등의 순으로 만족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이용자도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별 불만족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하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관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혹은 불만족인) 노인 은 노인복지관 이용을 그만둔 상태이므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현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노인복지관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성별로 프로그램 만족률을 비교하면, 남자의 경우는 ① 식사서비스(73.9%) 만족률이 매우 높고,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49.1%), ③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46.5%), ④ 취미여가 프로그램(43.0%) 등의 순으로 만족률이 높는데 비하여, 여자의 경우는 ①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63.9%) 만족률이 가장 높고, ② 식사서비스(58.8%), ③ 취미여가 프로그램(49.2%), ④ 평생교육 프로그램(48.4%) 등의 순으로 남자는 식사서비스, 여자는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에 각각 상대적으로 만족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별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표 4-24〉에서 지역별 프로그램 만족률을 비교하면, 대도시 지역은 자원봉사활동(43.3%)과 동아리활동(34.9%) 만족률이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중소도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54.1%), 농어촌 지역은 식사서비스(72.2%)와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60.8%)에 각각 만족률이 더 높다.

〈표 4-25〉에서 노인복지관 이용에 대한 만족률을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거리(접근성) 및 교통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률은 69.5%이고, 시설 환경(공간, 구조, 설비, 위생 문제 등)은 70.4%,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다양성 63.4%, 참여 프로그램의 이용시간 63.7%, 참여 프로그램의 내용(질)에 대한 만족 72.8%,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과의 만남(관계 유지) 64.6%, 프로그램 이용료(설비, 재료비 등)의 적절성 67.8%, 의미있는 시간 보내기 76.0% 등으로 모든 영역에서 만족률이 60% 이상이며, 거리(접근성) 및 교통의 편리성에 대한 항목의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으나 그 비율은 5.4%로 낮은 수준이다. 모든 항목에서 여자의 만족률이 남자 보다 조금씩 더 높고,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거리(접근성) 및 교통의 편리성에 대해서 불만족률(13.9%)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 외의 모든 항목에서는 도시지역보다 만족률이 더 높은 69.6~8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시설이 실제적으로 더 좋은 수준인 것의 의미하기보다는 이용자의 기대수준에 비하여 만족률이 더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표 4-23> 성별 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

(단위: %, 명)

구분	이용			소계	미이용	계 (명)
	만족	보통	불만족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체	48.6	17.9	0.7	67.2	32.8	100.0 (296)
남자	49.1	21.1	0.9	71.1	28.9	100.0 (114)
여자	48.4	15.9	0.5	64.8	35.2	100.0 (182)
취미여가 프로그램						
전체	46.8	19.7	0.3	66.8	33.2	100.0 (295)
남자	43.0	21.1	-	64.0	36.0	100.0 (114)
여자	49.2	18.8	0.6	68.5	31.5	100.0 (181)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						
전체	57.2	15.2	-	72.4	27.6	100.0 (297)
남자	46.5	17.5	-	64.0	36.0	100.0 (114)
여자	63.9	13.7	-	77.6	22.4	100.0 (183)
장기, 바둑, 탁구, 게이트볼 등						
전체	27.9	18.9	1.3	48.1	51.9	100.0 (297)
남자	33.9	20.9	0.9	55.7	44.3	100.0 (115)
여자	24.2	17.6	1.6	43.4	56.6	100.0 (182)
동아리활동						
전체	25.6	20.5	0.3	46.4	53.6	100.0 (293)
남자	28.6	23.2	0.9	52.7	47.3	100.0 (112)
여자	23.8	18.8	-	42.5	57.5	100.0 (181)
자원봉사활동						
전체	37.5	21.2	-	58.7	41.3	100.0 (293)
남자	33.0	21.4	-	54.5	45.5	100.0 (112)
여자	40.3	21.0	-	61.3	38.7	100.0 (181)
상담(경제, 법률, 세무, 가족관계 등)						
전체	17.7	22.2	-	39.9	60.1	100.0 (293)
남자	18.0	27.0	-	45.0	55.0	100.0 (111)
여자	17.6	19.2	-	36.8	63.2	100.0 (182)
정서생활지원						
전체	23.8	18.7	-	42.5	57.5	100.0 (294)
남자	25.0	22.3	-	47.3	52.7	100.0 (112)
여자	23.1	16.5	-	39.6	60.4	100.0 (182)
(경로식당) 식사서비스						
전체	64.6	19.9	0.3	84.8	15.2	100.0 (2967)
남자	73.9	15.7	0.9	90.4	9.6	100.0 (115)
여자	58.8	22.5	-	81.3	18.7	100.0 (182)
일자리사업						
전체	33.4	13.3	-	46.8	53.2	100.0 (293)
남자	34.2	17.1	-	51.4	48.6	100.0 (111)
여자	33.0	11.0	-	44.0	56.0	100.0 (182)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표 4-24〉 지역별 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

(단위: %, 명)

구분	이용			소계	미이용	계 (명)	
	만족	보통	불만족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도시	48.6	16.5	0.9	66.1	33.9	100.0 (109)	
중소도시	54.1	22.9	-	77.1	22.9	100.0 (109)	
농어촌	41.0	12.8	1.3	55.1	44.9	100.0 (78)	
취미여가 프로그램							
대도시	49.5	21.1	-	70.6	29.4	100.0 (109)	
중소도시	41.3	25.7	0.9	67.9	32.1	100.0 (109)	
농어촌	50.6	9.1	-	59.7	40.3	100.0 (77)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							
대도시	56.5	16.7	-	73.2	26.9	100.0 (108)	
중소도시	55.5	19.1	-	74.6	25.5	100.0 (110)	
농어촌	60.8	7.6	-	68.4	31.6	100.0 (79)	
장기, 바둑, 탁구, 게이트볼 등							
대도시	23.9	22.9	0.9	47.7	52.3	100.0 (109)	
중소도시	30.9	20.0	1.8	52.7	47.3	100.0 (110)	
농어촌	29.5	11.5	1.3	42.3	57.7	100.0 (78)	
동아리활동							
대도시	34.9	22.6	0.9	58.4	41.5	100.0 (106)	
중소도시	20.2	25.7	-	45.9	54.1	100.0 (109)	
농어촌	20.5	10.3	-	30.8	69.2	100.0 (78)	
자원봉사활동							
대도시	43.4	19.8	-	63.2	36.8	100.0 (106)	
중소도시	38.5	25.7	-	64.2	35.8	100.0 (109)	
농어촌	28.2	16.7	-	44.9	55.1	100.0 (78)	
상담(경제, 법률, 세무, 가족관계 등)							
대도시	21.7	20.8	-	42.5	57.5	100.0 (106)	
중소도시	15.6	31.2	-	46.8	53.2	100.0 (109)	
농어촌	15.4	11.5	-	26.9	73.1	100.0 (78)	
정서생활지원							
대도시	26.2	20.6	-	46.8	53.3	100.0 (107)	
중소도시	20.2	24.8	-	45.0	55.0	100.0 (109)	
농어촌	25.6	7.7	-	33.3	66.7	100.0 (78)	
(경로식당) 식사서비스							
대도시	61.5	20.2	0.9	82.6	17.4	100.0 (109)	
중소도시	62.4	22.0	-	84.4	15.6	100.0 (109)	
농어촌	72.2	16.5	-	88.7	11.4	100.0 (79)	
일자리사업							
대도시	28.3	16.0	-	44.3	55.7	100.0 (106)	
중소도시	35.8	15.6	-	51.4	48.6	100.0 (109)	
농어촌	37.2	6.4	-	43.6	56.4	100.0 (78)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노인복지관의 만족도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여자노인과 농어촌지역노인은 상대적으로 현재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자노인과 농어촌지역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관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치가 높지 않아 현재 상황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25〉 성별 노인복지관 이용에 대한 만족 정도

(단위: %, 명)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계	(명)
거리(접근성) 및 교통의 편리성					
전체	69.5	25.2	5.4	100.0	(298)
남자	65.2	29.6	5.2	100.0	(115)
여자	72.1	22.4	5.5	100.0	(183)
시설 환경(공간, 구조, 설비, 위생문제 등)					
전체	70.4	27.9	1.7	100.0	(297)
남자	67.0	30.4	2.6	100.0	(115)
여자	72.5	26.4	1.1	100.0	(182)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다양성					
전체	63.4	34.9	1.7	100.0	(295)
남자	58.8	37.7	3.5	100.0	(114)
여자	66.3	33.1	0.6	100.0	(181)
참여 프로그램의 이용시간					
전체	63.7	33.9	2.4	100.0	(295)
남자	57.9	37.7	4.4	100.0	(114)
여자	67.4	31.5	1.1	100.0	(181)
참여 프로그램의 내용(질)에 대한 만족					
전체	72.8	26.9	0.3	100.0	(294)
남자	65.8	34.2	-	100.0	(114)
여자	77.2	22.2	0.6	100.0	(180)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과의 만남(관계 유지)					
전체	64.6	34.7	0.7	100.0	(294)
남자	63.7	34.5	1.8	100.0	(113)
여자	65.2	34.8	-	100.0	(181)
프로그램 이용료(설비, 재료비 등)의 적절성					
전체	67.8	30.8	1.4	100.0	(295)
남자	64.9	33.3	1.8	100.0	(114)
여자	69.6	29.3	1.1	100.0	(181)
의미있는 시간 보내기					
전체	76.0	23.6	0.3	100.0	(296)
남자	70.2	28.9	0.9	100.0	(114)
여자	79.7	20.3	-	100.0	(182)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표 4-26〉 지역별 노인복지관 이용에 대한 만족 정도

(단위: %, 명)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계	(명)
거리(접근성) 및 교통의 편리성					
대도시	68.8	30.3	0.9	100.0	(109)
중소도시	72.7	23.6	3.6	100.0	(110)
농어촌	65.8	20.3	13.9	100.0	(79)
시설 환경(공간, 구조, 설비, 위생문제 등)					
대도시	65.7	33.3	0.9	100.0	(108)
중소도시	70.0	26.4	3.6	100.0	(110)
농어촌	77.2	22.8	-	100.0	(79)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다양성					
대도시	58.5	39.6	1.9	100.0	(106)
중소도시	63.6	33.6	2.7	100.0	(110)
농어촌	69.6	30.4	-	100.0	(79)
참여 프로그램의 이용시간					
대도시	65.1	34.9	-	100.0	(106)
중소도시	57.3	38.2	4.5	100.0	(110)
농어촌	70.9	26.6	2.5	100.0	(79)
참여 프로그램의 내용(질)에 대한 만족					
대도시	72.0	28.0	-	100.0	(107)
중소도시	69.1	30.0	0.9	100.0	(110)
농어촌	79.2	20.8	-	100.0	(77)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과의 만남(관계 유지)					
대도시	61.0	39.0	-	100.0	(105)
중소도시	60.0	38.2	1.8	100.0	(110)
농어촌	75.9	24.1	-	100.0	(79)
프로그램 이용료(설비, 재료비 등)의 적절성					
대도시	67.3	32.7	-	100.0	(107)
중소도시	61.8	36.4	1.8	100.0	(110)
농어촌	76.9	20.5	2.6	100.0	(78)
의미있는 시간 보내기					
대도시	74.8	25.2	-	100.0	(107)
중소도시	70.9	29.1	-	100.0	(110)
농어촌	84.8	13.9	1.3	100.0	(79)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4.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성 역할에 대한 인식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 남자/여자 회원의 의견 제시 정도를 보면, ‘남자/여자 모두 그렇다’(77.9%)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성별 구분없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남자/여자 모두 그렇다’(83.6%), 여자의 경우 ‘잘 모르겠다’(16.5%)는 응답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고,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남자/여자 모두 그렇다’는 응답이 더 높다(표 4-27).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회원 의견제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여자노인과 농어촌지역 노인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해, 그리고 농어촌지역 노인은 도시지역 노인에 비해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수동적 혹은 수용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27〉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 남자/여자 회원의 의견 제시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자/여자 모두 그렇다	남자는 그렇다	여자는 그렇다	모두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명)
전체	77.9	2.3	3.7	3.4	12.8	100.0 (298)
성별						
남자	83.6	3.4	2.6	3.4	6.9	100.0 (116)
여자	74.2	1.6	4.4	3.3	16.5	100.0 (182)
지역별						
대도시	87.2	0.9	0.9	1.8	9.2	100.0 (109)
중소도시	77.3	2.7	6.4	5.5	8.2	100.0 (110)
농어촌	65.8	3.8	3.8	2.5	24.1	100.0 (79)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노인복지관의 개별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남자와 여자의 성비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성비에 상관없다’는 응답이 41.8%이고,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비슷한 것이 좋다’ 40.4%, ‘대다수가 여자인 경우가 좋다’ 15.8%, ‘대다수가 남자인 경우가 좋다’ 2.0%로 82.2%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표 4-28).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대다수가 여자인 경우가 좋다’(19.7%)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고,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대다수가 여자인 경우가 좋다’는 비율이 더 높는데 반해, 농어촌 지역은 ‘남자와 여자의 성비에 상관없다’(50.0%)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남녀의 대화 및 사고방식 차이와 개선 방법, 성희롱 예방교육 등 노인의 성별 특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고, ‘필요없다’는 32.4%, ‘그저 그렇다’는 30.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필요하다’(45.7%)는 의견이 절반정도로 높은 수준인데, 이는 여자(31.1%)에 비하여 14.6% 포인트 더 높은 비율이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표 4-29). 이러한 결과는 앞선 관리자 조사

표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과는 다르다. 노인세대(노인복지관 이용노인)는 청장년세대(노인복지관 직원)에 비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표 4-28〉 노인복지관의 개별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남자와 여자의 성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대다수가 남자인 경우가 좋다	대다수가 여자인 경우가 좋다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비슷한 것이 좋다	남자와 여자의 성비에 상관없다	계 (명)
전체	2.0	15.8	40.4	41.8	100.0 (297)
성별					
남자	3.5	9.6	47.4	39.5	100.0 (114)
여자	1.1	19.7	36.1	43.2	100.0 (183)
지역별					
대도시	1.8	19.3	37.6	41.3	100.0 (109)
중소도시	2.7	18.2	42.7	36.4	100.0 (110)
농어촌	1.3	7.7	41.0	50.0	100.0 (78)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표 4-29〉 노인의 성별 특성(남자/여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 없다	계 (명)
전체	36.8	30.7	32.4	100.0 (296)
성별				
남자	45.7	23.3	31.0	100.0 (116)
여자	31.1	35.6	33.3	100.0 (180)
지역별				
대도시	39.4	26.6	33.9	100.0 (109)
중소도시	37.6	33.0	29.4	100.0 (109)
농어촌	32.1	33.3	34.6	100.0 (78)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표 4-30〉에서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①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② 가사 일은 여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2개 항목으로 질문하였다. 먼저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상적이다’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렇다’가 43.7%로 가장 높고, ‘그렇지 않다’(28.8%)와 ‘보통이다’(27.5%)는 비슷한 수준으로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56.1%)가 여자(35.9%)보다 긍정적 응답이 약 20% 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고,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어촌(36.7%)

보다 약 10% 포인트 더 높은 수준으로 남자와 농어촌지역에서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가사 일은 여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는 ‘그렇지 않다’(61.6%)는 응답이 ‘그렇다’(15.1%)에 비하여 약 4배 더 높은 것으로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아 있으나 가사 일에 대한 부부 공동책임 의식은 강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가사 일에 대한 공동의식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52.8%)이 타 지역에 비하여 가사 일에 대한 부부 공동분담 의식이 더 낮은 수준이다.

〈표 4-30〉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명)
1)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전체	43.7	27.5	28.8	100.0	(295)
성별					
남자	56.1	25.4	18.4	100.0	(114)
여자	35.9	28.7	35.4	100.0	(181)
지역별					
대도시	46.2	28.3	25.5	100.0	(106)
중소도시	46.4	30.0	23.6	100.0	(110)
농어촌	36.7	22.8	40.5	100.0	(79)
2) 가사 일은 여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전체	15.1	23.3	61.6	100.0	(292)
성별					
남자	14.9	23.7	61.4	100.0	(114)
여자	15.2	23.0	61.8	100.0	(178)
지역별					
대도시	21.7	25.5	52.8	100.0	(106)
중소도시	8.3	24.8	67.0	100.0	(109)
농어촌	15.6	18.2	66.2	100.0	(77)

주: 각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제4절 소결

성인지적 관점에서 노인복지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노인복지관 30개소의 관리자 30명과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복지관의 지역유형은 대도시형(11개소), 중소도시형(11개소), 농어촌형(8개소)으로 구분하여 약 2개월 간(7월 18일 ~ 9월 23일)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표가 전수 회수되었다.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성별 등록인원은 남자와 여자 40:60의 비율이며, 성별 노인복지관 서비스 이용현황은 여자 노인의 구성비율이 최소 54.1%에서 최대 75.8%로 남자노인 보다 여자노인의 이용이 높은 편이었다(2015년말 기준).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등록인원 성별 구성(남녀 4:6)을 감안할 경우, 남자노인의 구성이 40% 이상인 서비스는 건강생활지원 중 체력단련실(49.1%), 복리후생(42.0%), 상담사업(41.2%), 사회참여지원 중 동아리클럽 활동 지원(49.4%)이다.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성별로 선호하는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프로그램별 성별 구성과 성별로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치하였다. 남자노인은 장기바둑과 서예반에서 참여구성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인기있는 프로그램 공동 1위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남자노인이 선호하고 구성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대부분 남자 노인이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여자노인은 가요/노래교실과 요가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며 여자 노인의 참여 구성비도 높았다. 그러나 관리자 조사표 분석과정에서, 노인복지관의 이용노인에 대한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별 분리 통계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 노인복지관은 모두 직원대상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노인에게도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노인복지관은 전체의 55.2%로 나타났다. 법적 기반으로 조직된 운영위원회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자비율이 70% 이상인 곳이 56.6%였다.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용노인의 성별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12개소(강의실 배치,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성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전체 17개소(남자특화 15개소, 여자특화 6개소, 남녀공통 2개소)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설문조사 결과,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6장 개선과제 도출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노인의 노인복지관 이용 경로를 살펴보면, 본인·가족친구의 안내로 이용하게 되었다(60.1%)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거주지 읍면동 내에 시설이 있어서(21.3%), 주민센터직원·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소개(9.5%) 등으로 사적 관계망에 의해 인지하게 되는 경향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는 주민센터직원·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소개(13.2%)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여자는 본인·가족친구의 안내로 이용한다(62.1%)는

응답이 더 높았다.

전체 노인이 노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종일(43.1%)이 가장 높고, 성별로는 남자 오전(32.8%), 여자 종일(44.8%)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수는 3개(32.4%)가 가장 높고, 그 다음 4개와 5개 이상(각각 21.1%)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3개(37.9%), 여자 5개 이상(27.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4개 또는 5개 이상의 비율이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성별로 프로그램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자는 식사서비스(73.9%), 여자는 건강관리 및 운동프로그램(63.9%)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성별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와 일치하였다.

남녀의 대화 및 사고방식 차이와 개선 방법, 성희롱 예방교육 등 노인의 성별 특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자에 비해 14.6% 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남자 45.7%, 여자 31.1%).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대도시 39.4%, 중소도시 37.6%, 농어촌 32.1%). 이러한 결과는 앞선 기관(관리자)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93.1%)과는 다른 양상이다. 노인세대(노인복지관 이용노인)는 청장년세대(노인복지관 직원)에 비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제 5 장

지역유형별 노인복지관 사례연구

제1절 대도시형 노인복지관

제2절 중소도시형 노인복지관

제3절 농어촌형 노인복지관

제4절 지역유형별 특성 비교

5

지역유형별 노인복지관 <<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지역유형별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을 사례로 제시한다. 지역유형은 우편 조사와 동일하게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사례연구 대상기관은 앞장에서 분석한 노인복지관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지역유형별로 2개 기관씩, 총 6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또한 대상기관은 성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연구진 논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사례연구는 2016년 9월 5일부터 2016년 9월 19일까지 기관 실무담당자와의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기관별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가량 소요되었다.

제1절 대도시형 노인복지관

1. A1노인복지관

가. 지리적 위치 및 인구

A1노인복지관은 서울특별시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A1의 관할 행정구 면적은 약 13km²로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며, 2015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전체인구는 23만 3,406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11만 8,965명이며, 여자 11만 4,441명이다. 즉 전체인구에서 성별 비율은 남자 51%, 여자 49%이다.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인 60세 이상 인구는 총 4만 3,29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8.5%이다. 남자노인은 2만 125명으로 46.5%, 여자노인은 2만 3,172명으로 53.5%이다. 여자노인이 남자노인 보다 7% 포인트 더 많다.

〈표 5-1〉 A1노인복지관 관할 행정구의 인구현황

(단위: 명, %)

전체인구수				노인인구수(60세 이상)				
계	남자	여자	성비	계	남자	여자	성비	전체인구 대비 비율
233,406	118,965	114,441	103.95	43,297	20,125	23,172	86.85	18.5
(100)	(51.0)	(49.0)		(100)	(46.5)	(53.5)		

주: 1) 2015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며, ()는 구성비를 의미함.

2) 노인인구수는 노인복지관 이용연령인 60세 이상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에서 2016.9.7.인출

나. 기관 운영

A1노인복지관은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건립하였다. 2000년 개관한 이후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A1노인복지관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역거주 노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노인의 여가활동지원과 각종 노인문제의 예방 및 치료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A1노인복지관의 직원 수는 총 31명이며 이 중 남자 10명(32.3%), 여자 21명(67.7%)이다. 서울의 다른 노인복지관에 비해 남자 직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조직도는 [그림 5-1]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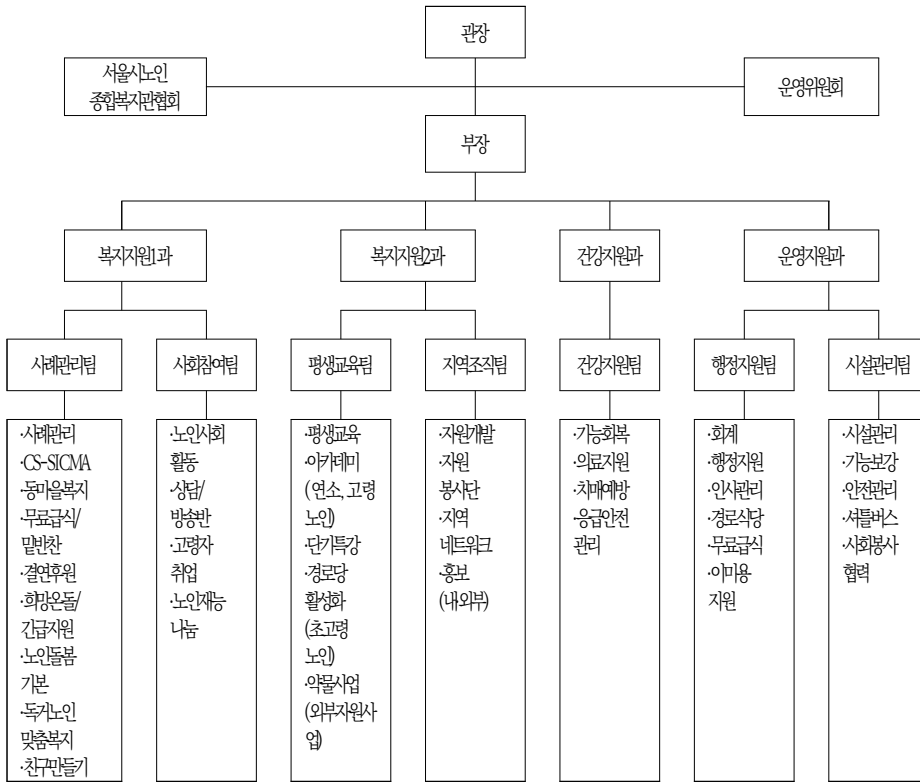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2,596㎡)이며, 대지면적은 2,266㎡이다(표 5-2). 지하 1층은 식당과 이미용실이 있으며, 지상 1층은 사무실과 데이케어센터, 체력단련실이 있다. 지상 2층은 강당과 회의실, 강의실, 쉼터가 있으며, 지상 3층은 교육실과 강의실, 컴퓨터실 등이 있다. 옥상과 옥외에는 야외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다.

A1노인복지관의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18시이며, 토요일은 9~13시이다. 그러나 취업알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17시까지 운영한다.

복리후생사업으로 경로식당(함지박)과 이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로식당은 매주 월~금요일 11:30~12:30, 2천 8백 원의 식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용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9:30~15:00, 2천 원~8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컷트와 일반파마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그림 5-1] A1노인복지관의 조직도



자료: A1노인복지관 내부자료

<표 5-2> A1노인복지관의 층별 시설현황

층별	면적(㎡)	사용도
지하 1층	834.8	전기실, 세탁실, 식당, 포켓볼장, 당구장, 나눔방, 전문상담실, 이미용실
지상 1층	578.3	기획총무과, 데이케어센터, 데이케어사무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건강상담실 안내데스크, 소회의실
지상 2층	798.9	작품실, 회의실, 솜씨방, 탁구실, 열린마당(강당), 사회복지과, 라온쉼터
지상 3층	393.8	정보열람실, 교육실 I, 교육실 II, 장애인독실, 컴퓨터실, 서예실, 관장실, 인터넷카페
옥탑	72.7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옥상	211.0	야외휴게실(옥상녹화공원)
옥외	-	소공원, 배드민턴장, 야외휴게실
주차장	149.5	장애인 1대, 일반 12대(총 13대)

자료: A1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2016.9.4. 인출

〈표 5-3〉 A1노인복지관의 아미용실 이용안내

요일	이용내용	이용료
월	컷트(남, 여)	
화	컷트(남, 여)	·남여 컷트: 일반 2,000원, 수급자 무료
수	파마	·파마: 일반 4,000원, 수급자 무료
목	파마	·영양파마: 일반 6,000원, 수급자 2,000원
금	염색, 컷트(남, 여)	·염색: 일반 6,000원, 수급자 3,000원 ·영양염색: 일반 8,000원, 수급자 5,000원

주: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는 자를 의미함.
 자료: A1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2016.9.4.인출

A1노인복지관은 관할 행정구 내 45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에서 여가 지원은 민요교실, 노래교실, 땃돌체조, 발마사지 등 상당수는 여자노인의 선호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경로당활성화사업이 여자노인 선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경로당 이용 여자노인의 프로그램 참여율과 호응도가 남자노인에 비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화된 것이다.

〈표 5-4〉 A1노인복지관 경로당활성화사업 주요내용

구분	세부 사업
여가지원	민요교실, 노래교실, 미술교실, 땃돌체조, 실버요가, 실버체조
건강지원	낙상예방교육, 방문진료, 발마사지, 안마, 서금요법, 의료거점
생활지원	물품지원, 환경개선
정보지원	운영신문, 게시판운영, 문자서비스, 생활교육
사례관리	상담, 실태조사, 사례회의, 계약체결, 경로당(복지관) 따라잡기
리더스 길잡이	임원리더교육모임
경로당 네트워크	강사관리, 실무자 간담회, 봉사자후원자 간담회, 세대통합 Bounce프로그램, 경로당 어울림한마당, 노년문화축제

자료: A1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2016.9.4.인출

A1노인복지관의 2015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이 총 32억 8,917만 원이다. 세입의 대부분은 보조금인데, 전체 세입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2.6%이다. 보조금을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경상보조금이 37.7%, 특정보조금이 40.1%이다. 세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업비(50.9%)이며, 그 다음은 사무비(36.3%)이다. 결산 세부내역은 〈표 5-5〉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5-5〉 A1노인복지관의 2015년 결산현황

(단위: 원, %)

세입			세출		
구분	금액	구성비	구분	금액	구성비
세입합계	3,289,167,675	100	세출합계	3,289,167,675	100
보조금		82.6	사무비		36.3
경상보조금	1,240,687,000	37.7	인건비	1,052,567,766	32.0
경로당보조금	77,752,000	2.4	운영비	134,370,710	4.1
기능보강보조금	50,202,000	1.5	업무추진비	6,160,000	0.2
특정보조금	1,346,952,390	41.0	사업비	1,674,424,674	50.9
전입금	16,790,000	0.5	재산조성비	186,240,035	5.7
기부금	182,163,501	5.5	잡지출	4,683,792	0.1
사업수입	105,577,190	3.2	반환금	151,630,565	4.6
잡수입	6,198,891	0.2	차년도 이월금	79,090,133	2.4
반환금	158,660,958	4.8			
전년도 이월금	104,183,745	3.2			

자료: A1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2016.9.4.인출

다. 지역 특성에 따른 기관 운영특성 및 이용자 현황

A1노인복지관은 접근성이 낮은 편이며, 하루에 다섯 번의 차량 운영을 하고 있다. 2015년까지 2대의 차량으로 운영하였으나, 운영의 어려움과 이용노인의 안전을 위해¹¹⁾ 현재는 1대의 차량만 운행하고 있다.

2015년 등록인원 기준으로 이용자 노인은 1만 3,434명이며 이 중 남자노인은 5,357명으로 39.9%, 여자노인은 8,077명으로 60.1%이다. 학력수준은 초졸 이하의 비율이 54.2%(중졸 이하 18.8%, 고졸 이상 27.0%)로 가장 높고, 연령은 75세 이상이 72.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용자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이다.

A1노인복지관은 최근 개설되는 신규 프로그램의 이용에 따른 실비를 받고 있다. 기존 프로그램은 이미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비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강좌나 기존 강좌 업그레이드 등으로 신규로 개설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 월 5천 원 내외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프로그램 등 전

11) 운전기사가 1명이므로 안전관리사도 기관 셔틀 차량의 운전을 하였으나, 안전관리사의 역할은 노인복지관에 상주하며 안전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안전관리사의 차량 운전업무를 중단함.

반적으로 노인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 이용률은 여자노인이 높은 편이지만 일반교양(52.9%)과 컴퓨터교실(57.9%), 탁구·게이트볼·포켓볼 등 체육(66.3%), 서예반(68.9%), 장기바둑(91.1%)은 남자노인의 이용비율이 높은 편이다.

성별로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남자노인은 순서대로 ① 역사교육(동북아시아 역사의 이해), ② 중국어, ③ 서예(한글, 한문)이며, 여자노인은 ① 에어로빅, ② 노래교실, ③ 우쿨렐레이다. 상대적으로 남자노인은 기본지식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정적인 프로그램을 선호하는데 반해, 여자노인은 동적인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A1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학력수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A1노인복지관의 관할 행정구는 서울지역에서도 여자노인의 학력수준이 낮은 편이기에 일반교양이나 언어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한편 A1노인복지관은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2016년부터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이 단종 복지관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지역 내의 다양한 세대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간 대여 이외에 지역주민을 위해 주말에 시설개방을 고려하였으나, 위험요소가 많아서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대신 세대통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A1노인복지관은 지역주민에게 노인복지관이 반드시 노인만 이용하는 곳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주안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라. 성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A1노인복지관은 성별특화프로그램으로 남자노인 대상의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인 ‘아버지학교’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 학교’는 기독교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하여 설계한 것으로, 은퇴 이후 노년기 본인의 역할이나 정체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남자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현재 12명이 집단상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인의 참여의사가 있는 노인 중, OT에서 실시한 미술치료 등 동적검사 결과와 직원 사례조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 스킬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가족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여자노인을 대상으로는 2016년 하반기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까지 스마트폰 교육은 주로 SK나 KT의 협조로 진행되어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A1노인복지관은 2015년 ○○대학 사회복지학과와 결연을 맺어 학생들로 구성된 스마트폰 교육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였으며, 여자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자독거노인 대상 스마트폰 교육은 스마트폰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 보다 문자와 메신저 등의 SNS의 이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여자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여성합창반을 2016년 상반기까지 운영하였지만, 현재는 중단한 상태이다. 여자독거노인집단 중에서도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의 다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¹²⁾ 따라서 현재는 여성합창반 대신 스마트폰교육을 통한 친구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다.

2. A2노인복지관

가. 지리적 위치 및 인구

A2노인복지관은 23개의 동으로 구성된 광역시 내에서 행정과 교육, 의료, 금융 중심지가 속한 행정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A2노인복지관의 관할 행정구는 녹지지역과 생태하천, 공간 등의 여가공간이 전체 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지역이기도 하다.

A2노인복지관이 소재한 행정구의 전체 인구는 45만 1,136명이며 이 중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각각 48.9%와 51.1%이다.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7만 6,229명이며, 여자노인이 4만 3,275명으로 남자노인 3만 2,954명에 비해 1만 321명, 즉 13.6% 포인트 더 많다.

12) 단순한 노래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합창반은 악보를 볼 줄 알아야 함. 학력수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이러한 스킬 차이가 매우 컸음.

<표 5-6> A2노인복지관 관할 행정구의 인구현황

(단위: 명, %)

전체인구수				노인인구수(60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비율
계	남자	여자	성비	계	남자	여자	성비	
451,136	220,574	230,562	95.67	76,229	32,954	43,275	76.15	16.9
(100)	(48.9)	(51.1)		(100)	(43.2)	(56.8)		

주: 1) 2015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며, ()는 구성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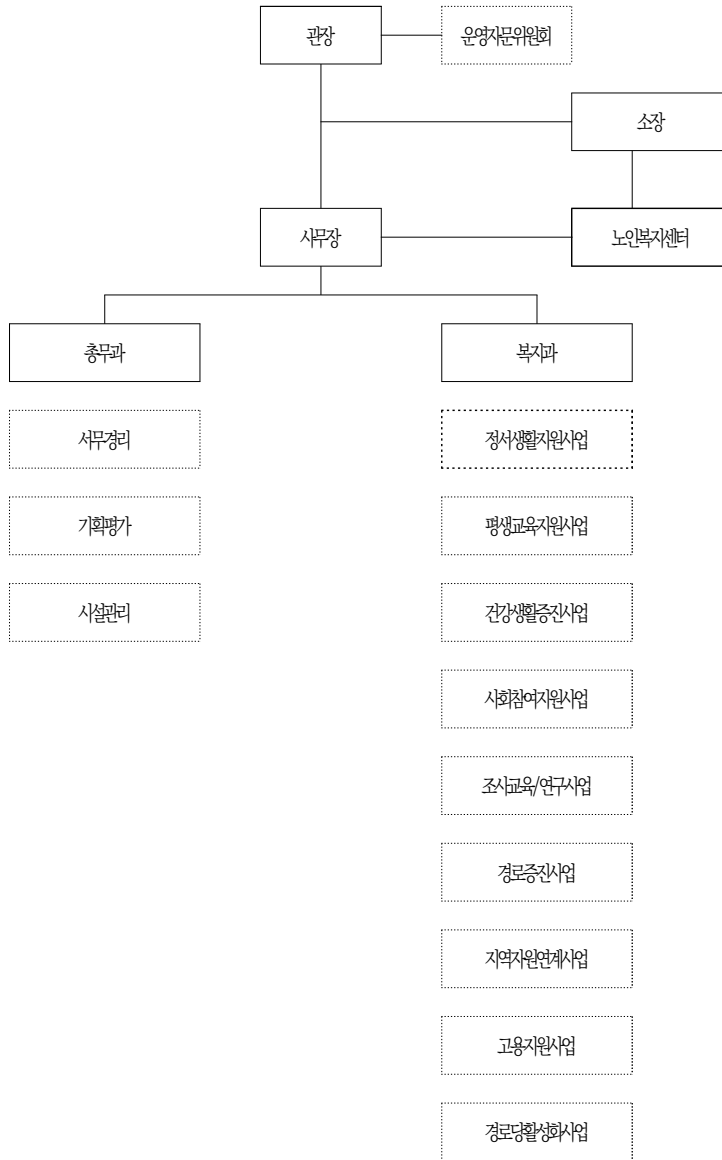
2) 노인인구수는 노인복지관 이용연령인 60세 이상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에서 2016.9.7.인출

나. 기관 운영

A2노인복지관은 관할 광역시의 지원으로 1995년 개관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A2노인복지관의 직원 수는 남자 8명, 여자 10으로 총 18명이다. 직원 중 남자비율은 44.4%, 여자비율은 55.6%이다. 조직도는 [그림 5-2]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5-2] A2노인복지관의 조직도



자료: A2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2016.9.8. 인출

〈표 5-7〉 A2노인복지관의 직원현황

구분	인원	구분	인원	구분	인원
관장	1	사무원	1	관리인	1
사무장	1	간호사	1	취사원	2
과장	1	물리치료사	1	계	18
팀장	1	영양사	1		
사회복지사	6	보일러기사	1		

자료: A2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2016.9.8.인출

A2노인복지관의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3,365㎡)이며, 대지면적은 6,700㎡이다. 지하 1층은 식당과 이미용실이 있으며, 지상 1층은 사무실과 노인복지센터, 체력단련실이 있다. 지상 2층은 강당과 회의실, 강의실, 휴게실이 있으며, 지상 3층은 교육실과 강의실, 컴퓨터실 등이 있다. 옥상과 옥외에는 야외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다.

〈표 5-8〉 A2노인복지관의 시설현황

층별	사용도
지하	탁구실, 전기실, 기계실, 자료실
지상 1층	사무실, 상담실, 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실), 강당, 휴게실, 안내실, 목욕탕
지상 2층	취미실, 서예실, 당구실, 장기실, 바둑실, 컴퓨터실, 휴게실, 상담실, 평생교육실 I·II·III
지상 3층	식당, 운동치료실, 야외활동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샤워실, 휴게실
부대시설	게이트볼장, 주차장, 야외 휴게시설

자료: A2노인복지관 내부자료

경로식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천 원, 이미용서비스는 정해진 요일에 한해 5백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급자는 경로식당과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미용서비스 이용자의 80% 이상은 남자노인이다. 한편 경로식당 이용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은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은 식비를 포함하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식 무료 이용은 이중 지원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50%를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표 5-9〉 A2노인복지관의 복리후생사업

구분	대상	내용	시간
경로식당 운영	이용회원	중식제공(1식 3찬 배식)	월~토, 12:00~13:00
이미용서비스	이용회원	지역단체 연계를 통한 이발, 컷트 제공	첫째주 목요일 10:00~12:00 셋째주 화요일 13:00~15:00
목욕탕 운영	저소득/수급자	샤워 및 온탕	매주 수,목,금 10:00~12:00
운동치료실	이용회원	각종 운동기구 활용을 통한 체력증진 및 건강체조교실 운영	9:00~18:00

자료: A2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2016.9.8.인출

A2노인복지관은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남자노인은 경로당활성화사업에 참여하기보다 TV시청과 장기바둑을 즐기는 편이다. 따라서 참여와 호응도가 높은 여자노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표 5-10〉 A2노인복지관의 경로당활성화사업 주요내용

구분	대상
웰빙건강교실	자력건강체조, 노인맞춤운동, 웰빙요가, 발건강교실, 국학기공, 치매예방체조
웰빙보건교실	물리치료
열린행복교실	민요교실, 가요교실, 댄스교실, 공예교실
노후역량강화교실	소식지만들기, 교양특강, 노후역량강화교육
뷰티블교실	환경정리안전점검, 환경개선대청소, 경로당가꾸기
행복나눔교실	야외학습, 어버이날 행사, 어울림한마당, 한가위행복나눔, 장수사진 촬영, 송년잔치
경로당관리사업	사례관리, 사업설명회, 책임자 간담회, 운영책임자 교육
자원관리사업	자원개발관리, 홍보사업, 후원물품전달, 강사 간담회, 만족도 조사

자료: A2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2016.9.8.인출

2015년 기준으로 A2노인복지관의 결산금액은 14억 8,039만 원이다. 시보조금이 전체 세입의 68.4%를 차지하고, 사업수입 16.6%, 후원금 11.1%이다. 세출은 사무비가 56.1%, 사업비 35.4%, 재산조성비 8.2%이다.

〈표 5-11〉 A2노인복지관의 2015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세입		구분	세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세입합계	1,480,387	100.0	세출합계	1,480,387	100.0
사업수입	246,126	16.6	사무비	830,465	56.1
보조금	1,013,297	68.4	재산조성비	122,071	8.2
후원금	164,459	11.1	사업비	523,945	35.4
이월금	50,659	3.4	잡지출	3,906	0.3
잡수입	5,846	0.4			

자료: A2노인복지관 내부자료

다. 지역 특성에 따른 기관 운영특성 및 이용자 현황

A2노인복지관은 관할 행정시에서 최초로 설립된 노인복지관이며, 관할 행정구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시 거주 노인이면 회원으로 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A2노인복지관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관할 행정구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이용율이 높은 편이다. A2노인복지관 관할 행정구의 노인이용자와 타 행정구 이용자의 비율은 약 60:40이다.

노인들이 익숙한 곳을 선호하는 경향과 맞물려, 1995년 개관 이후부터 A2노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노인 이용자 수는 상당수에 달한다. 이에 따라 A2노인복지관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80세로 높은 편이다(60~64세 0.5%, 65~74세 16.4%, 75세 이상 83.1%). 학력수준은 초졸 이하가 59.9%(중졸 이하 11.5%, 고졸 이상 28.7%)로 가장 많다.

A2노인복지관은 기존 이용자의 연령이 높기 때문에, 동일한 노인집단임에도 불구하고 60대 신규이용자의 경우 심리적 진입장벽을 가지고, 기관 이용을 꺼리거나 탈퇴하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A2노인복지관은 관할 행정시의 재정지원으로 2015년부터 예비노인층인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5060 베이비붐 후기인생 자아실현 프로젝트’라는 큰 틀에서 요리교실, 귀농학교, 취창업 및 인생설계 지원, 자조모임과 봉사단 조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경제활동에 참여중인 베이비붐후기의 참여를 고려하여 맞춤형 야간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 19:00~20:30, 14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과목은 귀농귀

촌아카데미, 경제플래너(풍수지리, 부동산실무, 생활법률), 웰빙라이프스쿨(한방건강교실), 친환경 EM창업교육(화학제품 NO!, EM생활활용법), 블로그/SNS 홍보 마케팅 등이며, 프로그램 참여자는 과목당 이용료(2만 원, 재료비 별도)를 부담한다. A2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이용료를 받고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최대 3강좌에 한해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노인도 가요교실과 주산, 한문고전, 명사특강, 문화공연 관람 등은 등록신청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게이트볼장과 당구실, 장기바둑실, 탁구실 등은 프로그램 등록 없이 자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A2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중에서 남자노인의 이용율이 50%를 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양방진료·한방치료·건강진료 등 건강상담(70.0%), 체력단련실(80%), 외국어교실(54.9%), 컴퓨터교실(63.6%), 서예반(83.3%), 장기바둑(99.9%)이다. 또한 2010년부터 노인성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경우 남자노인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용자 성별을 구분하여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남자노인은 ① 서예, ② 탁구, ③ 당구로, 여자노인은 ① 생활체조, ② 건강체조, ③ 파티댄스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상관없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운동참여형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2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성별에 따라 기관 이용에 차이가 있다. 남자노인의 일부는 하루 종일 기관에 머무르며 이용하는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귀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자노인은 가사활동 등으로 남자노인에 비해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남자노인 중 보다 오랜 기간 복지관에 머무르며 이용하고자 하는 요청을 받아들여, A2노인복지관은 야간과 공휴일에도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즉 A2노인복지관은 365일 연중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매일 8~18시까지이다. 다만 일요일은 9시부터 이용 가능하다.

성별에 차이는 없지만 과거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던 노인들은 서로 어울리고 '같이 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면, 최근 50~60대 예비노인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수업이 있지만, 기존의 연령이 많은 이용자와 함께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수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A2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을 50~60대와 70대 이상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라. 성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성별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를 여자노인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의 특성상 참여자의 대부분은 여자노인이다. 양육코칭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과 자녀 간의 양육방식 차이로 야기되는 갈등에 주목해, 손자녀 돌봄 노인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기획하였다. 여자 노인 중에서도 고학력·고소득층의 노인이 다수로 참여하고 있어 양육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전수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강해 응급처지와 의사소통, 동화 구연 등 이용자의 기대에 맞추어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남자노인을 대상으로는 가족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남자노인 중 일부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 추석과 같은 절기휴일에도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 찾는 경우가 있다. 절기휴일이 아닌 주말에 이용하는 노인도 80%가 남자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이 많은 남자노인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집단은 평생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최근 변화된 가족관계에서 자신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자노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남자노인들이 원만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족내에서 나의 역할 파악하기, 가족과 함께하는 노후계획 작성하기, 부부의 의사소통방법, 부부 역할극, 자녀와 대화방법, 나의 부모역할 체크, 세대공감 SNS대화법 등 이다. 16주 간의 프로그램 수료 후 남자노인의 가족들과 친해지려는 노력이 보이는 등 이용자의 변화와 만족도가 큰 프로그램이다.

또한 A2노인복지관은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50~65세의 퇴직남성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들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과거 남자가 요리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참여하기를 꺼렸으나, 최근 TV매체에서 요리하는 남자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요리하는 남자가 신세대라는 인식이 노년층에서 생기고 있다. 요리한 음식을 가족과 나누며 가족관계가 좋아지는 현상도 나타나는 등 이용자의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요리수업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

게 되었고, 더 발전하여 가족과 자녀를 위한 음식 만들기로 가족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A2노인복지관의 베이비붐 요리교실은 참여자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특징이 있다. 요리교실에 참여한 자를 남자독거노인과 1대 1로 매칭하여 함께 요리를 만들면서 상호간에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절 중소도시형 노인복지관

1. B1노인복지관

가. 지리적 위치 및 인구

B1노인복지관은 경상남도 중부남단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면적은 74만 7,670㎡이다. B1노인복지관 관할 행정지역은 인근의 시를 합한 통합시로, 5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B1노인복지관은 통합시 전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 등을 감안할 경우 통합 이전의 지역인 구 단위 기준으로 인구규모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B1노인복지관 관할 행정구의 인구는 18만 119명이며 이 중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각각 40.9%와 50.1%이다.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4만 1,398명이며, 여자노인이 2만 3,328명으로 남자노인 1만 8,070명에 비해 5,258명 더 많다. 즉 여자노인 비율이 56.4%로 남자노인 43.6%에 비해 12.8% 포인트 더 많다.

〈표 5-12〉 B1노인복지관 관할 행정구의 인구현황

(단위: 명, %)

전체인구수				노인인구수(60세 이상)				
계	남자	여자	성비	계	남자	여자	성비	전체인구 대비 비율
180,119	89,850	90,270	99.53	41,398	18,070	23,328	77.46	23.0
(100)	(49.9)	(50.1)		(100)	(43.6)	(56.4)		

주: 1) 2015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며, ()는 구성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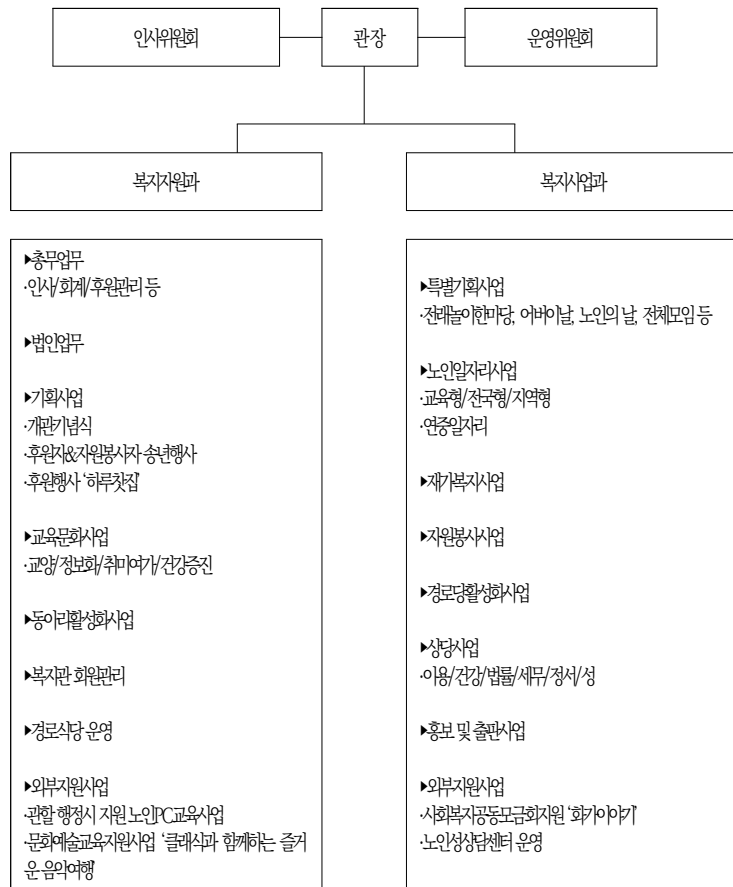
2) 노인인구수는 노인복지관 이용연령인 60세 이상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에서 2016.9.7.인출

나. 기관 운영

B1노인복지관은 지역의 사회복지법인이 2005년에 개관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B1노인복지관의 인원수는 총 14명이며 이 중 남자 4명(28.6%), 여자 10명(71.4%)이다. B1노인복지관의 조직도는 [그림 5-3]과 같다.

[그림 5-3] B1노인복지관의 조직도



자료: B1노인복지관 내부자료

B1노인복지관은 3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면적 1,298㎡, 건물연면적은 2,006㎡(야외휴게실 76㎡ 포함)이다. 동별 및 층별 시설현황은 <표 5-13>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5-13〉 B1노인복지관의 시설현황

층별	사용도		
	A동	B동	C동
지하	휴게실, 교육실	사회교육실, 컴퓨터실, 노래방	
지상 1층	사무실, 휴게실(정보화실), 화장실(남, 여), 안내데스크	서예실, 사회교육실, 화장실(남, 여), 야외휴게공간, 아리매점	노인복지센터
지상 2층	상담실, 신사방, 화장실(남, 여), 도서관	식당, 조리실, 자원봉사실, 화장실(남, 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상 3층	건강증진실, 목욕실, 숙녀방,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체력증진실	강당, 화장실(남, 여)	
지상 4층	강당, 화장실		
지상 5층	탁구장실 및 휴게실		

자료: B1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2016.9.8.인출

B1노인복지관의 2016년 상반기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입은 4억 2,039만 원이며, 총 세출은 3억 5,986만 원이다. 세입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보조금(55.8%)이며, 그 다음 전년도 이월금(14.8%), 사업수입(12.0%), 후원금(11.9%) 등의 순이다. 세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62.2%)이며, 그 다음은 사업비(23.9%), 관리비(12.9%) 등이다.

〈표 5-14〉 B1노인복지관의 2016년 상반기 결산현황

(단위: 원, %)

구분	세입		구분	세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세입합계	420,388,623	100.0	세출합계	359,856,456	100.0
사업수입	50,334,170	12.0	인건비	223,904,090	62.2
보조금	234,430,000	55.8	업무추진비	3,297,200	0.9
기타보조금	15,650,000	3.7	관리비	46,559,530	12.9
후원금	49,867,440	11.9	재산조성비	-	0.0
법인전입금	8,000,000	1.9	사업비	86,066,900	23.9
전년도이월금	62,099,197	14.8	반환금	28,736	0.0
기타수입	7,816	0	잡지출	0	0

자료: B1노인복지관 내부자료

다. 지역 특성에 따른 기관 운영특성 및 이용자 현황

2015년 말 기준으로 이용자 노인은 2,947명이며 이 중 남자노인의 비율은 30.2%, 여자노인은 69.8%이다. 개관 당시 남자노인의 비율이 매우 낮았으나, 노인복지관 운영과정에서 점차 증가한 결과이다. B1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65세 이상이 95.2%(65~74세 40.4%, 75세 이상 54.8%)이며, 고졸 이상의 학력이 33.9%(초졸 이하 38.3%, 중졸이하 27.7%)로 학력수준이 높은 편이다. 최근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전기노인의 신규회원 가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업별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문화사업은 ‘교양, 정보화, 취미·여가, 건강증진 등의 어르신 욕구에 맞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잔존능력을 유지하며 자기계발, 사회참여 유도를 통해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대 1인 5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하며(자율이용 프로그램 별도), 정원 초과 과목은 추첨을 통하여 수강생을 결정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1개만 신청한 경우 추첨 후 우선적으로 대기번호를 발급받는다. 프로그램은 한글교실을 제외하고 실비로 진행되는데, 프로그램별로 회기 당(5개월) 5천 원에서 1만 5천 원의 이용료를 지불한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재비와 재료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연속 4회 무단결석한 경우, 명단에서 자동 삭제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강의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설은 탁구장, 장기·바둑실, 체력단련실, 영화감상, 노래방이다. 자율입장프로그램은 별도의 수업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며, 노래교실(목요일11:00~12:00, 100명)과 민요교실(13:00~14:00, 60명)이 있다.

B1노인복지관에는 국악, 탁구, 밴드, 바둑,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가요 등의 분야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활동은 노인복지관 이용노인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자조적으로 조직하며, 이후 활동 또한 자조적으로 이루어진다.

B1노인복지관은 회원가입 후 매월 5천 원을 납부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9:00~18:00, 토요일은 9:00~15:00에 이용 가능하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은 회비 없이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B1노인복지관은 유료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B1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회원들은 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첫째 주 목요일 오후1시) 이용회원 전체모임이 있는데, 이때 특강을 개최한 후 20~30분 정도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공지사항에 대해 전달하고 이용자 노인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로식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40~12:30에 운영하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회원이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최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특성 변화가 포착된다. 기존 초창기 이용노인은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상관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노인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최근 신규이용자는 본인의 목적에 맞춰 필요한 수업에만 참여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규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경로식당을 잘 이용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남자노인의 참여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은 상담사업(48.8%), 동아리 활동 지원(41.3%), 컴퓨터교실(67.3%), 탁구·게이트볼·포켓볼 등 체육(55.7%), 그림·도자기·색종이접기 등 미술활동(45.3%), 서예반(60.0%), 장기바둑(69.2%) 등의 순이다.

이용자 성별을 구분하여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3순위까지 살펴보면, 남자노인은 순서대로 ① 탁구, ② 서예, ③ 컴퓨터 활용이다. 여자노인은 ① 요가, ② 노래교실, ③ 기체조이다.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해 신체적 움직임이 있는 동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3개의 시가 통합되었으나 통합 이전에 시별로 특수성을 띠고 운영하던 부분이 있어, 시 통합 이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을 통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수요자의 형평성 있는 서비스 수혜 측면에서 보편화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은 필수적 요소이나, 자생적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기관이 발전해 온 만큼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다.

라. 성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B1노인복지관은 성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남자노인 대상의 요리교실과 여자노인 대상의 영양특강이 있다. 또한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

성평등교육과 부부학교가 있다.

처음 남자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교실을 개설하였을 때 요리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으나 운영 3년 차인 현재는 요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고, 요리 후 함께 음식을 나누며 별도의 모임을 가지는 등 인기 프로그램으로 거듭났다. 요리교실 수강생들의 친분은 별도의 사교모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남자노인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남자노인이 스스로 음식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가사자립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이다. 만일 배우자가 사망하여 1인 가구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음식을 요리하여 사별 이후의 삶에 보다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남성 자립능력 향상을 주된 목표로 한다.

부부학교는 관할 행정시의 지원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부부 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 부부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참여대상을 반드시 부부로 한정하지는 않는다. 부부 중 한 명만이라도 부부학교에 참여가 가능하다.

양성평등교육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인성상담센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B1 노인복지관은 2009년부터 노인 성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2012년부터 노인성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성상담센터는 매년 이용자 노인 중 일부는 상담사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양성과정(성상담 강사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성상담사 양성과정은 '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졸 이상의 학력과 70세 이하라는 자격조건이 있다. 노인 성상담사는 노인복지관 내에서의 상담뿐만 아니라 이동 상담과 교육, 홍보사업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여자노인의 참여 비율이 높은 편이다. 성상담 교육내용에는 양성평등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양성평등교육은 관할 행정시와 연계하여 기관을 방문하여 한 달에 한 번의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B1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전 실시하는 신입회원교육에 양성평등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노인성상담센터는 노인 스스로 성에 대한 인식개선 뿐 아니라, 노인이 아닌 다른 연령층에서 노인을 바라보는, 노인의 성인식을 개선하려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표 5-15〉 B1노인복지관의 노인성상담 사업안내

구분	내용
상담사업	성, 웰-다잉, 가족갈등, 생활지원, 심리정서(우울·불안·고독·폭력·노년설계)
또래상담	찾아가는 또래상담
교육사업	또래노인전문성상담원 양성과정(노인성, 웰다잉) 매월 2월 모집(상담에 관심있는 어르신 10명) 문화컨텐츠 활용교육 찾아가는 노인성교육학교, 양성평등교육, 행복한 노인부부학교
홍보사업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배포, 성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카툰전시 및 대어
조사연구사업	성인식·성생활·부부관계만족도 설문지 조사

자료: B1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2016.9.9.인출

한편 B1노인복지관은 2016년 여자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니어기차여행을 구상 중이다. 이는 정서지원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까지 성별 구분 없이 시니어기차여행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여행을 경험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2016년 하반기에는 여자노인만을 대상으로 시니어 기차여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높지만 표현을 잘 못하거나 자신이 우울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과거 원예치료를 진행했었다. 원예치료의 대상을 성별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여자노인이 더 선호하는 프로그램이었다.

B1노인복지관에는 남녀 구분 휴게실을 제공하고 있다. 앞의 시설현황(표 5-13)에서 신사방과 숙녀방으로 제시된 공간이 성별로 구분된 휴게공간이다. 이 곳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 이용자 노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된다.

2. B2노인복지관

가. 지리적 위치 및 인구

B2노인복지관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관할 행정시의 지역면적은 13만 5,794km² (자연녹지 64.4%)이며, 17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주주민의 평균 연령이 33.1세로 경기도 평균 35.3세에 비해 젊은 편이다.

관할 행정시의 전체 인구는 39만 2,859명이며 이 중 남자 20만 5,582명, 여자 18만 7,277명이다. 성별 비율은 남자 52.3%, 여자 47.7%이다.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4만 2,679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비율이 10.9%이다. 성별로는 여자노인이 2만 3,482명으로 남자노인 1만 9,197명에 비해 4,598명, 즉 10% 포인트 더 많다.

〈표 5-16〉 B2노인복지관 관할 행정시의 인구현황

(단위: 명, %)

전체인구수				노인인구수(60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비율
계	남자	여자	성비	계	남자	여자	성비	
392,859	205,582	187,277	109.77	42,679	19,197	23,482	81.75	10.9
(100)	(52.3)	(47.7)		(100)	(45.0)	(55.0)		

주: 1) 2015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며, ()는 구성비를 의미함.

2) 노인인구수는 노인복지관 이용연령인 60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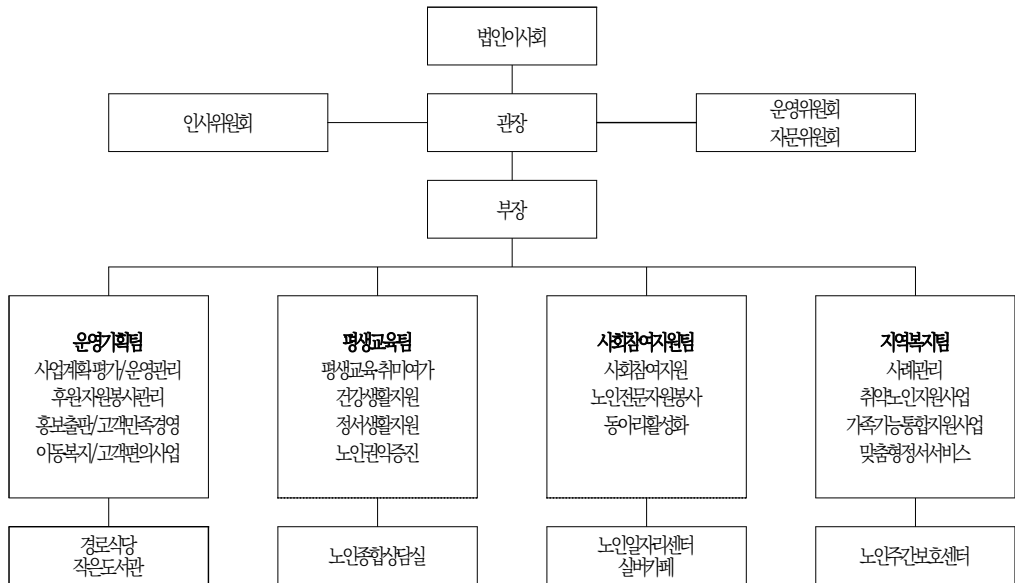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에서 2016.9.7.인출

나. 기관 운영

B2노인복지관은 2010년 관할 행정시에서 설립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B2노인복지관의 직원 수는 총 36명이며 이 중 남자 4명, 여자 32명이다. 직원의 성별 비율은 남자 11.1%, 여자 88.9%이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B2노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면적 3,578m²)이며 대지면적은 3,960m²이다. 지상 1층에는 경로식당과 실버카페, 지상 2층에는 상담실과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지상 3층에는 대강당과 강의실, 지상 4층에는 도서관과 실버카페가 있다(표 5-17).

[그림 5-4] B2노인복지관 조직도



자료: B2노인복지관 내부자료

<표 5-17> B2노인복지관의 시설현황

층별	면적(㎡)	사용도
지하	188.98	기계실, 전기실
지상 1층	1,100.36	노인회 지회, 경로식당, 실버카페
지상 2층	1,183.72	노인종합상담실, 노인일자리센터, 탁구장, 체력단련실, 미용실, 노래방, 짬질방, 샤워실, 운동기능회복실, 노인주간보호센터
지상 3층	1,111.59	작은도서관, 대강당, 평생교육강의실, 당구장, 바둑실, 한궁실
지상 4층	212.66	소강당, 운동교실, 강의실
옥탑	49.42	

자료: B1노인복지관 내부자료

이용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 9:00~15:00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1만 원에서 2만 원 가량의 수강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과목은 무료로 진행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유급 프로그램일지라도 각각 3과목과 2과목에 한하여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당구장과 바둑장기실, 한궁실, 노래방, 탁구장, 포켓볼장, 체력단련실 등은 등록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최근 B2노인복지관은 이용대상을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B2노인복지관은 세대통합 차원에서 노인복지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주간 및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방송재즈댄스와 요가, 다이어트 난타,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이 있으며, 프로그램별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B2노인복지관은 50~59세 장년층이 준회원으로 가입하면, 프로그램 정원의 10% 이내에서 수강 가능하다. 또한 B2노인복지관은 지역주민 모두 이용 가능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다. 지역 특성에 따른 기관 운영특성 및 이용자 현황

2015년 말 기준으로 이용자 등록인원은 5,413명이며 이 중 남자노인 2,010명(37.1%), 여자노인 3,403명(62.9%)이다. 이용자의 학력수준은 초졸이하 33.0%이다. 전체 이용자 중 75세 이상 비율은 37.7%이다. 이용자 성별을 구분하여 가장 있는 프로그램은 남자노인 ① 컴퓨터교실(한글중급), ② 당구(중급), ③ 탁구(중급) 순이다. 여자노인은 ① 가요교실, ② 포켓볼, ③ 인터넷(초급)이다.

B2노인복지관은 상담과 사회참여에 특화하여 기관을 운영 중이다. 매년 노인 상담사 40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과정수료 후 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상담사의 봉사활동은 신입회원 기본 상담과 함께 신입회원교육에서 양성평등과 성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다. B2노인복지관은 직원뿐만 아니라 이용자 노인 대상 양성평등 인식 제고 사업(프로그램,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B2노인복지관은 노인종합상담실을 운영하며, 노인자살예방과 성상담은 별도의 센터를 조직하여 운영 중이다. 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는 전문상담과 심리검사,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동 등을, 성상담센터에서는 성교육, 성상담, 노인 성인식개선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5-18〉 B2노인복지관의 노인종합상담실 사업안내

구분	내용
전문상담	부부, 자녀 갈등, 배우자 사별, 고독감, 우울감, 성상담 등
심리검사	스트레스, 우울증, 성격, 치매, 자살,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 등
교육사업	노노상담원 양성, 보수교육, 심화교육
홍보사업	생명존중서약, 생명존중 캠페인 등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 심리검사,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동 등
성상담센터	성교육, 성상담, 노인 성인식개선 활동 등

자료: B2노인복지관 내부자료

B2노인복지관의 사회참여사업은 다양한 동아리활동과 전문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B2노인복지관에는 당구, 탁구, 실버건강댄스, 바둑, 풍물, 포켓볼, 중창단 가곡동아리 등의 동아리가 있다. 시니어 동아리 활동은 이용자 노인이 결성 및 조직화하여 자조모임의 형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의 능력과 지역사회의 욕구에 적합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교육 및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파티플랜, 탁구, 기자단, 인형극단, 웰다잉 강사, 노인생애체험 활동, IT, 바리스타, 원예관리 등의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통해 봉사자를 양성하여 노인전문봉사활동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도서관 공유 등을 하고 있는 B2노인복지관은 베이비붐세대도 주요 이용자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노인집단 내에서도 연령 간의 욕구가 다양하고 차이도 매우 크기 때문에 50~60대는 자원봉사, 70대 이상은 프로그램 이용으로 방향을 잡고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기획의 일환으로 B2노인복지관은 2014년부터 55세 이상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참살이’ 강사양성과정을 거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참살이’는 잘 살고(well being) 잘 나이 들고(well aging) 잘 마무리 하는 것(well dying)을 의미한다. 생애마지막 단계로 누구나 거쳐야 하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현재의 삶을 아름답고 충실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죽음 준비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참살이 강사는 경로당과 복지관, 학교 등의 수요가 있는 곳에서 참살이에 대해 강의한다.

라. 성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이용자의 성별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다른 기관과 달리 당구장과 포켓볼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별 인기프로그램에서도 당구는 남자노인에게 인기가 있으며, 포켓볼은 여자노인에게 인기가 있다. 처음 당구장과 포켓볼장의 분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남자노인이 당구장의 사구대를 더 늘려주기를 원했던 욕구가 있었기에, 이에 대응한 것으로 현재 포켓볼의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B2 노인복지관에는 동아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아리 대표는 대부분 남자인 반면 포켓볼만 유일하게 여자이다.

B2노인은 남자노인 특화프로그램으로 요리교실을 5년째 운영하고 있다. 관할 행정도인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다.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배우자와 사별 후 세끼를 챙기기 어려운 독거남자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보통 사별 후 남자독거노인에게 밀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¹³⁾ 남자노인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요리교실을 기획하게 되었다. 남자독거노인 요리교실은 균형잡힌 식생활과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집단 간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스스로 요리하는 법을 익혀서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나아가 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관리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동년배와 함께 요리를 배우며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하고, 조리 실습을 통해서 도전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이 효과가 있었다.

B2노인복지관은 여자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기차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기차여행은 고독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노인, 특히 여자독거노인의 정서지원활동으로 정서적 지지와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했다. 2015년까지는 대상을 반드시 여자노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자의 대다수가 여자노인이었다. 2016년에는 대상을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보수적인 가족가치 속에서 생활한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13) 한번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매년 해당 서비스 지원의 우선대상은 될 수 없음. 또한 B2노인복지관은 1명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 보다 다양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무기력과 우울감이 높은 편이다. B2노인복지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동감 있는 노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위한 주도적인 여행지 선택과 친구들과 여행 일정 짜기, 다양한 미션수행 활동 등을 통해 여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높이고 친구관계를 맺어 정서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정서지원활동은 여행 대신 원예 등 다양한 활동 혹은 수단을 활용하여 운영하던 것이다. 기차여행은 이용자 노인의 호응과 성과(우울감 감소, 만족도 증가)가 좋은 프로그램이다.

제3절 농어촌형 노인복지관

1. C1노인복지관

가. 지리적 위치 및 인구 현황

C1노인복지관은 지역면적 631.9km² 중 산림이 82%를 차지하는 전원 농어촌지역에 위치한다. 관할 행정군은 전라북도에 속하며, 6개의 읍면(읍 1개, 면 5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C1노인복지관의 관할 행정군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2만 5,197명이며 이 중 남자 1만 2,481명, 여자 1만 2,716명이다. 즉 전체인구에서 성별 비율은 남자49.5%, 여자 50.5%이다.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인 60세 이상 인구는 총 9,187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36.5%를 차지하고 있다. 남자노인은 3,768명으로 41.0%, 여자노인은 5,419명으로 59.0%이다.

〈표 5-19〉 C1노인복지관 관할 행정군의 인구현황

(단위: 명, %)

전체인구수				노인인구수(60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비율
계	남자	여자	성비	계	남자	여자	성비	
25,197	12,481	12,716	98.15	9,187	3,768	5,419	69.52	36.5
(100)	(49.5)	(50.5)		(100)	(41.0)	(59.0)		

주: 1) 2015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며, ()는 구성비를 의미함.

2) 노인인구수는 노인복지관 이용연령인 60세 이상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에서 2016.9.7.인출.

나. 기관 운영

C1노인복지관은 관할 행정군 지원으로 2005년 하반기에 개관하였으며,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와 여성일자리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복지관이다. 개관 당시부터 동일한 사회복지법인이 C1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수는 총 8명이며 이 중 남자 3명(37.5%), 여자 5명(62.5%)이다.

C1노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3,063㎡)로, 대지면적은 3,754㎡이다. 지하 1층은 음악교실과 국악교실, 이·미용실 등이 있으며, 지상 1층은 안내실과 사무실, 소강당, 탁구장, 당구장, 상담실, 휴게실, 정보화교육장, 통합사무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지상 2층은 요리교실과 휘트니스 클럽 등 각종 프로그램실, 대강당 등이 설치되어 있다. 경로식당은 별관에 위치해 있다.

〈표 5-20〉 C1노인복지관의 층별 시설현황

층별	사용도
지하 1층	음악교실(노인/장애인/여성/다문화), 국악교실, 이·미용실
지상 1층	자원봉사실, 안내실, 안내데스크, 특수치료실, 집단활동실, 재활치료실, 재활상담실, 소품실, 소강당, 탁구장, 당구장, 상담실, 휴게실, 정보화교육장, 통합사무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지상 2층	관장실, 서예교실, 어학교실, 한글교실, 종이공예방, 직업적응훈련실, 요리교실, 휘트니스 클럽, 대강당, 운영지원팀사무실, 응급안전팀사무실, 언어발달치료실, 상담실
별관	경로식당

자료: C1노인복지관 내부자료

C1노인복지관의 주요사업과 사업별 대상은 〈표 5-21〉과 같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남자독거노인 신체건강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노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노인권익증진을 위한 인식개선교육과 관련 홍보계몽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표 5-21〉 C1노인복지관의 주요사업 및 사업별 대상

구분	사업내용	대상
평생교육지원	교양교실,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해피스쿨	노인
취미여가지원	미술, 한지공예, 풍물교실(사물놀이, 민요교실), 노래교실, 한국무용, 당구교실, 탁구교실, 게이트볼, 생활체조, 커피댄스, 댄스스포츠, 요가교실, 태권체조, 락락밴드, 난타교실, 파워업, 파크골프, 자율이용	노인
건강생활지원	아미용, 건강교육, 목욕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밑반찬/간식서비스, 김장김치서비스	노인 독거 및 재가노인
사회참여지원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동아리클럽활동지원사업	노인 (자원봉사자)
취약노인지원	햇라인연계구축, 남자독거노인신체건강지원	취약노인
노인권익증진	노인인식개선교육, 노인인권옹호사업(홍보계몽캠페인)	노인 및 지역주민
노인맞춤형운동처 방서비스사업	퍼스널트레이닝, 파워업근력향상프로그램, 운동요법, 기초체력측정, 체성분측정	노인
경로당 활성화사업	서금요법, 아미용서비스, 네일아트, 발마사지, 찜질서비스, 초뜸질서비스, 안마서비스, 상담, 간담회 및 선진지견학	경로당 회원

자료: C1노인복지관 내부자료

종합복지관은 공간을 공유하되, 업무에 따른 예산과 인원은 구분되어 있다. 2015년 C1노인복지관의 노인복지 부문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총 4억 5,233만 원이다. 결산 세부내역은 〈표 5-22〉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5-22〉 C1노인복지관의 2015년 결산현황

(단위: 원, %)

구분	세입		세출		
	금액	구성비	구분	금액	구성비
세입합계	452,331,340	100	세출합계	452,331,340	100
사업수입	3,200,000	0.7	인건비	261,356,250	57.8
보조금수입	352,240,000	77.9	업무추진비	8,468,500	1.9
후원금수입	75,556,920	16.7	운영비	47,740,990	10.6
법인전입금	16,000,000	3.5	시설비	6,978,710	1.5
이월금	4,206,226	0.9	사업비	123,338,660	27.3
잡수입	1,128,194	0.2	예비비 및 기타	67,333	0.0
			이월금	4,380,897	1.0

자료: C1노인복지관 내부자료

다. 지역 특성에 따른 기관 운영특성 및 이용자 현황

C1노인복지관 개관 초기에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청소 서비스나 밑반찬 배달, 재가노인 돌봄 등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C1노인복지관은 2011년부터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교육과 인권간담회, 노인인식 개선활동 등을 실시하는 등 인권교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청소 등의 1차적인 직접서비스는 지역의 다른 종교단체나 기관에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C1노인복지관의 차별화된 역할과 운영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년말 기준으로 이용자 노인은 3,346명이며 이 중 남자노인 비율은 35.8%, 여자노인 비율은 64.2%이다. C1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75세 이상이 70.8%이며, 초졸 이하의 학력이 84.1%를 차지하고 있다. 노년기 삶에서 여가와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욕구도 강하지 않은 편이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C1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은 이웃 간에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허물없이 지내고 있으며, 도시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도시 노인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용 노인의 성 고정역할이 강한 편이지만, 노인 서로 간에 친인척이거나 이웃인 경우가 많아서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성별 간 불편함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C1노인복지관은 농한기에 노인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용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와 같은 기관 차원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의 특성으로, 노인들은 5~10월에 농업에 종사하느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C1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번기 중에 일부 프로그램은 폐강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C1노인복지관은 50대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어촌지역 특성 상 실제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는 70대부터이기 때문에, 홍보에도 불구하고 50대 베이비붐세대의 참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베이비붐세대가 노년층으로 편입된 이후를 고려하여, 현재 노년층과는 상이한 이들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욕구조사 등을 실시 중이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은 시간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C1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강사 중 청장년층이 많지 않고 프로그램 강사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단체의 강사파견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일부 강사는 C1 노인복지관의 관할 행정군에 거주하지 않지만 직원의 인맥을 통해 모집되기도 한다. 또한 탁구와 서예교실 등 일부 프로그램은 역량있는 노인이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노인 강사의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대체인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용자 성별을 구분하여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성별에 상관없이 주로 신체적인 활동을 포함한 운동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았다. 즉 C1노인복지관의 이용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평생교육이나 정보화교실 보다는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성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노인은 ① 아코디언, ② 파크골프, ③ 커플댄스 순으로, 여자노인은 ① 생활체조, ② 요가, ③ 근력운동 순으로 나타났다. 근력운동은 운동처방사가 이용노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용노인 중심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활동으로 '두레'와 '파크골프 동아리'가 있다. 두레는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56명으로 조직한 자조적 후원모임으로, 구성원들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납부하여 C1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두레 회원 중 남자노인은 51.8%, 여자노인 48.2%에 비해 조금 더 많은 편이다.

파크골프 동아리 또한 인기 취미여가프로그램으로 복지관 이용노인 21명으로 조직된 자조모임이다. 파크골프 동아리에서는 동아리 차원의 경기, 행사, 친선경기 등을 추진하고, C1노인복지관 행사시 참여 또는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 파크골프 동아리 회원 중 남자노인은 42.9%, 여자노인은 57.1%이다.

혼자 식사가 어려운 노인 중 일부는 경로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경로식당은 C1노인복지관 회원이면 2천 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또는 8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다.

C1노인복지관은 도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1노인복지관에 위치한 관할 행정군에는 약 25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대한노인회의 추천과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1년에 15개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이동복지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운영, 체조강사지원, 이미용서비스 등이다. 또한 관할 행정군에 속한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미용서비스와 함께 이용노인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라. 성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C1노인복지관은 2014년부터 남자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신체건강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남자노인 특화 프로그램은 배우자 사별 후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 생활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을 보고 기획하였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남자독거노인을 복지관으로 모셔와 요리와 장보기 등에 대해 익히며 일상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자독거노인의 상당수는 복지관으로 오는 것을 꺼리거나 남자가 요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잘 운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는 복지관 직원이 남자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밑반찬을 배달하며 말벗이 되어주고, 발마사지와 안마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목욕서비스 지원 등의 신체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1노인복지관에서 여자노인 특화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이공예, 짚공예와 같은 공예교실 등 일부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모두 여자노인인 경우도 있다.

2. C2노인복지관

가. 지리적 위치 및 인구

C2노인복지관은 충청남도의 서쪽에 위치하였으며, 관할 행정시는 총 16개의 읍면동(1개의 읍, 10개의 면, 5개의 동)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이다. 이 중 C2노인복지관은 면 지역에 위치해 있다.

C2노인복지관의 관할 행정시의 전체인구는 10만 3,714명이며, 60세 이상 인구는 2만 9,19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8.1%를 차지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남자노인은 1만 2,570명으로 여자노인 1만 6,620명 보다 약 4,050명 적은 편이다. 노인인구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자노인은 43.1%로 여자노인 56.9%에 비해 13.8% 포인트 더 적다.

〈표 5-23〉 C2노인복지관 관할 행정시의 인구현황

(단위: 명, %)

전체인구수				노인인구수(60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비율
계	남자	여자	성비	계	남자	여자	성비	
103,714	52,417	51,297	102.18	29,190	12,570	16,620	75.63	28.1
(100)	(50.5)	(49.5)		(100)	(43.1)	(56.9)		

주: 1) 2015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며, ()는 구성비를 의미함.

2) 노인인구수는 노인복지관 이용연령인 60세 이상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에서 2016.9.7.인출.

나. 기관 운영

C2노인복지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역환원사업으로 댐 주변의 지역노인과 주민의 복지 및 복리증진을 위해 건립한 것이다. C2노인복지관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¹⁴⁾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설치하였다. 개관 후 2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C2노인복지관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2011년부터 학교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C2노인복지관의 직원 수는 총 10명이며 이 중 남자 4명, 여자 6명이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844㎡)로, 대지면적은 총 1,653㎡이다.

〈표 5-24〉 C2노인복지관의 층별 시설현황

층별	면적(㎡)	사용도
지하 1층	64	기계실
지상 1층	412	건강증진실, 쉼터, 경로식당, 작은도서관, 카페
지상 2층	368	사무실, 다목적실, 인터넷카페, 배움터, 상담실

자료: C2노인복지관 내부자료

14)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6과 같다(동법 제40조 제2항). 별표6은 부록2를 참조하기 바람.

C2노인복지관에서 대상별로 추진하는 사업은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건강생활지원, 가족기능지원, 작은도서관 등이 있다.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이며, 경로식당 또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표 5-25〉 C2노인복지관의 대상별 추진사업

대상	사업부문
노인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고용지원, 건강생활지원(기능회복지원, 건강증진지원, 경로식당, 밀반찬지원, 요양서비스), 정서생활지원, 사회참여지원, 경로당 혁신프로그램, 소득지원(경제금융교육)
가족	가족기능지원, 가족통합지원, 지역자원개발(미술활동/난타/아산재단 외부수탁사업 진행), 지역복지연계(행사 및 이미지 연계), 노인권익증진사업
노인복지관 조직	운영관리, 사업관리(차량서비스 및 센터 점검 등), 연구개발, 작은도서관

자료: C2노인복지관 내부자료

C2노인복지관의 2015년 운영 예산규모는 4억 4,118만 원이다. 세입의 대부분은 경상보조금으로 전체 예산의 92.9%를 차지한다. 후원금 수입은 전체 예산의 0.1%인 28만 8,790원이다. 세출은 사무비 73.4%로 가장 많고, 사업비 21.3%, 재산조성비 5.3%이다.

〈표 5-26〉 C2노인복지관의 2015년 예산 현황

(단위: 원, %)

구분	세입		구분	세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세입합계	441,178,500	100.0	세출합계	441,178,500	100.0
보조금수입	440,000,000	99.7	사무비	323,863,160	73.4
경상보조금	410,000,000	(92.9)	재산조성비	23,248,340	5.3
특별보조금	30,000,000	(6.8)	사업비	94,067,000	21.3
후원금수입	288,790	0.1	예비비	0	0
잡수입	889,710	0.2			

주: 2차 추경예산이 반영된 내용임.

자료: C2노인복지관 내부자료

다. 지역 특성에 따른 기관 운영특성 및 이용자 현황

C2노인복지관의 이용자는 2015년 말 기준으로 1,230명이며, 성별로는 남자노인 412명, 여자노인 818명이다. 즉 이용노인의 성별구성은 남자노인이 33.5%로 여자노인 66.5%의 2분의 1 수준이다. 그리고 이용노인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C2노인복지관은 이용자가 적은 이점을 활용하여 경로식당의 식비는 100%로 지원하고 있다.

C2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연령은 65~74세 42.7%, 75세 이상 55.8%이며 성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 즉 C2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은 후기고령자 중심으로,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C2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2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학력수준은 초졸 이하 72.7%, 중졸 이상 27.3%이며, 성별로 학력수준의 차이가 크다. 남자노인은 초졸 이하 48.3%, 중졸 이상 51.7%인 반면, 여자노인은 각각 85%와 15%이다. 즉 여자노인의 학력수준이 남자노인에 비해 낮은 편이다.

기관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C2노인복지관의 시설규모와 직원 수가 작은 편이다. 운영되는 프로그램 수가 많지 않고, 성별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분리가 확연하였다.

C2노인복지관에서 여자노인의 이용 비율이 90%를 넘는 것은 독거노인지원사업(92%), 한글교육(100%), 민요·장구(94.2%), 한국무용(100%)이다. 반면 장기와 바둑은 남자노인의 이용 비율이 100%이다. 성별로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 남자노인은 ① 장기바둑, ② 사물놀이를, 여자노인은 ① 노래교실, ② 한춤교실, ③ 민요교실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C2노인복지관의 개설 프로그램 수가 작기 때문에 드러난 특성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개설 프로그램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동일한 정보화교실사업 중에서도 인터넷 초급반은 여자노인이 많고, 인터넷 중급반은 남자노인이 많지만 분반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단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러한 남녀간 선호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C2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복지기관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보조에 의해 설립된 복지시설이다. 따라서 기존 복지시설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며, 댐 주변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C2노인복지관은

농어촌지역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인근 5개 읍면의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 수와 운행차량의 한계로 1개의 읍면에 주 2회 이상 차량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C2노인복지관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C2노인복지관의 지리적 위치 상 향후에도 동 노인복지관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운행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C2노인복지관의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 차량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C2노인복지관은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복지관은 한 달에 1회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찾아서 지역주민에게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라. 성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농어촌 지역 노인은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은퇴 개념없이 보다 늦은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노인은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과 체면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프로그램 이용선호도와 이용율에서 도시지역과 큰 차이를 보인다. 가령 남자노인은 비록 무학이더라도 한글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C2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이용에서 성별의 구분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을 뿐, 별도로 성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관 건립당시 건강증진실에 위치한 쉼터는 남녀를 구분하여 이용하도록 하였다. 쉼터에서는 간단한 안마기, 발마사지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기구 이용을 하면서 남녀 간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결과 남녀구분이 효과적이지 않아 현재는 쉼터 사용에 있어 남녀구분을 두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의 성별 구성이 항상 동일한 비율일 수 없으며, 기구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남녀 간의 불편이 생각만큼 크지 않은 이유로 쉼터의 성별 구분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C2노인복지관은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제고 관련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이용 중에 농어촌지역 특성 상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대해 가진 강한 성 고정관념을 종종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4절 지역유형별 특성 비교

1. 지역유형별 노인복지관 특성

노인복지관 운영현황과 이용자특성, 성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현황을 사례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표 5-27).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대도시, 중소도시)과 확연히 다른데, 그 이유는 농어촌지역의 인구규모와 인구구성,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인복지관 직원 특성이 도시지역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은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인구규모가 작다. 사례조사 대상 노인복지관 중 대도시의 경우는 관할 행정구의 인구 수가 22만 명과 23만 명이며, 중소도시는 관할 행정시의 인구 수가 18만 명과 39만 명이다. 농어촌은 관할 행정군의 인구 수가 2만 5천명과 10만 명으로 가장 작다. 노인인구 비율은 대도시 17%와 18%, 중소도시 11%와 23%, 농어촌 28%와 36%이다.

성별로는 농어촌지역의 남자노인의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조금 낮다. 대도시의 남자노인 비율은 43%와 46%, 중소도시 43%와 45%, 농어촌 41%와 43%이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노인복지관 종사 직원 수가 도시지역에 비해 작다. 중소도시와 대도시는 최소 14명, 최대 36명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의 직원 수는 8명과 10명이다.

지역별로 노인복지관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노인의 비율과 7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대도시지역이 가장 높고, 초졸 이하의 학력 비율은 농어촌지역이 가장 많다. 남자노인 비율은 대도시 38.1%와 39.9%, 중소도시 30.2%와 37.1%, 농어촌 33.5%와 35.8%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대도시(72.5%, 83.1%), 농어촌(55.8%, 70.8%), 중소도시(37.7%, 54.8%) 순이다. 초졸 이하의 학력수준은 농어촌 72.7%와 84.1%, 대도시 54.2%와 59.9%, 중소도시 33%와 38.3% 순이다.

〈표 5-27〉 지역유형별 특성비교

(단위: 명, %, %)

지역 유형	해당기관	전체 인구수	60세 이상 노인		시설 및 직원 특성			이용자 특성			성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전체인구 대비비율	남자 비율	시설 면적	직원수	남자 비율	남자 비율	초졸 이하 비율	75세이상 비율	
대도시	A1 노인복지관	233,406	18.5	46.5	2,596	31	32.3	39.9	54.2	72.5	남, 여
	A2 노인복지관	220,574	16.9	43.2	3,365	18	44.4	38.1	59.9	83.1	남, 여
중소도시	B1 노인복지관	180,119	23.0	43.6	2,006	14	28.6	30.2	38.3	54.8	남, 여
	B2 노인복지관	392,859	10.9	45.0	3,578	36	11.1	37.1	33.0	37.7	남, 여
농어촌	C1 노인복지관	25,197	36.5	41.0	3,063	8	37.5	35.8	84.1	70.8	남
	C2 노인복지관	103,714	28.1	43.1	844	10	40.0	33.5	72.7	55.8	-

노인복지관 제공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의 사업 수가 도시 지역에 비해 작고 프로그램도 다채롭지 못한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개별 세부 프로그램별로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분류 범위에서 성별로 프로그램 이용의 차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덧붙여 설명하자면, C2노인복지관의 성별 프로그램 이용 경향은 도시 지역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C2노인복지관의 이용노인수가 작고, 그에 따라 개설 프로그램 수가 작아서 개별 프로그램별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도시지역은 동일 영역의 프로그램이더라도 초급과 중급에 따라 성별 참여가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일 영역의 프로그램에서의 성별 분포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영역별 성별 특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성별 특화 프로그램에서도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지역에서는 남자(요리교실, 가족관계증진 등)와 여자(육아코칭, 기차여행, 고부갈등 정서지원 등)를 대상으로 성별 특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은 1곳에서만 남자노인(남자독거노인 신체건강지원) 대상 1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2. 도시지역 소재 노인복지관의 특성

법령 상의 이용연령과 실제 이용연령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의 노인만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노인은 70대 이상이다. 또한 최근 베이비부머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요청으로, 도시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는 50~60대의 베이비부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상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상 이용대상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이용연령을 50세 이상으로 명문화하여, 50대의 노인복지관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기존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의 학습 속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느린 편이기에, 노인 참여자만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50대 장년층은 이미 주민센터와 도서

관, 그 외 사회복지시설, 민간기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 이용연령은 현재와 같이 60세 이상으로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별도 예산 배정을 통해 50대 장년층 대상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0대 장년층 중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사회참여를 원하거나, 노년기 여가복지를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60대 노인 또한 경제활동을 점차 줄이면서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욕구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퇴근 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야간 개설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 일부 기관에서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노인복지관 운영방법 등에 대한 사례가 다른 노인복지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노인복지관에서 5천 원에서 3만 원까지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료는 강사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재료비·운영비 등에 미치지 못하여 실비 부담이라는 명목이 무색할 처지이다. 공여지책으로 일부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부족하여 강사 수를 줄이거나 주당 수업시간이나 수업횟수를 줄이고 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새롭게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집단의 프로그램 욕구는 더욱 다양하고 전문화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운영경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노인의 욕구에 맞추어 보다 전문화 및 다양화하여 이용료를 현실적인 수준까지 부담지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자체의 조례 등을 통해 프로그램 비용 징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노인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실비이용료를 징수하거나 이용료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인상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이 이용자 노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실비이용료 징수 또는 이용료를 현실에 맞춰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노인인식개선 등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농어촌 지역 소재 노인복지관의 특성

농어촌지역은 은퇴 개념 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늦은 나이까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낮은 특징이 있다. 농어촌지역 노인의 학력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 보다는 신체적 활동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은 농한기에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을 중심으로 노인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어촌지역 소재 노인복지관은 이용노인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도시 지역의 많은 노인복지관은 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거나(주로 대도시), 그렇지 않은 경우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 지원을 하고 있다(주로 중소도시).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리적 범위가 넓고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이용노인을 위한 차량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 소재 노인복지관의 이용자 수가 많지 않고, 예산 또한 충분하지 않아 이용노인 대상 차량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관은 지역특성에 맞춰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러한 전국 단위 공통사업유형은 단지 권장사항으로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두 곳의 사례조사기관은 모두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전국형 사업인 노-노 케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에 종사할 노인의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노-노 케어의 제공자와 수혜자가 동네에서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친인척이거나 이웃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웃 간에 기본적인 친분관계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속속들이 고민을 나누는 일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노-노 케어로서의 정서 지지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중 노-노 케어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로 살펴본 농어촌 지역 노인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평균 9명이다. 이는 노인복지법 상 직원배치기준인 7명을 조금 상회하며, 도시 지역(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평균인 25명과 비교하여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1항, 별표 7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이상, 물리치료사 1명, 사무원 1명, 조리원 1명, 관리인 1명이다. 최소의 인력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즉 종사자의 역량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면, 도농 간의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농어촌 지역 노인복지관의 종사자가 질 높은 노인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김정현, 2016, p.104). 따라서 농어촌 지역 소재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종사자 수 확대 등의 방안을 통해 도농 간의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노인복지관 운영 개선방안

제1절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법·제도 부문 개선 제안

제2절 노인복지관 운영과정상 개선 제안

제3절 개선과제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6

노인복지관 운영 개선방안 <<

본 장에서는 앞에서 실시한 기존문헌 분석과 법제적 검토, 우편조사 및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파악된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양성평등이 남녀의 차이를 감안하여 특정 성별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것에 주안을 두고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제1절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법·제도 부문 개선 제안

1. 노인복지관 시행규칙상 노인복지관 화장실 설치 기준 개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 1항에 의한 별표 7에서, <표 6-1>과 같이 노인복지관 시설설치 관련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은 1실 이상 설치(보건복지부, 2016a, p.89)’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실 이용에는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유형별 사례조사 결과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은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노인복지관 시설설치 기준을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표 6-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노인복지관 시설기준 수정(안)

구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현행	1	1	1	1	1	1	1	1

↓

수정(안)	1	1	1	1	1	남녀, 각 1	1	1
-------	---	---	---	---	---	---------	---	---

참고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법률 제14282호, 2016.12.2. 일부개정)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1항에서는 남녀화장실을 구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나아가 성별 차이를 반영하여 화장실 면적을 달리 정하고 있다.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일치되게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서 노인복지관 시설 기준도 〈표 6-2〉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는 ‘거실 또는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따라서 만일 노인복지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서 화장실 남녀구분 기준을 우선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의 노인복지관 시설기준 수정(안)

구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현행	1	1	1	1	1	1	1	1	1

↓

수정(안)	1	1	1	1	1	남녀 구분, 각각 1	1	1	1
-------	---	---	---	---	---	-------------	---	---	---

2. 노인복지관 수혜자 성별통계 생산 및 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노인복지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실시된 2015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는 〈표

6-3)과 같이 복지관 이용자 관리가 이용자 가입부터 종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표 6-3〉 2015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중 이용자 관리체계

<p>평가지표 'D1-1.이용자 관리체계'에서 평가내용은 다음의 4개의 항목을 점검하며, 이 중 해당되는 항목 개수에 따라 1점씩 최소1점에서 최대 4점까지 점수를 배점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기이용 상담을 통해 이용자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② 초기이용 상담시 파악된 욕구를 연 2회 이상 보고하고 사업운영에 반영한다 ③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관 및 서비스이용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④ 복지관 이용 중단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연1회 이상 보고하고 사업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노인복지관 우편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 일부 노인복지관에서는 이용노인의 등록 및 프로그램 이용현황 관리과정 등에서 성별로 구분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있었다. 노인복지관이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도록 하여, 운영과정상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중 이용자 관리체계는 〈표 6-4〉와 같이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표 6-4〉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중 이용자 관리체계 개선(안)

<p>평가지표 'D1-1.이용자 관리체계'에서 평가내용은 다음의 4개의 항목을 점검하며, 이 중 해당되는 항목 개수에 따라 1점씩 최소1점에서 최대 4점까지 점수를 배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기이용 상담을 통해 이용자정보를 <u>성별로 분리하여</u>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② 초기이용 상담시 파악된 욕구를 연 2회 이상 보고하고 사업운영에 반영한다 ③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관 및 서비스이용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④ 복지관 이용 중단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연1회 이상 보고하고 사업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중 '사업유형' 예시에서 특정 성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개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은 "남자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보건복지부, 2016a, p.94)"을 예시로 들고 있다.

이는 사업 안내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독거노인 중 신체건강 지원 대상을 남자로 한

정하도록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에 대한 예시에서 ‘남자’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으로 수정하거나, 예시로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인복지관 사례연구과정에서, 남자노인 중 배우자와 사별하여 독거노인이 되는 경우 가정에서 요리 혹은 음식만들기를 하지 못해 영양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기관 중에서 남자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었다. 그러나 여자노인도 배우자와 사별한 독거노인은 스스로를 위해 밥상을 차리기 귀찮아서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상태가 불균형한 식단으로 대충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거노인은 성별에 상관없이 영양상태를 포함한 신체건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에 대한 예시에 현재와 같이 “남자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을 살리고자 한다면, “여자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 혹은 “여자독거노인 영양관리 지원” 등으로 여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시를 함께 제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노인복지관 운영과정상 개선 제안

1.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성인지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노인복지관 운영의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관조사 결과 기관종사자의 양성평등 혹은 성인지, 성별 특성 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가령 성별 특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문항에서 ‘바둑장기’와 같은 프로그램은 남자노인이 대부분 이용하는 데, 이러한 이유로 남자 특화 프로그램으로 ‘바둑·장기’를 응답한 기관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에서 ‘바둑·장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에게 열려있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바둑·장기’는 성별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노인의 선호가 큰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성인지 또는 양성평등교육을 접할 때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상하며,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동료들 간에 성적인 이슈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교육 등으로 양성평등교육을 협소한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무엇이 양성평등인지, 혹은 무엇이 성인지적 관점인지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추가적인 제안으로 성인지적 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의 한 부분으로 할애한다면, 노인복지관의 운영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2.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성인지적 교육 실시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더라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이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운영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노인복지관 사례연구를 위한 종사자 면담에서,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이 이용노인 간에 양성평등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목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이용노인의 생애경험을 통해 습득된 전통적인 성 고정역할 인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은 노인복지관 종사자에 비해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응답하고 있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93.1%로 대다수지만 이용노인 스스로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36.8%이다.

이와 같이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노인복지관 종사자와 이용노인 간의 시각차는, 상대적으로 이용노인이 노인복지관 종사자에 비해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관 종사자 뿐 아니라 이용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한편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관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노인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노인인권교육 일정에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노인복지관은 이용노인 대상 성인지적 교육을 보다

빠른 시기에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인복지관 종사자 대상 성인지적 교육 교재 개발 및 배포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양성평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인지적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별 차이를 고려한 기관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은 노인복지관 이용에서 양성평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전통적인 성 고정역할을 강조하는 ‘시니어스쿨’이나 ‘매너스쿨’, ‘차밍스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성별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제시하는 등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5〉 성인지적 교육 교재 포함내용 예시

구분	내용
기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및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 · 운영과정에서 양성평등사항 점검의 필요성
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별 요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등으로 인해 성별로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별 형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와 이용자의 성비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이용자의 비율이 동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예산배분에서 성별 특성 반영여부 점검(이용자의 성비를 고려하여 예산배분, 성별 특화된 요구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등)

또한 기관 방문 사례조사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에 대한 구분이 가능한 경우라도, 노인복지관 종사자에게 성인지적 관점, 양성평등 등에 대한 개념은 아직 생소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노인복지관의 종사자가 동료 간 직장생활과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관 운영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이때 양성평등적인 사고는 어떤 것인지 쉽게 설명하는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클라이언트는 노인이라는 점에서

양성평등적이며, 연령통합적인 관점에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대상 성인지적 교육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표 6-5>에 제시되었다.

4. 장년층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배포

신노인의 특성 변화 뿐 아니라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노인복지관의 운영방안과 프로그램 등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장년층, 즉 베이비붐세대는 노인복지관 잠재이용자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베이비붐세대의 조기은퇴 증가로 노인복지관의 장년층에 대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즉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노인복지관이 베이붐세대를 포함하여 장년층의 고용지원 문제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역유형별 노인복지관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인복지관은 베이비붐세대 대상 취·창업 및 인생설계 지원 등 야간교육, 자조모임 및 봉사단 조직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고령화사회, 황혼돌봄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성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향후 성별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가령, 여자노인의 경우 남자노인에 비해 정신건강이 취약하고, 성인자녀의 동거여부를 떠나서 맞벌이 지원을 위해 가사활동과 손자녀돌봄에 대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남자노인은 여자노인에 비해 배우자 사별 후 일상생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인복지관 사례조사 과정에서, 여자노인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행, 황혼육아, 원예 등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일부 노인복지관에서 기획되고 있으며, 남자노인에게는 밑반찬 배달 같은 간접적 형태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에서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흐름이 포착되었다.

〈표 6-6〉 시대변화에 따른 성별 특화 프로그램 예시

구분	남자	여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배우자 사별 후 일상생활 자립 어려움 - 상대적으로 가족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정신건강 취약 - 자녀의 가사활동 지원, 손자녀 돌봄 등의 역할 요구
예시 프로그램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노인 요리 프로그램 - 사별 노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지원 - 요리반 친구를 통한 독거 노인 사회적 고립 예방 - 가족관계 개선 지원(부부 포함) - 장년층 노후준비 프로그램 - 은퇴 후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생활의 균형감을 유지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준비 - 가족관계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스스로 기획하는 여행 프로그램, 자연과 함께하는 원예 프로그램 -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 확인 및 우울감 해소 - 사회접촉 기회를 통한 정신건강 향상 - 황혼육아 지원 프로그램 - 손자녀돌봄을 위한 현대적 육아법 습득 - 육아 스트레스 관리 지원 - 스마트폰(SNS)을 이용한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독거노인의 친구만들기(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또한 지역 간 혹은 지역을 초월하여 우수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있지만, 신규 프로그램의 전 지역 확산에는 인프라 혹은 인력 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노인의 새로운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지역의 욕구가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는 장애요인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년층 성별 특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시상 및 자료집 제작·배포 등이 가능할 것이다.

6. 지역유형별 탄력적인 노인복지관 운영 강화

지역별로 산업환경과 노인의 욕구 등이 다양하므로, 이를 반영한 노인복지관 증점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관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주요 이유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노인복지관 사례연구에서 지역유형은 도농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시 지역은 향후 노인복지관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비노인을 포함한 보다 고급화된 내용에 대한 서비스요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도시지역은 장년층을 이용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의 야간운영에 대한 욕구도 확인되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은 노인복지관의 접근성이 낮아서, 교통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늦은 나이까지 농업에 종사하므로, 농번기 프로그램 운영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지역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복지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 운영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사업안내 등을 수정·보완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기존에 지역별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려는 활동이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6-7〉 지역유형별 노인복지관 특성

도시	농어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 이용수요 증가 예상 - 고급화된 서비스 욕구 확인 - 장년층을 이용대상으로 확대, 야간이용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물리적 접근성, 높은 교통지원 욕구 - 늦은 나이까지 농업에 종사 - 농번기 프로그램 운영 변화 필요

7. 노인복지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상담기능 강화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중복과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는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이 있다. 주민센터,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문화원 등의 공공 및 준공공기관, 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 등의 복지기관, 대한노인회 등의 이익단체를 비롯하여 수 없이 많은 기관이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정부 지원 특정 사업을 실시하면서 타 기관과의 경쟁으로 이용노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수요자인 노인의 수는 매우 한정적인데 반해, 공급자로 참여하는 기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기능 재정립에 대한 종사자 간 고민이 생기고 있다.

일부 노인복지관은 이미 '상담과 사례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상담과 사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복지관은 다른 기관에서도 손쉽게 제공가능한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피하고, 노인복지관이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노인대상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상담과 사례관리’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제3절 개선과제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이상 본 연구에서 도출한 노인복지관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요약하면 <표 6-8>과 같다.

한편 본 연구는 전체 노인복지사업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복지법 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이외에도 경로당과 노인교실이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347개소, 경로당 6만 4,568개소, 노인교실 13,77개소 설치·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이 명실 공히 최고이자 최선의 노인여가시설로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 받더라도, 경로당은 물량측면에서의 압도적인 우위에 있으며 접근성 또한 높기 때문에 노인복지관과 구분하여 독립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기 전, 향후 연구과제로 경로당의 특정 성별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표 6-8〉 특성장별영향분석평가 개선과제(안)

분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제도 기반 개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1항에 의한 별표7에 시설기준을 규정 - 노인복지관의 화장실은 1개로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화장실 이용에는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사례조사 결과,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은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각각 1개소 이상씩 설치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화장실 관련 시설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 노인복지관 시설기준의 개선 ① 노인복지관 화장실 설치 기준 현실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의 2.시설기준 개정) - 화장실 1개 → 남녀 각 1개씩 2개 <table border="1" data-bbox="524 460 677 1048"> <thead> <tr> <th>구분</th> <th>사무실</th> <th>식당 및 조리실</th> <th>상담실 또는 면담실</th> <th>접합실 또는 강당</th> <th>프로그래밍실</th> <th>회의실</th> <th>물리치료실</th> <th>비장애 해부실</th> </tr> </thead> <tbody> <tr> <td>현행</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r> </tbody> </table> ↓ <table border="1" data-bbox="698 460 764 1048"> <tbody> <tr> <td>개정안</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남녀 각1</td> <td>1</td> <td>1</td> </tr> </tbody> </table> ※ 노인복지법 시행안내에서 노인복지관 화장실 설치기준 현실화 반영(분관 포함)	구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담실	접합실 또는 강당	프로그래밍실	회의실	물리치료실	비장애 해부실	현행	1	1	1	1	1	1	1	1	개정안	1	1	1	1	1	남녀 각1	1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구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담실	접합실 또는 강당	프로그래밍실	회의실	물리치료실	비장애 해부실																					
현행	1	1	1	1	1	1	1	1																						
개정안	1	1	1	1	1	남녀 각1	1	1																						
○ 현재 노인복지관은 이용노인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 노인복지관은 초기이용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성별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용자 통계 정보를 제공할 때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 일부 노인복지관에서는 이용노인의 등록 및 프로그램 이용현황 관리과정 등에서 성별 구분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되는 노인복지관 평가에서, 성별분리통계 생산에 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음(P. 59) ○ 노인복지관 이용에 대한 성별 수혜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 노인복지사업 수혜자 성별통계생산 및 관리 ① 노인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성별 수혜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별 구분통계를 생산 및 공개 -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에 성별로 분리하여 이용자정보를 파악 및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P.59) ※ 2015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보장정책실, 보원 바우처관리본부 시설평가부																												

분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p>제도 기반 개선 (계속)</p>	<p>성별구분 통계가 필요함</p>	<p>평가지표 'D1-1.이용자 관리체계'에서 평가내용은 다음의 4개의 항목을 점검하며, 이 중 해당되는 항목 개수에 따라 1점씩 최소1점에서 최대 4점까지 점수를 배점하고 있음 ① 초기이용 상담을 통해 이용자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② ~ ④</p> <p style="text-align: center;">⇓</p> <p>평가지표 'D1-1.이용자 관리체계'에서 평가내용은 다음의 4개의 항목을 점검하며, 이 중 해당되는 항목 개수에 따라 1점씩 최소1점에서 최대 4점까지 점수를 배점하고 있음 ① 초기이용 상담을 통해 이용자정보를 성별로 분리하여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② ~ ④</p>	<p>모건복지부 노인정책과</p>
	<p>○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중 '사업유형' 예시에서 특정 성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확인됨. - '16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유형 중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생활 지원사업'(보건복지부, 2016a, p.94)에 관해 설명하면서, "남자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을 예시로 제시 - 사업안내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독거노인 중 신체건강 지원 대상은 남자로 한정하도록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p>	<p>3. 노인복지사업 관련 정부자료의 양성 평등 검토(P.153~154)</p> <p>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서 노인복지관 사업유형 예시 사항 수정 - 예시로 제시한 '남자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에서 '남자'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으로 수정 검토 - 또는 예시에 '여자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 추가 고려</p>	

분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p>성인지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p>	<p>○ 노인복지관 운영의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관조사에서 기관종사자의 양성평등 혹은 성인지, 성별 특성을 인식하는데 큰 차이가 있었음 - 성별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에서 '바둑장기'와 같은 프로그램은 남자노인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이를 두고 남자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음 - 무엇이 양성평등인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종사자가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함</p> <p>○ 노인복지관 운영 및 이용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원활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대상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함 -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노인복지관 운영 및 이용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음 - 노인복지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다고 확인됨(93.1%)</p> <p>○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양성평등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성인지적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음 - 성 고정역할을 강조하는 '시니어스쿨' 프로그램 운영하며, 이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성별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확인됨 - 본 연구의 기관방문 사례조사결과,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상당수는 성인지적 관점, 양성평등 등의 개념이 생소하다고 언급함</p>	<p>4. 노인복지관 관련자 성인지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p> <p>① 노인복지관 종사자 대상 성인지적 교육 실시 - 노인복지관의 대표와 직원의 성인지적 관점 정립을 위한 교육 실시</p> <p>②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대상 성인지적 교육 실시 -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노인인권교육내용 중에 양성평등교육 포함</p> <p>③ 전국 노인복지관에 성인지적 교육 교재 개발 및 배포 - 노인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적 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배포</p> <p>※ 성인지적 교육 교재 포함내용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787 1060 1179 1352">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기본내용</td> <td>· 성인지 및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 · 운영과정에서 양성평등사항 점검의 필요성</td> </tr> <tr> <td>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별 요구도</td> <td>·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등으로 인해 성별로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td> </tr> <tr> <td>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별 형평성</td> <td>· 대상자와 이용자의 성비 점검(성별 형평성이 남녀 이용자의 비율이 동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예산배분에서 성별 특성 반영여부 점검(이용자의 성비를 고려하여 예산배분, 성별 특화된 요구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등)</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기본내용	· 성인지 및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 · 운영과정에서 양성평등사항 점검의 필요성	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별 요구도	·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등으로 인해 성별로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별 형평성	· 대상자와 이용자의 성비 점검(성별 형평성이 남녀 이용자의 비율이 동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예산배분에서 성별 특성 반영여부 점검(이용자의 성비를 고려하여 예산배분, 성별 특화된 요구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등)	<p>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p>
구분	내용										
기본내용	· 성인지 및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 · 운영과정에서 양성평등사항 점검의 필요성										
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별 요구도	·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등으로 인해 성별로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사업 및 프로그램의 성별 형평성	· 대상자와 이용자의 성비 점검(성별 형평성이 남녀 이용자의 비율이 동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예산배분에서 성별 특성 반영여부 점검(이용자의 성비를 고려하여 예산배분, 성별 특화된 요구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등)										

분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p>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p>	<p>○ 신노인의 특성 변화 뿐 아니라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노인복지관의 운영방안과 프로그램 등에도 변화가 요구됨 - 베이비붐세대의 조기은퇴로 노인복지관에서 장년층에 대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노인 뿐 아니라 장년층의 고용지원에 대한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p> <p>○ 성별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 여자노인의 경우 남자노인에 비해 정신건강에 취약하고, 남자노인은 여자노인에 비해 배우자 사별 후 일상생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함 - 따라서 일부 노인복지관에서는 여자노인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행, 황혼음악, 원예 등의 특화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음 - 또한 남자노인을 대상으로는 과거 밀반찬 배달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에서 직접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특화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음</p> <p>○ 지역별로 산업환경과 노인욕구 등이 다양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노인복지관 중점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관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주요 이유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음 - 도시지역은 향후 노인복지관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비노인을 포함한 보다 고급화된 내용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확인됨 - 본 연구결과, 도시지역은 프로그램 다변화에 대한 욕구, 농어촌지역은 노인복지관 접근성 향상에 대한 욕구가 확인됨</p>	<p>5. 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다변화</p> <p>① 장년층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배교 - 잠재이용자인 장년층 대상 일·여가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p> <p>※ 베이비붐세대 대상 취·창업 및 인생설계 지원 등 야간교육, 자조모임 및 봉사단 조직 등(p.1116)</p> <p>② 고령화사회, 황혼돌봄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성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여자노인의 황혼음악부담 해소와 정신건강 프로그램, 남자노인의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요리 강좌 등</p> <p>※ 시대변화에 따른 성별 특화 프로그램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778 1048 1237 1274"> <thead> <tr> <th>구분</th> <th>남자</th> <th>여자</th> </tr> </thead> <tbody> <tr> <td>특성</td> <td>- 상대적으로 배우자 사별 후 일상생활 자립 어려움 - 상대적으로 가족 간의 사소통의 어려움</td> <td>- 상대적으로 정신건강 취약 - 자녀의 가사활동 지원, 손자녀 돌봄 등의 역할 요구</td> </tr> </tbody> </table> <p>예시 프로그램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노인 요리 프로그램 - 노인 스스로 기획하는 여행 프로그램, 자연과 함께하는 원예 프로그램 - 자립능력 지원 -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맞는 요리, 취미, 고령 예방 - 노인 사회적 고립 예방 - 가족관계 개선 지원(부부 포함) - 사회적응 기회를 통한 정신건강 향상 	구분	남자	여자	특성	- 상대적으로 배우자 사별 후 일상생활 자립 어려움 - 상대적으로 가족 간의 사소통의 어려움	- 상대적으로 정신건강 취약 - 자녀의 가사활동 지원, 손자녀 돌봄 등의 역할 요구	<p>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p>
구분	남자	여자							
특성	- 상대적으로 배우자 사별 후 일상생활 자립 어려움 - 상대적으로 가족 간의 사소통의 어려움	- 상대적으로 정신건강 취약 - 자녀의 가사활동 지원, 손자녀 돌봄 등의 역할 요구							

분야	분석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p>구분</p> <p>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층 노후준비 프로그램 - 은퇴후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 생활의 균형감을 유지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준비 - 가족관계 개선 지원 <p>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혼육아 지원 프로그램 - 손자녀돌봄을 위한 현대적 육아법 습득 - 육아 스트레스 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SNS)을 이용한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독거노인의 친구만들기(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p>③ 지역유형(도시지역, 농어촌)별 탄력적인 노인복지관 운영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유형별 노인복지관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p>6. 성별 특화 프로그램 보급 활성화</p>	
		<p>① 성별 특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시상 및 자료집 제작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로 선정된 성별 특화 프로그램이 전국 노인복지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p>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p>
		<p>7. 노인복지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p>	
		<p>① 노인복지관 상담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와 다른 복지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노인의 상담기능 강화 	<p>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p>
	<p>○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중복과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결과, 노인복지관의 경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상담과 사례관리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참고문헌 <<

- 권중돈, 임태영, 이은주, 김기수. (2010). 노인복지관의 여가매트릭스 모형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김정현. (2016).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의 지역 간 형평성추이(2008~2015년)-노인복지관과 주·야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권 3호. pp.91~108.
- 김종서, 남정걸, 정지웅, 이용환. (1982),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 김태주. (2002). 지속이론(Continuity)에 대한 고찰. 대구산업정보대학 논문집 제16집. p.309.
- 박영란, 권중돈, 손덕순. (2012). 100세 시대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박재간. (1997). 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인여가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보건복지부, 성결대학교. (2007).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성결대학교.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2014). 2015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2014.2.19. 전문건설회관.
- 보건복지부. (2016a).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I, II).
- 보건복지부. (2016b). 2016 노인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 2016 노인복지시설 현황, 각년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연구원. (2014). 2014 국민여가활동 조사.
- 오영희, 정경희, 변재관, 이윤경. (2002).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손현섭. (2015).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윤소영, 윤주, 박수정, 오세숙, 조아미, 지현진. (2009).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임병우, 서경석, 이호경, 권중돈, 배숙경, 이기민, 이옥자. (2007), 노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정경희, 선우덕, 오영희, 이윤경, 최인희, 양찬미.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정경희, 염주희, 황남희, 김정석, 이금룡, 오신휘.(2013). 중노년층이 삶의 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2015). 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전략. 이슈애포커스. 제300호(2015-32). 한

- 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윤경, 황남희, 김경래, 오신휘, 박보미, 신현구,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옥분. (2004). 발달심리학(전생애 인간발달). 학지사.
- 최성재. (2009). 수도권 지역 중년기 이후 세대의 노후생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29(1). pp. 329-352.
- 최현수, 김태완, 김문길, 양시현, 전세나, 박경희.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 통계청. (2015). 2015 고령자통계. 통계청.
- 허준수. (2002). 도시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2). pp. 227-247.
- 황남희. (2013). 한국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4(2). pp.36-29.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Norton.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oubleday.
- Iso-Ahola, S. E. (Ed.). (1980).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isure and recreation*.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Jenkins, K. R., Pienta, A. M., & Horgas, A. L. (2002). Activi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Research on Aging*, 24(1), 124-149.
- Lennartsson, C., & Silverstein, M. (2001). Does engagement with life enhance survival of elderly people in Sweden? The role of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6(6), S335-S342.
- Ljungquist, B., & Sundstrom, G. (1996). Health and social networks as predictors of survival in old age.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medicine*, 24(2), 90-101.
- Seppo E., Iso-Ahola(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V. W. Brown.

<인터넷 주소>

과천시 노인복지관 사업안내(<http://www.gcsilver.or.kr>, 2010.10.19.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6.10.19.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2016.9.7.인출)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https://ko.wikipedia.org/> 2016.5.4. 인출)

〈법령 정보〉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61호 (20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13호 (20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32호 (2016)
노인복지법, 법률 제13646호 (2015)
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12호 (2016)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10호 (198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89호 (2015)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3999호, (201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2016)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3369호 (201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05호 (201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15호 (2016)

〈원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World Value Survey (2010~2012). World Value Survey Wave 6.

부록 1.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998.7. 8. 조례 제1569호 제정

2011.3.16. 조례 제2161호 일부개정

가평군 (주민지원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평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16.>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가평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이라 하고, 위치는 가평읍 가평읍 가화로 161(읍내리 625-8)번지에 둔다. <개정 2011. 3.16.>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3.16.>

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 기념행사
2. 노인학교 설치·운영
3.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생활상담
4. 고용지원(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참여 사업(자원봉사 및 실버인력뱅크)
5. 재가노인복지사업
6.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제공 및 노인건강증진사업
7. 그 밖에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사무실 및 상담실
2. 회의실
3. 노인휴게실(오락실) 및 노인후생복지시설(취미교육실)

4. 주간 노인보호실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1. 3.16.>

제5조(인력 및 자격기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가평균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신설 2011. 3.16.]

제6조(위탁운영) ①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의 선정은 「가평균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가평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가평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자체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시는 군수의 사전협의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균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 3.16.>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제6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3.16.>

제8조(위탁의 정지 등)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16.>

1.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1. 3.16.>

2.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개정 2011. 3.16.>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1. 3.16.>

4. 복지관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1. 3.16.>

제9조(지도감독) ①군수는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1. 3.16.>

②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 ①가평균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은 복지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3.16.>

②관리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3.16.>

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소행이 불량한 사람 <개정 2011. 3.16.>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노인이 아닌 사람 <개정 2011. 3.16.>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1. 3.16.>
5. 그 밖에 복지관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1. 3.16.>

제12조(사용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3.16.>

제13조(사용료) ①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사람은 “별표”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3.16.>

②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16.>

제14조(운영비 보조)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

3.16.>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의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1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16.>

부칙 <제2161호, 201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노인복지회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관으로 본다.

부록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별표 6] <개정 2011.11.30>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

구분		세부 사업 내용
1. 지역 지원 사업	가. 소득증대 사업	1) 공동영농시설·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시설·농로·농업용수로 및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 2) 톱밥 등 수분 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사업 3)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 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생활기반 조성사업	1) 의료기구 및 구급차량 구입 지원 등 의료환경조성사업 2)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통학차·버스승차대기장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 3) 그 밖에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다. 댐 주변경관 활용사업	1) 둘레길, 자전거도로, 캠핑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댐 주변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사업 2) 그 밖에 댐 경관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2. 주민 지원 사업	가. 주민생활 지원사업	1) 주민건강진단, 의료보험료 지원, 고립주민 교통비 지원, 난방비 지원, 통신비 지원, 전기료 보조, 홍수 조절지 친환경영농지원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육영사업	1) 교육기자재·도서의 구입,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및 아동 급식비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의 육영(育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의 지원 사업	가. 댐저수사 용료 보조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에정자에게 납부하는 댐저수사용료를 보조하는 사업
	나. 홍보 및 부대사업	1) 지역문화행사 지원, 댐환경보전연구 지원, 농기구 수리, 댐 주변 고립지역 도선(渡船) 운영 지원, 자매부락 지원 등 대민 지원, 대 청결운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 2) 댐 주변 전망시설,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계류시설, 댐 및 지역문화 홍보시설, 전시·공연시설 등의 설치사업 3) 지역 홍보, 주민간담회, 댐 견학 등 홍보사업 및 지원사업협의회 운영 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비고: 각 사업의 내용에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조사, 계획, 연구, 시설의 유지·보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부록 3. 기관조사 설문지

2016년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노인복지관 관리자 조사표

기관번호	

(위의 네모칸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노인복지관 운영실태와 성별 이용 특성 등에 대해 간단히 여쭙보고자 합니다.

부장님(사무국장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셔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 완료된 관리자 조사표와 이용자 설문지를 취합하여 **2016.8.19(금)**까지 저희 연구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상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조사 담당부서: 인구정책연구실 ☎ (044) 287 - 8339 박신아 연구원

소재지 및 기관명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유형	① 대도시형 ② 중소도시형 ③ 농촌형
응답자 직위 및 성명	_____ , _____ 연락처 () _____ - _____

여성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각 질문항목에 기록하거나 응답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일반현황

1. 귀 기관 대표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 기관의 직원 성별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3개월 이상 모든 계약직 포함, 독거노인지원사업 생활관리사 제외)

계 _____ 명, 남자 _____ 명, 여자 _____ 명

3. 귀 기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지자체 직접운영

② 위탁운영(사회복지법인)

③ 위탁운영(종교법인)

④ 위탁운영(기타)

4. 귀 기관은 이용 어르신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하루에 차량운행을 몇 번 합니까
(※ 왕복 운행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없음(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이용노인 일반현황

5. 귀 기관의 이용 어르신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원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항목		성별		
		계	남자	여자
1) 등록인원(2015년 12월말 누적 기준)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2) 교육수준	초졸 이하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중졸 이하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고졸 이상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3) 연령집단	59세 이하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60~64세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65~74세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75세 이상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항목		성별		
		계	남자	여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예	_____명	_____명	_____명
	아니오	_____명	_____명	_____명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현황

6. 다음과 같은 서비스 중 귀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각 항목별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 2015년 12월말 실인원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수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실시 여부 및 연간 이용 인원수	
건강생활지원	물리치료(작업치료, 운동재활, ADL훈련 등)	①미실시 _____명	②실시 (계_____명, 남자_____명, 여자_____명)
	건강상담(양방진료, 한방치료, 건강교육 등)	①미실시 _____명	②실시 (계_____명, 남자_____명, 여자_____명)
	복리후생(이·미용, 경로식당, 밀만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①미실시 _____명	②실시 (계_____명, 남자_____명, 여자_____명)
	체력단련실	①미실시 _____명	②실시 (계_____명, 남자_____명, 여자_____명)
	독거노인지원사업	①미실시 _____명	②실시 (계_____명, 남자_____명, 여자_____명)
상담사업		①미실시 _____명	②실시 (계_____명, 남자_____명, 여자_____명)
정서생활지원(우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등)		①미실시 _____명	②실시 (계_____명, 남자_____명, 여자_____명)
사회참여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①미실시 _____명	②실시 (계_____명, 남자_____명, 여자_____명)
	동아리·클럽 활동 지원	①미실시 _____명	②실시 (계_____명, 남자_____명, 여자_____명)
고용 및 소득지원(노인일자리사업, 고령자취업지원사업, 취업교육 등)		①미실시 _____명	②실시 (계_____명, 남자_____명, 여자_____명)

7. 다음의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별 이용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2015년 12월말 실등록인원 기준입니다. 대표자(반장)이 있는지, 대표자(반장)이 있다면 성별에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프로그램 또는 분반별 프로그램에 대표자(반장) 수가 여러 명이라면, 남자와 여자 중 더 많은 성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실시 여부 및 연간 실등록 인원수	대표자 성별
			①남자, ②여자, ③없음
평생 교육	일반교양(인문학 등)	①미실시 ②실시 (계____명, 남자____명, 여자____명)	①, ②, ③
	한글 교육	①미실시 ②실시 (계____명, 남자____명, 여자____명)	①, ②, ③
	외국어 교육	①미실시 ②실시 (계____명, 남자____명, 여자____명)	①, ②, ③
	예비노인은퇴준비 프로그램	①미실시 ②실시 (계____명, 남자____명, 여자____명)	①, ②, ③
정보화 교실	컴퓨터 교실	①미실시 ②실시 (계____명, 남자____명, 여자____명)	①, ②, ③
	스마트폰 교육	①미실시 ②실시 (계____명, 남자____명, 여자____명)	①, ②, ③
취미 여가 프로 그램	건강증진(체조, 에어로빅, 요가 등)	①미실시 ②실시 (계____명, 남자____명, 여자____명)	①, ②, ③
	가요교실(가요, 가곡, 노래방 등)	①미실시 ②실시 (계____명, 남자____명, 여자____명)	①, ②, ③
	전통문화(민요, 시조, 풍물, 가야금 등)	①미실시 ②실시 (계____명, 남자____명, 여자____명)	①, ②, ③
	체육(탁구, 게이트볼, 포켓볼 등)	①미실시 ②실시 (계____명, 남자____명, 여자____명)	①, ②, ③
	무용(현대무용, 고전무용 등)	①미실시 ②실시 (계____명, 남자____명, 여자____명)	①, ②, ③
	미술활동(그림, 도자기, 색종이접기 등)	①미실시 ②실시 (계____명, 남자____명, 여자____명)	①, ②, ③
	서예반(한글, 한문, 서화, 사군자)	①미실시 ②실시 (계____명, 남자____명, 여자____명)	①, ②, ③
	장기, 바둑	①미실시 ②실시 (계____명, 남자____명, 여자____명)	①, ②, ③
	다도, 꽃꽂이, 채소가꾸기 등	①미실시 ②실시 (계____명, 남자____명, 여자____명)	①, ②, ③

부록 4. 이용자조사 설문지

2016년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노인복지관 이용자 조사표

기관번호		응답자 번호	

(위의 네모칸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실태와 만족도 등에 대해 간단히 여쭙보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셔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상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조사 담당부서: 인구정책연구실 (☎ 044) 287 - 8339) 박신아 연구원

소재지 및			
기관명	시·도	시·군·구	노인(종합)복지관
응답자	연락처		() -
성명			

여성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각 직문항목에 기록하거나 응답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

1. 귀하께서는 노인복지관을 어떻게 알고 이용하게 되었습니까?

- | | |
|-----------------------|---------------------------|
| ① 가족, 친구의 안내 | ② 주민센터직원, 동장, 사회복지사 등의 소개 |
| ③ TV, 인터넷, 소식지 등을 통해서 | ④ 거주지 읍·면동 내에 있어서 |
| ⑤ 기타(_____) | |

2. 귀하께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주로 언제입니까?

- ① 오전 ② 오후 ③ 종일 ④ 기타(_____)

3. 귀하께서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 | | | |
|------------------|------------|-----------------|
| ① 걸어서 | ② 자전거로 | ③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
| ④ 노인복지관 (셔틀)차량으로 | ⑤ 본인의 자동차로 | ⑥ 가족이나 친구의 자동차로 |
| ⑦ 기타(_____) | | |

4. 귀하께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에서 **3순위**까지 선택하여 번호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한글, 영어, 컴퓨터, 스마트폰 등) | ②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악기, 서예, 그림, 노래 등) |
| ③ 건강관리 및 운동 프로그램 이용
(댄스, 에어로빅, 건강체조, 요가 등) | ④ 장기, 바둑, 탁구, 게이트볼 등 오락 |
| ⑤ 자원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참여 | ⑥ (경로식당) 식사서비스 이용 |
| ⑦ 일자리사업 참여 | ⑧ 주간보호 등 기능회복 관련 서비스 이용 |
| ⑨ 친목도모 | ⑩ 기타(_____) |

연구보고서 2016-54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016년 10월 31일 인쇄

2016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 강은희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000(대)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전화 / 02-2269-9917(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799-01